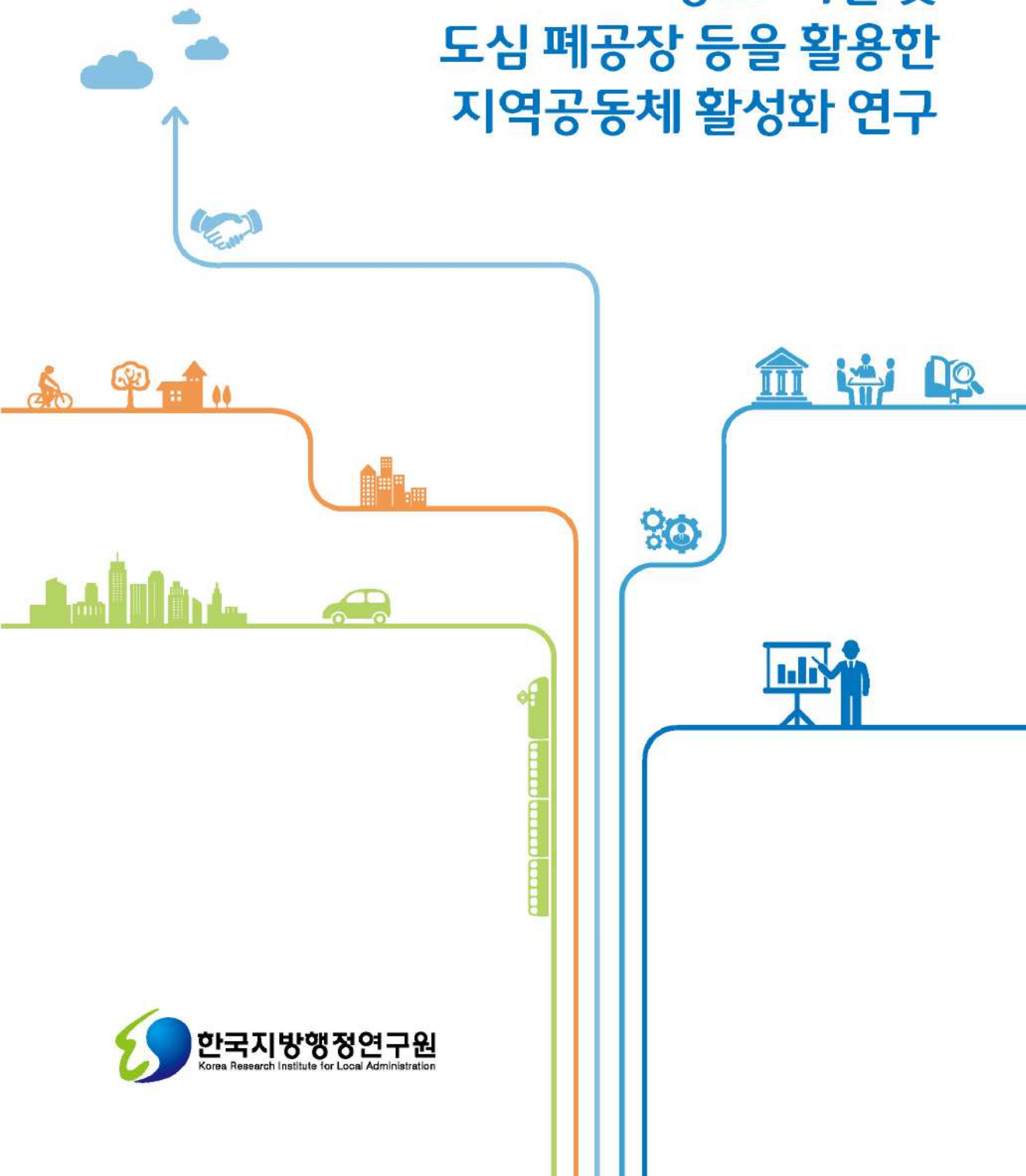
정책연구 2015-11

향교·서원 및 도심 폐공장 등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 구 진

김선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은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도시내 유휴공간의 활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

❍ 도시가 확장·축소되거나 내부가 재구조화되면서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는 산물로서 유휴공간이 끊임없이 재생산

– 유휴공간은 제대로 관리되거나 활용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범죄 장소로 악용되거나 화재와 붕괴의 위험에 노출되고 악취와 분진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 유휴공간 중에서도 유교문화유산이나 근대산업유산의 경우 지역공동체 문화의 구심점임에도 불구하고 몰이해와 저평가로 인해 활용이 극히 부진하기 때문에 현대적 재활용이 요구

– 최근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유휴공간과 관련한 정책적 수요가 크게 증가

□ 문화융성시대에 부응하여 유휴공간의 의의와 활용가치를 새롭게 재조명

❍ 유휴공간인 유교문화유산과 폐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함으로써 문화융성시대의 정부정책에 부응

– 저평가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새로운 수요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커뮤니티의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육성

❍ 특히 향교·서원 등 유교문화유산과 폐공장 등 근대산업유산은 그 자체의 역사문화적 의의가 클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거점시설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음

❍ 이 연구는 향교·서원 등 유교문화유산과 폐공장 등 근대산업유산의 현대적

활용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육성하는 새로운 마을 만들기 시책을 구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2.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제언

□ 유휴공간의 유형별 개념 및 활용가치의 정립

❍ 유휴공간이란 “원래의 용도와 기능이 사라져 방치되어 있거나, 또는 원래의 용도와 기능대로 유효적절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 및 부수적인 공간”을 총칭
- 유휴공간을 이제는 사라져야 하는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의 부산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 재생의 새로운 자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유휴공간은 잃어버린 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부각하고 현대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문화 활성화의 촉매 역할뿐 아니라 지역문화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커뮤니티형 문화공간 거점 역할을 수행

❍ 유교문화유산이란 “유교에 바탕을 둔 생활양식으로 만들어진 유무형의 문화유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
- 유교문화에 관련된 유형과 무형의 유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대표적 교육기관인 향교·서원의 시설물과 관련된 유무형의 역사적 유산이 대상

❍ 근대산업유산이란 “산업화과정에서 형성된 생산시설, 직간접 인프라, 행재정 시설” 등을 포함하는 개념
- 지역공동체 활용에 관련된 폐공장, 폐상가 등 도심유휴시설이 대상

□ 향교·서원의 활용 실태 및 지역공동체 활용방안

❍ 향교·서원의 의의와 현대적 활용가치
- 향교(鄕校)는 국가에서 설립한 국립 교육기관으로서 유교문화를 바탕으

로 설립·운영되었으며, 고려시대부터 창건되어 조선시대에는 전국 각 지역마다 1개의 향교가 설립

- 서원(書院)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연구와 교육, 선현의 제사를 목적으로 지방의 선비들이 세운 사학(私學) 기관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성격
- 향교·서원은 대표적 유교문화유산으로서 한국역사, 인문학, 전통문화, 동양고전 등의 사회교육기관, 유학과 관련한 현대적 도서관 기능, 교 의례의 현대적 계승과 발전의 매개장소, 한국과 동양의 역사·사상·철학의 교육·학습공간, 지역공동체 육성의 거점시설로 활용 등 다양한 활용가치를 보유

❍ 향교·서원의 현대적·문화적 활용사업 추진실태

- 향교·서원의 현대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등 사업을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경북(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안동시(유교랜드 테마파크) 등 여러 지자체가 유교문화의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

❍ 향교·서원의 활용 프로그램 개발

- 향교·서원이 갖추고 있는 명륜당, 강당, 서재 등 건축공간과 실내공간을 활용하여 강학(講學)과 장수(藏修)를 혼용하여 연령대별로 특화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 유교문화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유교문화자산을 선비의례와 문화 체험자원으로 활용
- 힐링에 대한 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현대인의 질병인 정신질환이나 스트레스 등의 해소를 위한 수양·휴식 프로그램을 운영

❍ 향교·서원 활용을 통한 마을만들기 추진

- 향교·서원이 소재한 마을의 '장소만들기'를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거점시설을 건립하고 필요한 부대시설 및 경관을 정비

–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마을교육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만들기 추진조직을 구성하며 다양한 마을사업을 발굴하여 주민 참여 및 공동 추진을 모색

❍ 향교·서원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구축

– 역사문화공동체 육성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는 향교·서원의 보존·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

– 마을과 주민, 마을과 마을, 마을과 지역사회, 마을과 행정이 함께 연대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과 네트워킹 강화를 추진

❍ 향교·서원 활용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 향교·서원 등 유교문화유산의 활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세·재정 등을 지원

– 향교·서원 등 유교문화유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호·보존 위주의 현행 문화재보호법 등을 개정하여 문화 향유 및 시설 활용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거나 또는 문화유산 활용을 다룬 별도의 법률로서 「문화유산활용진흥법」(가칭) 제정을 검토

– 유교문화유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전문문화인력(문화관광해설사, 학예연구사, 숲해설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

– 외부의 관련 연구소·문화기관·문화단체 등이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해서 제공

– 행자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추진단계별로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실시

– 향교·서원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교문화에 대한 유교문화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유교문화의 현대적 해석과 가치를 홍보전파하여 활용의 수요기반을 확충

❍ 향교·서원 활용 지역공동체 육성 시범사업 추진

– 단기적으로 일정 향교·서원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거점시설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한시적 공모사업으로 「역사문화 공동체 육성사업」을 추진

□ 폐공장 등 근대산업유산의 현대적 활용방안

❍ 근대산업유산의 개념과 의의
– 우리나라의 근대산업유산의 시기는 대체로 한국 근대산업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대산업유산의 시작점을 조선 후기로 두고 있음
– 유형적 근대산업유산은 현대적 재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효과, 문화적 효과, 지역적 효과, 상징적 효과, 건축적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

❍ 근대산업유산의 활용사업 실태
– 폐산업시설을 비롯한 근대산업유산의 활용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이 대표적이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 근대산업유산 활용의 국내외 사례분석
– 근대산업유산 활용의 해외사례 : 영국 게이츠 헤드 발틱 현대미술관, 일본 요코하마 아카렌가 소고(창고)개조, 미국 뉴욕 SOHO 문화지구, 일본 도쿄 Yebisu Garden Place, 미국 Chelsea Market, 이탈리아 밀라노 조나 토르토나, 중국 베이징 따산즈 798 예술특구, 홍콩 웨스턴마켓 등
– 근대산업유산 활용의 국내사례 : 서울 영등포공원, 대구 KT&G 재활용, 서울 문래예술단지, 서울 금천예술공장, 안양 석수시장 등

❍ 근대산업유산의 현대적 활용 프로그램
– 근대산업유산을 성격에 따라 전시공간형, 문화복합공간형, 문화 상권공간형, 공원형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의 특성과 활용 목적에 맞게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

❍ 근대산업유산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시책
– 근대산업유산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해당 근대산업유산의

정체성의 관점에서 자료가 축적되고 공개될 필요가 있음

- 근대산업유산이 건축적인 가치나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가치에 따라 복원을 위한 사업이 차별적으로 진행될 필요
- 복수의 폐산업시설이 동시에 개발될 필요가 있거나 주변 지역이 연계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 수립을 하는 데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
-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사업 집행을 위한 근거로서 「근대산업유산활용진흥법」(가칭) 제정을 검토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근대산업유산 재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추진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하기 위하여 행자부가 주도하여 한시적 공모사업으로서 ‘근대산업유산 재활용 시범사업’(가칭)을 추진



차 례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1. 연구목적 ····· 3
2.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5

1. 연구범위 ····· 5
2. 연구방법 ····· 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8

제2장 유휴공간 활용의 개요 ····· 11

제1절 유휴공간의 발생 원인과 특성 ····· 13

1. 유휴공간의 개념과 발생원인 ····· 13
2. 유사개념과의 관계 ····· 15

제2절 유휴공간 활용과 커뮤니티 재생 ····· 18

1. 유휴공간 활용의 개념과 활용방식 ····· 18
2. 유휴공간 활용의 의의와 효과 ····· 21

제3장 향교·서원의 활용 실태 및 정책 방안 ····· 25

제1절 유교문화유산의 개념 및 활용가치 ····· 27

1. 유교문화유산의 개념과 현대적 해석 ····· 27
2. 향교·서원의 개요와 활용가치 ····· 31

제2절 향교·서원의 활용 시책 및 사업 실태 ···· 39

1. 중앙정부의 시책 및 사업 ····· 39
2. 자치단체의 시책 및 사업 ····· 44

제3절 향교·서원의 현대적 활용 사례 ····· 47
1. 우수사례의 선정 ····· 47
2. 향교·서원 활용사례 ····· 48
제4절 향교·서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육성방안 ·· 59
1. 향교·서원 활용의 기본방향 ····· 59
2. 향교·서원 활용 프로그램 개발 ····· 61
3. 향교·서원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 70
4. 정부의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 87
5. 향교·서원 활용 지역공동체 육성 시범사업 ·· 93

제4장 근대산업유산의 현대적 활용방안 ····· 99

제1절 근대산업유산의 개념과 의의 ····· 101
1. 근대산업유산의 개념 ····· 101
2. 산업유산의 범위와 유형 ····· 104
3. 근대산업유산의 활용가치 ····· 107
제2절 근대산업유산의 활용사업 실태 ····· 108
1.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 108
2.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 117
3. 도시재생사업 ····· 121
제3절 근대산업유산 활용의 국내외 사례분석 · 125
1. 근대산업유산 활용의 해외사례 ····· 125
2. 근대산업유산 활용의 국내사례 ····· 145
제4절 근대산업유산의 현대적 활용방안 ····· 154
1. 기본방향 ····· 154





2. 활용 프로그램 개발 ····· 157
3. 정부의 제도개선 및 지원시책 ····· 160
4. 근대문화유산 활용 시범사업 ····· 163

참고문헌 ····· 167

부록1 : 역사문화자원 활용 관련 정부지원사업 현황 ·· 173
부록2 :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목록 ··· 178

표 차 례



<표 2-1> 유휴시설의 발생원인 및 유형(사례) ····· 15
<표 2-2> Fitch의 역사적 건축물 활용방식 ····· 19
<표 2-3> NPS의 역사적 건축물 활용방식 ····· 20
<표 3-1> 전국 향교문화재 현황(2015) ····· 33
<표 3-2> 전국 서원문화재 현황(2015) ····· 35
<표 3-3> 향교·서원·고택문화재 활용사업 개요 ····· 40
<표 3-4> 향교·서원·고택문화재 활용사업 운영유형 ·· 40
<표 3-5> 단계별 교육과정 및 내용(예시) ····· 79
<표 3-6> 역사문화 공동체 육성 시범사업 선정기준(예시) ··· 96
<표 4-1> 산업유산의 범위 ····· 105
<표 4-2> 근대산업유산의 유형: 유형 vs 무형 ····· 105
<표 4-3> 산업유산의 개념적 범위 ····· 106
<표 4-4> 근대산업유산의 조건별 유형 ····· 107
<표 4-5> 문화예술창작벨트조성 시범사업(2009) ····· 110
<표 4-6> 군산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사업 성과 ·· 111
<표 4-7>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선정 · 118
<표 4-8>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결과 ····· 123
<표 4-9> 도시재생 선도지역 재정지원 ····· 123
<표 4-10> 게이츠헤드 개요 ····· 126
<표 4-11> 요코하마 개요 ····· 130
<표 4-12> 뉴욕 개요 ····· 132
<표 4-13> 도쿄 개요 ····· 135
<표 4-14> 뉴욕 개요 ····· 137
<표 4-15> 밀라노 개요 ····· 139
<표 4-16> 베이징 개요 ····· 141
<표 4-17> 홍콩의 개요 ····· 143

그 림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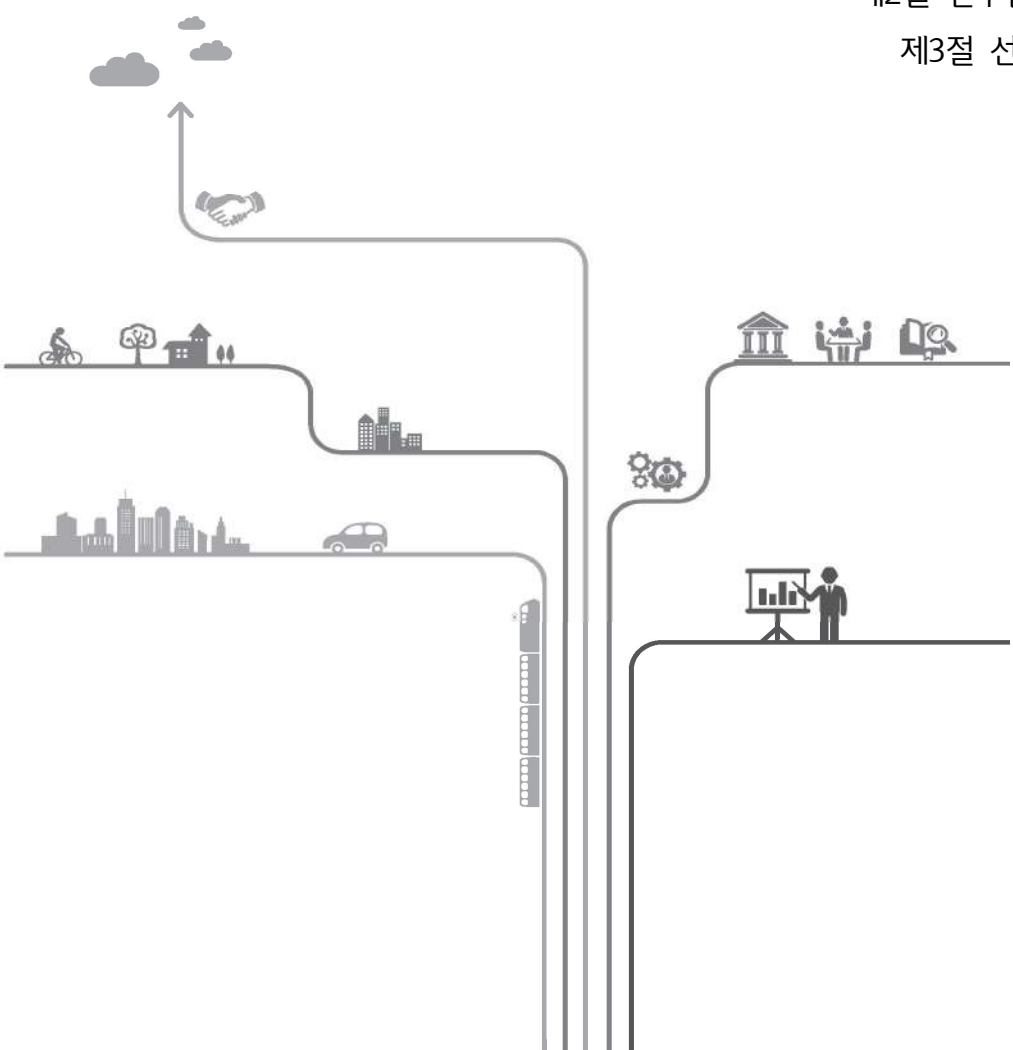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틀 ····· 7
<그림 2-1> 유휴공간과 유사 용어와의 범위 관계 ····· 18
<그림 3-1> 향교의 구조 ····· 32
<그림 3-2> 서원의 구조(사례) ····· 34
<그림 3-3> 향교·서원·고택문화재 활용사업 프로그램 ·· 41
<그림 3-4> 제1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 행사 ····· 45
<그림 3-5> 유교문화 따라 떠나는 향교·서원 여행 ···· 45
<그림 3-6> 유교랜드(위: 내·외부 모습, 아래 : 체험활동) ·· 46
<그림 3-7> 퇴계연가 공연모습 ····· 46
<그림 3-8> 원주향교 ····· 49
<그림 3-9> 옥산·서악서원 ····· 51
<그림 3-10> 월봉서원 ····· 53
<그림 3-11> 심곡서원 ····· 55
<그림 3-12> 돈암서원 ····· 57
<그림 3-13> 유교 핵심 가치 키워드 기반 교육모듈화 전략 ····· 62
<그림 3-14> 마을 만들기의 추진단계 ····· 72
<그림 3-15> 향교·서원 활용의 요소 ····· 73
<그림 3-16> 마을 만들기의 추진주체간 역할 ····· 74
<그림 3-17> 마을지도 만들기 ····· 75
<그림 3-18> 완주군 로컬푸드 시스템 ····· 83
<그림 3-19> 마을의 자원과 역량 결집을 위한 네트워킹 ·· 87
<그림 3-20> 시범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 98
<그림 4-1> 산업유산의 시간적 범위 ····· 103
<그림 4-2> 증도예술창작벨트의 성격 ····· 112
<그림 4-3> 증도예술창작벨트 기본구상 ····· 113



<그림 4-4> 증도예술창작벨트사업 성과 ····· 113
<그림 4-5> 포천 아트밸리 사업 추진경과 및 성과 ·· 114
<그림 4-6>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조성사업 성과 ····· 115
<그림 4-7> 아산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성과 ···· 116
<그림 4-8> 도시재생 추진조직 ····· 124
<그림 4-9> 게이츠헤드 재생 프로젝트의 추진 조직도 ·· 127
<그림 4-10> 게이츠헤드: 개발 전과 후 ····· 128
<그림 4-11> 요코하마 도시디자인 프로젝트 ····· 131
<그림 4-12> 아카렌카 창고: 개발 전과 후 ····· 132
<그림 4-13> 소호지구: 개발 전과 후 ····· 134
<그림 4-14> 예비스 가든 플레이스: 개발 전과 후 ·· 136
<그림 4-15> 첼시마켓: 개발 전과 후 ····· 138
<그림 4-16> 조르 토르토나: 개발 전과 후 ····· 141
<그림 4-17> 따산즈 798지구: 개발 전과 후 ····· 142
<그림 4-18> 홍콩 웨스턴 마켓: 개발 전과 후 ····· 144
<그림 4-19> 영등포 지역: 개발 전과 후 ····· 145
<그림 4-20> 대구 텐토픽 프로젝트: 개발 전과 후 ·· 147
<그림 4-21> 서울 문래예술공장: 개발 전과 후 ····· 149
<그림 4-22> 서울 금천예술공장: 개발 전과 후 ····· 151
<그림 4-23> 석수시장 내 스톤앤워터 ····· 153
<그림 4-24> 안양 석수시장: 개발 전과 후 ····· 154
<그림 4-25> 근대산업유산 재활용 시범사업의 추진절차 ·· 166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 문화융성시대에 유휴공간의 의의와 활용가치를 새롭게 재조명

- ❍ 유휴공간인 유교문화유산과 폐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함으로써 문화융성시대의 정부정책에 부응
- ❍ 저평가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유휴공간을 새로운 수요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커뮤니티의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육성

□ 유휴공간의 지역공동체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책 개발

- ❍ 우수 활용사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유휴공간 활용사업의 기획 - 집행 - 관리의 단계별 성공요인과 시사점을 도출
- ❍ 유휴공간의 특성별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용을 위한 지침으로 제공
- ❍ 유휴공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지원시책을 발굴, 제시

□ 시범사업 제안을 통해 지역공동체 참여 촉진과 역량 제고

- ❍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추진역량을 제고
- ❍ 지역공동체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유휴공간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공동체 주도의 지역발전 도모

2.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증가하는 유휴공간에 대한 효율적 관리 필요

❍ 도시는 경제적·사회적 압력에 반응하여 확장·축소되거나 내부가 재구조화되는 등 끊임없이 변화하며 유휴공간은 이러한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는 산물로서 끊임없이 재생산

❍ 유휴공간은 제대로 관리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범죄 장소로 악용되거나 화재와 붕괴의 위험에 노출되고 악취와 분진을 유발하는 등 주변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

❍ 유교문화유산의 경우 지역공동체 문화의 구심점임에도 불구하고 몰이해와 저평가로 인해 활용이 극히 부진하기 때문에 현대적 재활용이 요구

□ 유휴공간의 활용에 대한 수요와 관심 증대

❍ 지방자치와 더불어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경쟁력이 매력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유휴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

❍ 최근에는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유휴공간과 관련한 정책적 수요가 크게 증가

□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거점공간 필요

❍ 지역공동체 문화의 원천이자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유교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의 거점으로 활용

❍ 공장 이적지 등 대규모 폐산업시설에 문화시설이나 체험활동을 도입하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도시경쟁력을 제고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활용 대상 유휴공간의 범위

❍ 이 연구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용 대상시설은 유교문화유산인 향교·서원과 근대산업유산인 폐공장·폐상가 등 폐산업시설로 한정

❍ 유교문화유산 : 유교문화에 관련된 유형과 무형의 유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대표적 교육기관인 향교·서원의 시설물과 관련된 유무형의 역사적 유산이 대상

❍ 근대산업유산 : 산업화과정에서 형성된 생산시설, 직간접 인프라, 행재정 시설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지역공동체 활용에 관련된 폐공장, 폐상가 등 도심유휴시설이 대상

□ 유휴공간 활용의 정책방안

❍ 유휴공간의 활용은 정부정책에 대한 참고를 고려하여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하여 접근

- 유휴공간의 유형별 활용 프로그램, 유휴공간의 활용을 위한 지원시책, 유휴공간의 지역공동체 활용 시범사업 제안 등

❍ 각 시설별 활용방식의 상세한 세부사항(설계, 건축, 디자인, 교육방식, 교과목 등)과 활용의 행정적 절차 등은 연구범위에서 제외

2.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유휴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보고서 및 선행연구 검토

❍ 유휴공간 활용시책에 관한 정부 및 자치단체 행정자료 검토

□ 유휴공간 활용사례 분석

❍ 향교서원 및 폐산업시설의 활용에 관한 국내외 유형별 사례를 선정하여 활용방식, 활용효과 및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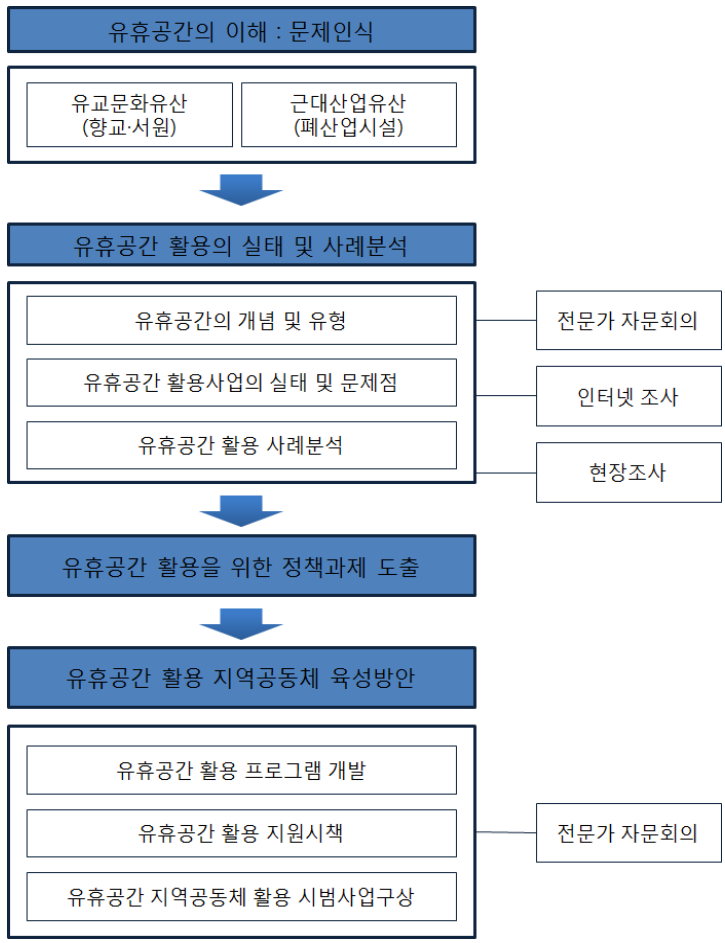
❍ 기존 문헌 및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필요시 자치단체 및 현장 조사

□ 전문가 워크샵 개최

❍ 유휴공간 활용에 관련된 전문가(학계, 연구원 등) 및 공무원 등과 워크샵 개최

❍ 활용실태 및 사례와 활용방안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한 토의

<그림 1-1> 연구의 틀


유휴공간의 이해 : 문제인식
유교문화유산 (향교·서원)
근대산업유산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활용의 실태 및 사례분석
유휴공간의 개념 및 유형
유휴공간 활용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
유휴공간 활용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인터넷 조사
현장조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유휴공간 활용 지역공동체 육성방안
유휴공간 활용 프로그램 개발
유휴공간 활용 지원시책
유휴공간 지역공동체 활용 시범사업구상
전문가 자문회의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유교문화유산의 활용 관련 연구

❍ 유교문화유산의 활용에 관한 연구는 유교문화의 개념 유교문화유산의 가치 등에 관한 이론연구와 유교문화유산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시도연구원을 중심으로 시도별 향교·서원의 활용에 관한 연구가 시도

❍ 주요 연구

- 이흥재·장미진(2001) : 전국의 향교와 서원을 대상으로 우리 민족문화창달을 위한 현대적 활용방안으로 사회교육기관화, 예절교육과 동양고전교육 등과 같은 특화 프로그램 운영, 유교 관련 체험행사, 관광자원화 등을 제시
-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2009) : 서원·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비전, 전략, 프로그램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임선빈(2003) : 충남지역의 향교를 대상으로 수범사례의 소개와 함께 현대적 활용방안을 활용유형별로 제시
- 김양식(2009) :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유교문화자원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유교문화자원의 활용방안을 제시
- 황태희·최희수(2014) : 향교·서원의 의의와 가치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유교문화 프로그램을 교육학습과 문화체험으로 구분하여 제안
- 박봉원·유영심(2014) : 강원도를 사례로 향교·서원별 프로그램과 특징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

□ 근대산업유산 관련 연구

❍ 근대산업유산 자체를 직접 주제로 삼고 있는 연구들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산업유산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이론적 연구, 보존·활용 방법연구, 국내 및 해외사례 등의 소개를 통해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개발이나 지역재생

을 다룬 연구, 지역별로 근대 산업유산을 파악하여 활용잠재력을 평가한 연구 등으로 구분

❍ 주요 연구(예시)

- 전홍규(1998) : 에코 뮤지엄 만들기 사례를 통하여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개발운동에 대하여 논의
- 강동진(2003) : 산업유산의 개념과 가치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염미경(2004) : 산업유산의 지역관광개발 가능성 타진, 산업유산 보전 및 활용과정에서 민관 참여방식에 대한 일본사례 분석
- 강동진(2005) : 부산시 건설 산업의 실태분석과 활용방안 제시
- 이순자 외(2008) : 근대 산업유산의 보존·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별 근대산업유산의 활용잠재력을 평가
- 추용욱(2009) : 강원도를 대상으로 근대산업유산을 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활용사례를 토대로 보존 및 활용방향을 제시
- 남지현(2012) : 일본의 도시 빈공간 활용사례에 대한 심층분석을 바탕으로 도시 빈 공간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동거점 만들기 정책방향을 제시
- 정민주(2013) : 국내외 폐공장 활용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하고 시사점을 정리
- 강동진(2013) : 산업유산의 업종별 자원체계를 분석하고 재활용방안을 재활용과정의 단계별로 제시

□ 본 연구의 차별성

❍ 유휴공간을 지역공동체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음

- 유휴공간 중에서 지역공동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지역공동체 활용이 용이한 향교·서원 등 유교문화유산과 폐산업시설(폐공장, 폐상가) 등 근대산업유산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의 활용을 모색

❍ 기존의 국내외 우수사례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성공요인을 토대로 현대적·창의적·융복합적 활용 프로그램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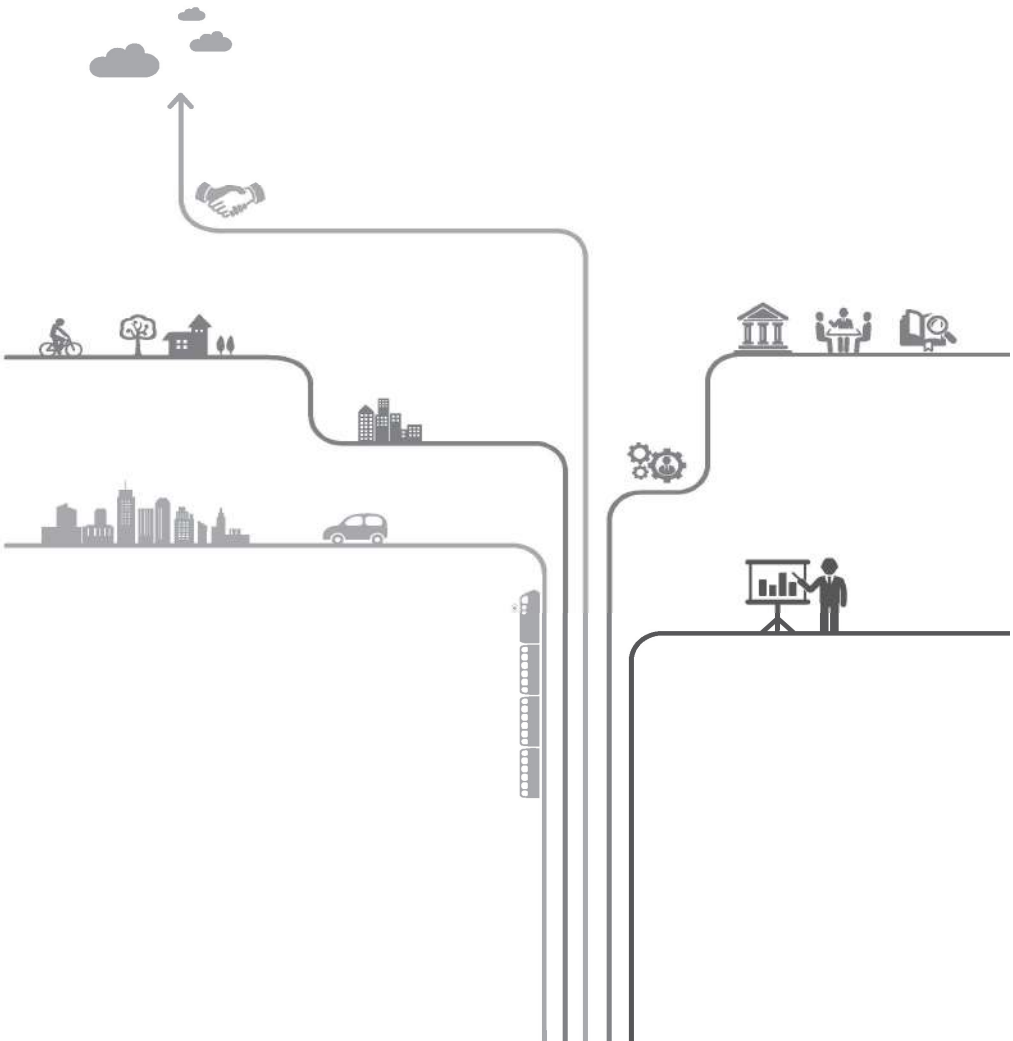
– 유휴공간의 유형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프로그램 대안을 제시

❍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유휴공간 활용 시범공모사업 구상을 제시

–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사업대상, 사업주체, 프로그램, 유형, 재정지원방식, 공모심사방법 등 한시적 시범사업의 세부추진방안을 강구

제2장
유휴공간 활용의 개요

제1절 유휴공간의 발생 원인과 특성
제2절 유휴공간 활용과 커뮤니티 재생



제2장 유휴공간 활용의 개요

제1절 유휴공간의 발생 원인과 특성

1. 유휴공간의 개념과 발생원인

□ 유휴공간의 개념

❍ 유휴공간이란 "원래의 용도와 기능이 사라져 방치되어 있거나, 또는 원래의 용도와 기능대로 유효적절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 및 부수적인 공간"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김성진, 2013 : 13-14)

❍ "유휴(遊休)"란 사전적으로 "놀거나(遊) 쉬고(休) 있어 현재 쓰임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버려지거나 쓸모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김연진, 2009 : 187)

- 유휴공간은 과거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곳으로서, 오늘날의 도시(지역)를 있게 한 '옛 흔적과 기억'이며, 현재는 쓰임이 없이 방치되어 있으나, 지역의 장소성(sense of place)과 정체성(identity)을 회복할 수 있는 주요 자원임
- 즉 현재 본래의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죽은 공간, 쓸모없는 공간의 의미로 빈공간 또는 폐공간 등으로 불리지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보(留保)'되어 있는 공간(시설)으로 볼 필요가 있음
- 유휴공간을 이제는 사라져야 하는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의 부산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 재생의 새로운 자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유휴공간의 발생원인과 유형

❍ 일반적으로 유휴공간은 근대화,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구조의 개편, 행정구

역의 개편, 교통체계의 변화, 농촌지역의 이농과 인구감소, 자연발생 자투리 공간과 해당 공간(시설)의 이용특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곽수정, 2006; 김연진, 2009)

- 유휴공간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발생원인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연관

❍ 유휴자원의 유형은 발생원인, 시설특성, 입지특성 등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 가능

- 발생원인에 따라 기능의 상실/용도 변용·변경, 기능의 부재, 한정적·한시적 이용 유휴공간(시설)으로 구분(김연진, 2009)
- 시설특성에 따라 건축물, 산업시설, 기반시설 이전적지·폐부지 등으로 분류(김현주·이상호, 2011)
- 입지특성에 따라서 가로공간, 건축공간, 수변공간으로 구분(백나영·민찬홍, 2002)

❍ 한편 유휴공간의 유형을 현재 활용정도를 기준으로 ①미활용 공간, ②비효율적 활용 공간, ③한시적 이용 공간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

- 미활용 유휴공간은 원래의 용도와 기능을 잃은 채, 현재에는 특별한 쓰임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공간
- 비효율적 활용 유휴공간은 필요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공간이지만 용도에 비해 불필요하게 넓거나 유효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 않은 공간
- 한시적 이용 유휴공간은 이용특성에 따라 특정 기간에는 본래 용도대로 이용되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사용되지 않는 공간

<표 2-1> 유휴시설의 발생원인 및 유형(사례)

발생원인		공간구분	유휴공간 발생양태	사례
기능상실/ 용도 변용·변경	이전(移轉)/ / 폐쇄(閉鎖) 유휴(遊休)	군사시설	군사시설이적지	미군부대 이적지, 국군기무사 이적지 등
		산업시설	공장 이적지, 폐 공장/ 창고	영등포 OB 공장, 삼덕제지 이전지, 대구 담배 제조창 등
		행정시설	행정기관/ 공공청사 이적지	정부종합청사 이전 예정지, 도청 이적지 등
		교육시설	폐교	농산어촌소재폐교 등
			옛교육시설	향교, 서원
		교통시설	폐선부지	용산선, 광주폐선부지, 장항선 폐선 부지 등
			엣역사	옛 서울역사 및 간이역사 등
		기타시설 (기반시설, 업무, 종교,집회시설 등)	폐발전소	당인리화력발전소등
			폐 정수장/ 유수지, 경마장, 쓰레기 매립지, 병원 등	선유도, 뚝섬, 난지도, 영등포 시립병원 부지 등
	도심 공동화		잠장적 유휴공간	비활성 지하상가, 도심 슬럼화 지역 등
기능 부재	자연발생 짜투리 공간		도로 및 가로 자투리 공간, 교각하부 등	교통섬, 교각하부 등 건물 사이 자투리 공간
한정적· 한시적 사용		정기시장		한산 모시장, 비인장 등 재래정기시장

주 : 김연진(2009, 188)의 표를 수정

2. 유사개념과의 관계

❍ 지역자산

– 지역자산은 “특정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유·무형의 자산”으로서, 자연적, 구조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자산으로 구분(국토연구원, 2011)

- 유휴자원은 현재는 원래의 기능이 쇠퇴하여 방치되고 있는 공간이지만, 활용 여하에 따라 지역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갖는 자산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산의 일부분에 포함

❍ 근대문화유산(근대역사환경)

- 근대문화유산은 "근대기를 살았던 사회구성원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예술 활동 등을 하는 가운데 형성된 문화적 소산"으로서[1], 건축물, 산업구조물, 생활문화유산, 역사유적, 활동근거지 등의 건축물과 시설물(부동산), 역사유산, 산업유산, 생활유산, 문화예술유산, 교육유산 등으로 구분
- 문화재청은 2001년 3월「문화재보호법」개정을 통해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이때 근대기를 보는 시간적 범위를 좁게는 19세기 말 개화기부터 1960년까지, 넓게는 1876년 개항 시점부터 1970년까지로 정의
- 근대역사환경은 근대문화유산과 동일한 개념인데, 강동진(2003)은 근대역사환경을 "근대기에 조성·형성되어 현재에도 시각적으로 관찰되거나 심상으로 그 고유성을 인지할 수 있는 물적·비물적 대상"으로 정의
- 유휴자원과 근대문화유산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개념이 정의되고 있어 상호 중복되는 측면이 많고,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근대문화유산은 모두 유휴자원에 포함

❍ (근대)산업유산

- 산업유산은 산업유산의 범위와 형성시기에 따라 개념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산업유산의 형성시기를 1970년대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이순자·장은교, 2010; 강동진 등, 2003; 강동진 등, 20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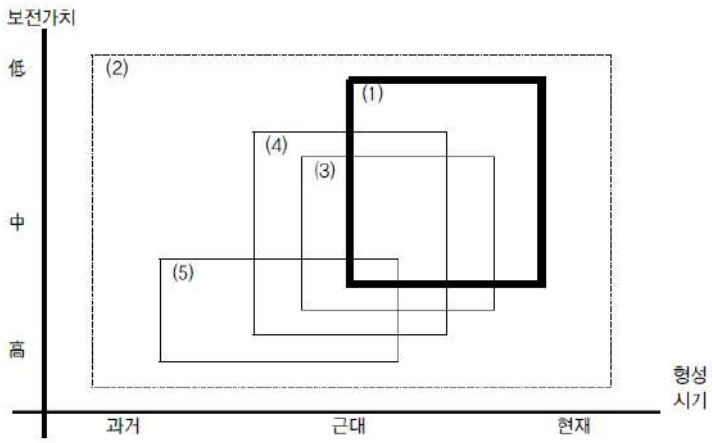
1)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서 일본은 10월 20일을「근대문화유산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김성진, 2914, 18).
2)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 산업유산은 “산업과 관련되는 산업시설 자체와 그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형성된 각종 인프라 및 행·재정적 지원체계”로 정의되며(이순자·장은교, 2010), 공업화(근대화)에 공헌하여 온 산업 관련 결과물, 기술 등과 이를 지원하였던 운하,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를 총칭(강동진 등, 2003)
- 산업유산 중에서 보전되지 못하거나 원래의 기능과 용도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면 유휴자원에 해당

❍ 등록문화재

-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건설·제작·형성된 후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서,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3호, 제53조)
- 등록문화재 제도는 2001년 3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도입되었으며, 2002년부터 등록이 시작되어 2014 12월 말 현재 657건이 등록

<그림 2-1> 유휴공간과 유사 용어와의 범위 관계



(1)유휴공간, (2)지역자산, (3)산업유산, (4)근대문화유산, (5)등록문화재

출처 : 김성진(2014: 23) 그림 수정

제2절 유휴공간 활용과 커뮤니티 재생

1. 유휴공간 활용의 개념과 활용방식

❍ 유휴공간의 활용방식은 유휴공간(시설)의 유형과 원구조물에 가해지는 조치(intervention)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김성진, 2014, 강동진·오세경, 2003)

❍ 미국의 역사적 건축물 보존학자 Fitch는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방식을 원 구조물에 가하는 조치에 따라 ①보존(preservation), ②복원(restoration), ③보전(conservation), ④재조립(reconstitution), ⑤전용(adaptive reuse), ⑥재건축(reconstruction), ⑦복제(replication)로 구분(최종덕, 2006; 문화재청, 2007)
  – Fitch의 보존방식 중 현대적 의미의 재활용과 가장 근접한 방식은 “역사

적 건축물을 건축 당시와는 달라진 새로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부는 가능한 한 보존하면서 내부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고쳐서 사용하는" 전용(Adaptive reuse)이 해당

<표 2-2> Fitch의 역사적 건축물 활용방식

구분	내용
보존 (preservation)	역사적 건축물이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을 때 건축물의 물리적 완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화재 및 도난 방지, 냉난방, 조명 등)로서, 건축물의 미학적 부분이나 외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함
복원 (restoration)	역사적 건축물은 건축 후 오랜 세월동안 증축, 개축 등 변화와 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변형되고 훼손된 부분을 과거 특정 시점의 모습(규모, 양식 등)으로 되돌리는 것
보전 (conservation)	역사적 건축물의 구조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바로 잡아 구조적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보수
재조립 (reconstitution)	역사적 건축물이 있던 원래의 장소나 새로운 장소에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여 조립하는 것
전용 (adaptive reuse)	역사적 건축물이 건축 당시와는 달라진 새로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부는 가능한 한 보존하면서 내부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고쳐서 사용하는 것
재건축 (reconstruction)	이미 사라진 건축물을 고고학적, 문헌적 증거에 따라 원래의 자리에 다시 건축하는 것
복제(replication)	현존하는 역사적 건축물을 똑같은 모습으로 다른 곳에 건축하는 것

출처 : 김성진(2014), 25쪽

❍ 미국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NPS)은 ①보존(preservation), ②복원(restoration), ③재생(rehabilitation), ④재건축(reconstruction)으로 구분(최종덕, 2006)

- NPS의 네 가지 보존방식 중에서 활용과 가장 가까운 방식은 재생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건축적 가치를 가진 건축물의 특정 부분이나 특징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수리나 변형 혹은 증축을 통하여 건축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의미

<표 2-3> NPS의 역사적 건축물 활용방식

구분	내용
보존 (preservation)	역사적 건축물의 현존하는 형태와 완결성, 재료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외형의 증축은 포함될 수 없고, 건축물의 적절한 기능 유지를 위한 제한적인 기계나 전기 또는 배관의 수리나 교체, 건축법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는 포함
복원 (restoration)	특정한 시기의 형태와 특징을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다른 시기의 특징들을 제거하고 없어진 특정시기의 특징들을 다시 만드는 일련의 조치
재생 (rehabilitation)	역사적, 문화적, 건축적 가치를 가진 건축물의 특정 부분이나 특징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수리나 변형 혹은 증축을 통하여 건축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재건축 (reconstruction)	이미 사라진 조경이나 건축물 혹은 구조물, 조형물의 특정시기 모습과 특징, 상세를 재현하기 위해 새로이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나 조치

출처 : 김성진(2014), 26쪽

- ❍ 도시재개발 수법에서는 ①철거재개발(redevelopment), ②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③보전재개발(conservation) 및 ④기능수복형 재개발(physical redevelopment and socioeconomic rehabilitation) 등으로 구분[3)]
- ❍ 산업유산의 재활용에서는 공간과 기능의 변형 정도에 따라 9가지(원공간유지·부분공간변형·대폭공간변형 × 원기능유지·부분기능변형·대폭기능변형)의 재활용 방법을 제시(강동진과 오세경, 2003)
- ❍ 이상의 유휴공간 활용방식에 따라 유휴자원 활용이란 "유휴공간이나 시설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계속 사용하기 위해 외형은 가능한 한 보존하면서 내부를 새로운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조치"를 의미(김성진, 2014 : 29)
  - 문화유산의 활용 문제는 1904년 마드리드 선언에서 처음 검토된 이후 서구에서는 역사적 건물의 철거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시민사회가 철거 위기에 처한 역사적 건물의 보존운동을 전개하면서부터 활용에 대한

3) 최막중과 나강렬(1999)은 철거재개발에 수복재개발이 결합된 기능수복형 재개발(Physical redevelopment and Socioeconomic rehabilitation)을 추가로 제안하고 있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음(문화재청, 2007)

-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퇴락한 역사적 건축물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문화유산 활용은 보존만큼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

2. 유휴공간 활용의 의의와 효과[4)]

□ 공간적 의의

❍ 잃어버린 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부각

- 기존 유휴시설을 재활용함으로써 원 기능을 잃은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변형하여 지역주민뿐 아니라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경쟁력을 제고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시설 리모델링 및 보수 작업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소외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유휴자산 활용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

❍ 복합적 지원방식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촉매 역할

- 유휴공간 활용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의 리모델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각종 장비와 기자재 지원, 공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복합적 지원 방식이 동원됨
- 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기능과 성격에 따라 필요한 기자재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운영단체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 복합적 기능의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공간 효율성 극대화

- 유휴공간의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활용은 문화예술인들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의미를 갖도록 설계되고 활용

4) 이하의 내용은 행정자치부(2009)와 문화체육관광부(2009)의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 창작공간, 공연장, 교육체험장, 도서관, 문화복지공간, 주민생활체육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간운영단체와 주민들 모두에게 유용한 의미를 지님

□ 프로그램의 의미

❍ 지역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 프로그램이 지역과 소통하는 핵심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명확한 영역을 가져야 하고, 운영주체와 공간 그리고 주민 간의 유기적 연계성이 확립되어야 함

❍ 주민과 소통하는 프로그램

- 유휴공간 활용으로 조성된 문화공간이 지역사회와 연계되지 않으면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활력을 잃게 되고 고립된 공간으로 전락
- 주민에게 다가가고 주민과 함께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은 주민과 공간의 매개 역할을 수행
-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유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자, 실무자, 주민, 외부인, 지자체와 지역의 유지, 중앙과 지역의 미디어 등 관련 주체들 간의 활발한 소통구조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

□ 지역에 미치는 효과

❍ 다층적 참여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 창출

- 공간 조성을 통한 정책 수혜자의 범위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와 활동가로 확대되어 지역의 문화예술공동체가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공간 조성의 수혜자로서의 주민이 아닌, 공간을 만들어가는 주민들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우, 공간의 의미가 더욱 큼

❍ 지역문화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커뮤니티형 문화공간 거점 역할
- 주민 교류의 장 또는 주민사랑방으로서 기능을 통해 주민 간 화합이 증진되고 지역공동체성이 강화
- 문턱 낮은 문화공간으로 위상을 설정하여 주민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주민들 일상 속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공동체가 형성되는 효과를 유발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에 대한 지원의 최종 수혜자가 주민뿐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와 활동가로 확대되면서, 공간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활동가 커뮤니티가 조성

❍ 지역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 증진
- 유휴공간 활용은 한정된 기능의 기존 낡은 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와 노인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가 증가하고 대안공간의 기능을 수행

❍ 특색 있는 마을 조성 기반 마련
- 농촌지역에 마을만의 특수한 문화적 자산을 발굴·활용하여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마을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 주민들에게 미치는 효과

❍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 주민 문화접근성 증진
-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은 농산어촌의 문화적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식
- 문화공간 조성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가깝게 다가가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함

❍ 지역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저변 인구 확대
- 전문예술단체가 창작과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와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증진
- 공간 활성화를 위해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써 주민들과의 유대관계가 강화되고 지역문화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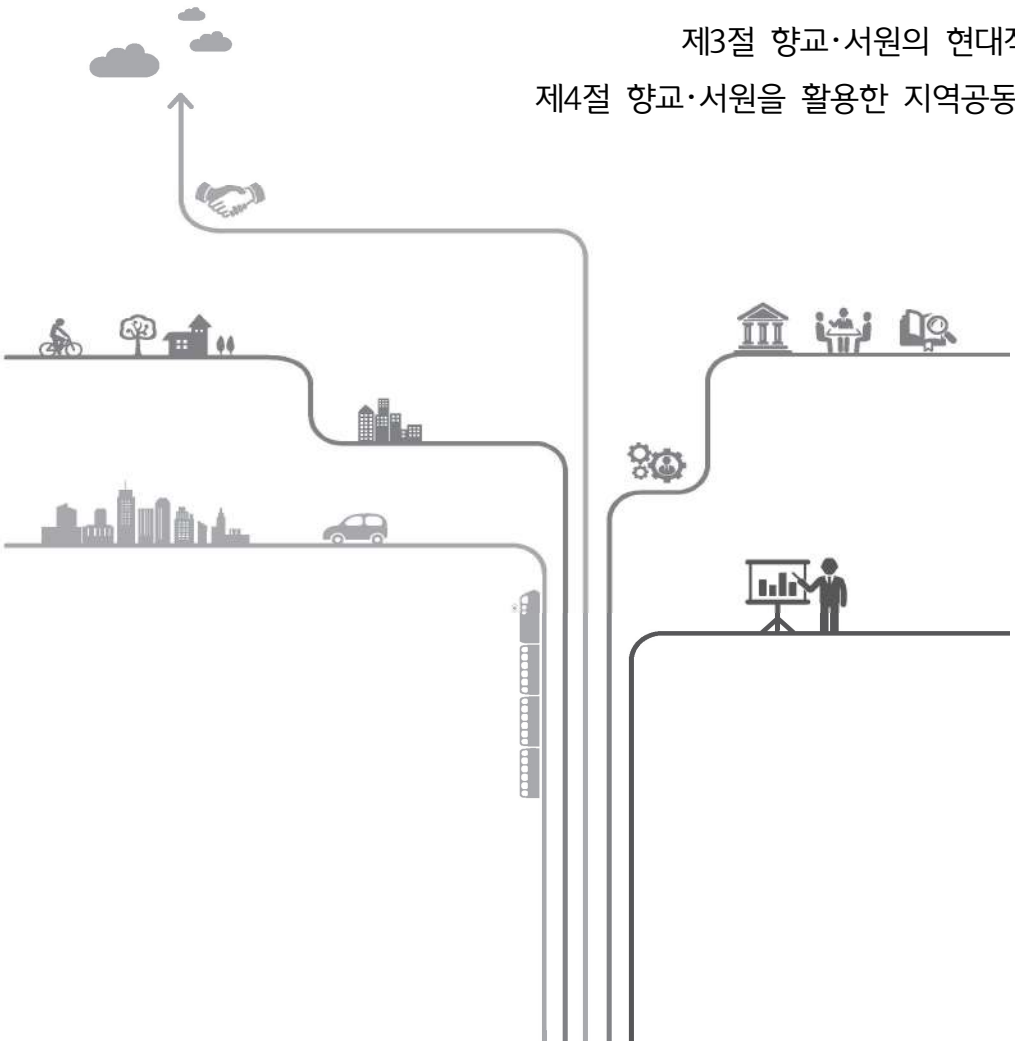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직접적 체험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자발적 동아리 활동으로 연결되면서 삶의 중심으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는데 기여

❍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 생성

- 주민 주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명소로 조성한 경우, 외지 방문객이 증가하고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긍심을 불어 넣어주는데 기여
- 해당 지역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산들을 보존·활용함으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고, 이는 곧 지역의 중요 영역자산(territorial assets)으로 기능 수행

제3장
향교·서원의 활용 실태 및 정책 방안

제1절 유교문화유산의 개념 및 활용가치
제2절 향교·서원의 활용 시책 및 사업 실태
제3절 향교·서원의 현대적 활용 사례
제4절 향교·서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육성방안



제3장 향교·서원의 활용 실태 및 정책 방안

제1절 유교문화유산의 개념 및 활용가치

1. 유교문화유산의 개념과 현대적 해석

1) 유교문화유산의 개념과 의의

❍ 현대적 의미를 지닌 유교문화유산은 '유교에 바탕을 둔 생활양식으로 만들어진 유무형의 문화유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김양식 외, 2009 : 11)

- 특정 자산이나 자원의 유교문화유산의 포함여부는 전적으로 유교적인 사상과 덕목, 즉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가 기준

❍ 유교문화란 "유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정서적인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 삶의 양식, 가치체계, 믿음, 습관 등의 총체적 복합체"라 할 수 있음

- 유교는 중국 춘추시대 말기에 나타나 인(仁)의 사상, 즉 인간다움을 바탕으로 극기복례(克己復禮)와 예(禮)에 따르는 삶이 곧 인(仁)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상
-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숭유억불정책을 전개하고 유교를 국가의 기반으로 함으로서 조선시대에 그 부흥기를 맞게 됨
- 그러므로 조선왕조 오백년에 걸쳐 형성된 유교문화는 그 뿌리가 깊어 현대에 이르러서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

❍ 원래 유교문화의 핵심주체는 선비로서 선비정신을 통해 유교문화가 찬란하게 부흥할 수 있었음

- 선비란 조선시대에 유교이념을 실천하면서 어질고 지식이 있는 사람, 혹은 덕행과 학문을 겸비한 사람을 말함(한상우 외, 2014)

- 선비정신은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정신문화 유산으로, 포은 정몽주, 퇴계 이황, 남명 조식, 다산 정약용 등 선조들의 선비정신에서 조선500년의 왕조가 이어졌고,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정신문화가 꽃필 수 있었음

❍ 유교문화와 관련된 유산은 크게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분류 가능
- 유형문화유산으로는 대표적으로 서원(書院), 향교(鄕校), 정(亭) 등이 있으며 서원과 향교는 교육·제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고, 정은 선비들이 시를 짓고 때로는 풍류를 즐기기도 하는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 무형문화유산으로는 지역의 유학자나 선비의 인물, 사상 및 그에 얽힌 전설이나 설화 등의 구비문학 등이 해당(한상우, 2014)

2) 유교문화유산의 현대적 해석

□ 유교문화유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유교문화유산이 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인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장소와 지역 및 공간을 바탕으로 보존·발굴·활용 등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 현재 유교문화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부정적이어서 유교문화는 과거시대의 것, 낡고 썩은 것,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것, 남존여비와 삼강오륜, 가부장적 가정윤리, 권위주의적 충효사상, 중국 중심의 세계관 등과 같은 전근대 봉건사회의 유산 등으로 그 가치가 부정, 폄하, 왜곡, 굴절되어 있는 실정(김양식 외, 2009)
- 오늘날 유교문화는 대중들에게 가장 매력적이지 못한 문화에 속해서 관광객이 가장 즐겨찾지 않는 외면당한 문화재로 전락
- 유교문화자원은 어느 자원보다도 잘 보존되어 있는 반면, 그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그 이유는 바로 가치의 부재 때문임
- 유교문화에 대한 가치 부정은 유교문화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그 활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형편임

□ 유교문화의 현대적 재해석

❍ 유교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세기 근대화·산업화·서구화가 낳은 결과로서 서구 중심의 가치관 때문에 조선시대의 유교문화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현대인의 삶에 창조적으로 적용될 역사적 기회가 없었기 때문임

❍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조선의 유교문화가 아니라 현대의 유교문화란 점이며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유교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현대 기호로 재해석된 언어와 표현방식이 필요

- 조선시대의 유교문화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할 유교의 근본원리와 정신에서 그 가능성과 해법을 찾아야 함
- 이미 역사학자 朴殷植은 “과거 19세기와 현금 20세기는 서양문명이 크게 발달한 시기요, 장래 21세기·22세기는 동양문명이 크게 발달할 시기다. 우리 공자의 도가 어찌 끝내 땅에 떨어지리오. 장차 전 세계에 그 광휘를 크게 드러낼 시기가 있을지니”라고 언급(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5 : 48, 김양식, 2009 : 15-16 재인용)
- 앞으로 전 세계에 드러낼 동양문명의 광휘는 조선시대의 유교문화가 아니라 공자의 도, 즉 유교의 가치·철학·원리가 전달하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도구적 가치에 있음

❍ 유교문화자원은 유교 내지 성리학 본연의 철학과 사상 및 세계관에 기초하여 그것을 현대적으로 응용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

-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유교 윤리는 복고적이며 기본적으로 현 시대와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 위에 유교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함
-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윤리패러다임은 자유, 평등, 연대의 보편가치를 공동체적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윤리패러다임 전제 위에서 유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교육이 이루어질 때 유교문화자원의 활용가치가 인정

❍ 유교의 현대적 재해석은 오늘날 21세기 바람직한 한국인상을 선비상에서 찾고자 하는 흐름과도 맥락이 통함(김양식 외, 2009, 재인용)

- 유교사회에서 선비는 참된 인간을 추구하는 인격체이며, '어질고 의로운'(仁義) 덕을 실현하는 주체임
- 따라서 선비는 이기적 사사로움을 벗어나서 공공의 열린 자세를 지킴으로써, 올바른 인간관계의 규범을 실현하는 모범이 되는 존재요, 인의 실천을 통해 공동체의 질서와 유대를 확립하는 역할을 담당
- 19세기 말 이래 한국 지식인들은 '선비(士와 儒)'라는 전통의 인간형의 재구성을 통해 근대적 인간형을 구상하였는데, 그것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되 도덕적 감수성을 잃지 않으며, 공동체에 대한 참여와 책임을 느끼고 공공선을 실천하는 인간을 의미
- 보통 선비정신으로는 청렴과 청빈, 항상 깨어 있는 마음, 예절바른 품성과 의연한 삶의 자세, 불의에 맞선 저항의식과 지조, 자연과 벗하는 풍류 문화의식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선비는 실천하는 지식인이자 도덕군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존재이며,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가 있는 문화인을 대변
- 선비 캐릭터를 통해 한국·한국인의 문화적 이미지를 기호화할 수 있다면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유교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고 문화상품의 개발도 가능할 것임

❍ 특히 향교와 서원은 가장 대표적인 유교문화유산이자 교육기관으로서 유교문화자원 중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편이며, 공통된 특징은 운영 주체가 선비(士와 儒)이고 공적인 유교문화의 중심공간이자 유교이념과 의례가 가장 잘 반영된 문화유산임

2. 향교·서원의 개요와 활용가치

1) 향교와 서원

□ 향교

❍ 향교(鄕校)는 국가에서 설립한 국립 교육기관으로서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설립·운영되었으며, 고려시대부터 창건되어 조선시대에는 전국 각 지역마다 1개의 향교가 설립

- 고려와 조선시대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한 관학 교육기관으로서 고려 인종 5년(1127년) 여러 주에 학교를 세우도록 명하여 지방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 태종 시기에 이르러 1읍1교의 원칙에 따라 각 군현에 향교가 창건(황태희·최희수, 2014 : 192)

❍ 조선시대 향교는 국가가 유교문화 이념을 수용하기 위해 중앙의 성균관과 연계시키면서 지방의 사회질서를 유교문화 논리에 접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향교는 강학과 성현에 대한 제사, 두 가지 기본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었으며, 그 밖에 사회교육과 지역사회 교화의 차원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
- 그 중에서도 향교의 일차적인 기능은 교육에 있으며, 조선은 개국하면서 국가 통치의 근간을 유교이념에 바탕을 두고 국가교육기관으로 성균관과 향교를 설립하여 유학 교육을 널리 보급
- 향교는 서당과 성균관의 중간 단계의 교육기관으로서 과거의 소과시험 합격을 목표로 둔 기관이며 유교적 가치의 체화와 과거시험 합격의 두 가지 목표에 맞게 교육 내용이 구성(박봉원·유영심, 2014 : 5)

❍ 향교에서는 공자를 비롯해 그의 제자, 우리나라, 중국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유교의 정신을 전파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킨 인물들에게 제례를 올리는 석전대제(釋奠大祭)를 행하였으며 지역 선비들의 구심처로서 유교문화 행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방 단위의 문화행사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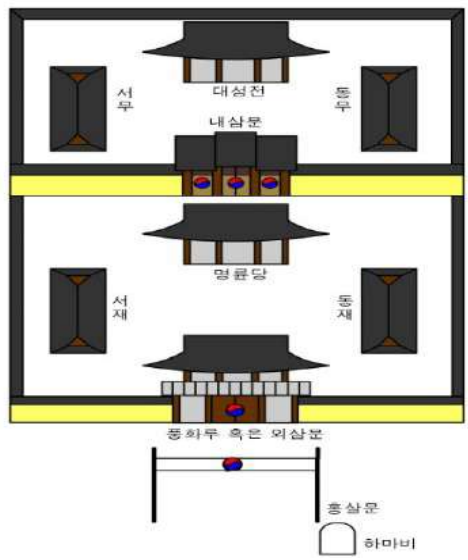
- 문묘제례(文廟祭禮)는 향교를 대표하는 행사이며 공자를 비롯한 역대 유

현(儒賢)들의 위패를 봉안한 문묘에 대한 제사 의식으로서 성현을 본받게 하려는 교화의 의도로 거행 석전

- 이 밖에도 향음주례(鄕飮酒禮), 기로연(耆老宴) 등 향촌 교화를 위한 각종 의식이 치러지는 장소로 활용((황태희·최희수, 2014 : 192)

❍ 향교의 건물은 제사기능을 담당하는 대성전과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명륜당, 중국 및 우리나라의 선현을 모시는 동무(동무), 서무(서무), 학생들의 기숙사로 동·서재 등 유교적 질서와 계층에 입각하여 건물이 배치(천종호, 2012)

<그림 3-1> 향교의 구조



자료 : http://blog.daum.net/eduzzang/7071381

❍ 조선 후기에 들어서 향교가 성현을 추모하고 공부를 하는 공간이 아닌 위세를 과시하는 공간으로 변질되면서 본질이 왜곡되어 쇠퇴의 길로 전락

- 갑오경장 이후 새로운 학제가 시행되면서 공자를 모신 문묘만 향교에 남고 학교기능은 상실

–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향교는 훼손되고 소실되었지만, 이후 지역 유림들에 의해서 재건되었으며, 2015년 현재는 전국에 230개 향교가 문화재로 지정(문화재청, 2015)

<표 3-1> 전국 향교문화재 현황(2015)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가지정	9										1			3	2	3		
시도지정	221	1	2	3	4	1	2	2	2	21	13	18	34	26	26	37	26	3
계	230	1	2	3	4	1	2	2	2	21	14	18	34	29	28	40	26	3

주1 : 국가지정(보물) : 강릉향교, 장수향교, 나주향교, 영천향교, 성주향교, 경주향교
주2 : 국가지정(사적) : 전주향교, 김제군 관아와 향교, 나주목 관아와 향교
자료 : 문화재청(2015b)

□ 서원

❍ 서원(書院)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연구와 교육, 선현의 제사를 목적으로 지방의 선비들이 세운 사학(私學) 기관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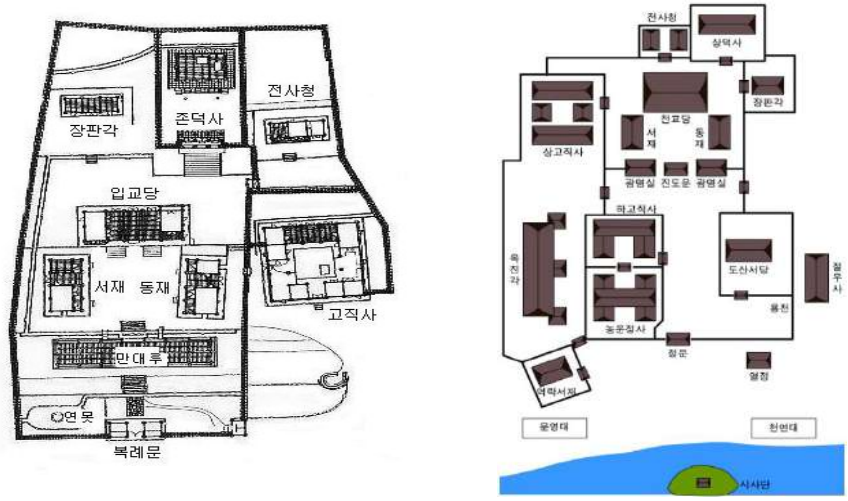
❍ 서원은 성리학이 지향하는 자연관과 한국의 문화적 전통이 반영된 교육 유산의 특출한 전형
  – 조선시기의 중요한 사설 교육기관이자 선현의 제사를 지내는 제향처(祭享處)로서 후진을 교육하고 선비정신을 고양시키는 기관
  – 400여년 이상 보존되어 온 대표적 교육기관으로서 조선 후기 성리학을 더욱 발전시키고, 향약 등 향촌질서를 유지하며 백성을 계도시키는 역할을 수행
  – 제향과 강학의 주요 기능 이외에도 지역 당쟁과 학맥의 거점이며 이를 통한 시대적 세습과 인맥으로 인해 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침

❍ 현재 남아있는 서원은 강학과 향사의 두 가지 기능을 기본으로 지리조건, 주변경관, 시대적 배경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건축양식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큼(박봉원·유영심, 2014 : 10)

- 서원의 건축공간은 성리학적 가치관, 세계관, 자연관이 반영된 물리적 표상
- 서원의 공간은 휴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으로 구성되는 독특한 구조로, 건축과 자연이 잘 조화를 이루어 자연경관과 서원의 건축이 하나인 특징을 보임
- 강학기능을 담당하는 강당 권역에는 강당과 동재·서재가 있고 출입문과 출입문을 시작으로 건물을 둘러싼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향사기능을 하는 향사 권역에는 사당을 중심으로 전면에 묘문을 두고 묘문을 기점으로 사당을 에워싸는 담장이 설치
-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사상과 활동의 보고로써 유교의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존속된 곳으로 지역사회의 지성사적·정신사적 유서가 서려있는 소중한 공간

<그림 3-2> 서원의 구조(사례)



〈안동 병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자료 : http://blogdaum.net/muaedongcheon/852, http://blogdaum.net/eduzzang/7106635

❍ 조선 중종(1543년) 때 풍기군수이던 주세붕이 고려의 유학자 안향(1243~1306, 주자학 도입자)의 사묘를 세우고 그가 살던 경상도 백운동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설립한 것이 서원의 시초

– 이후 1550년 명종 때에 이황의 건의로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 사액(賜額)되면서 경제적 기반이 확립되어 명종 때 18개, 선조 때에는 50여개 서원이 세워졌고 그 중 21개의 서원이 국가로부터 사액을 받았으며, 숙종 때에는 사액서원이 무려 131개소로 증가(한상우, 2014 :3)

❍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은 서원의 부작용을 근거로 대대적인 서원철폐 정책을 강행하여 당시 679개의 서원 중 47개의 사액서원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폐

– 현대에 이르면서 당시 철폐되었던 서원의 문중이나 후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서원을 복원하거나 새로이 신설하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면서 2012년 현재 전국에는 700개의 서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한상우, 2014)

– 이 중 현재 국가 또는 시도가 지정한 서원문화재는 169건

<표 3-2> 전국 서원문화재 현황(2015)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가지정	13			1						2		1	1	1	1	4	2	
시도지정	156			4		1	2	1		10	3	4	16	21	15	33	46	
계	169			5		1	2	1		12	3	5	17	22	16	37	48	

주 : 국가지정(사적) : 도동서원, 돈암서원, 무성서원, 필암서원, 소수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남계서원, 자운서원, 화양서원, 덕천서원, 심곡서원

자료 : 문화재청(2015b)

2) 향교·서원의 현대적 활용가치

☐ 한국역사, 인문학, 전통문화, 동양고전 등의 사회교육기관

❍ 향교와 서원은 조선시대 유교문화가 전국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교육기관으로서 소학 보급이나 향촌의례 등 생활예절이 향교서원의 사회교육기능을 통해 전파(황태희·최희수, 2014)

❍ 향교와 서원은 조선시대 유학을 연구하고 교육-학습과정이 이루어지던 공적 교육기관으로 현재 대부분의 향교와 상당수의 서원은 원래의 모습과 교육공간이 보존

❍ 최근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원래의 교육기능을 되살려 유휴공간을 현대적인 사회교육공간으로 활용(김양식 외, 2009 : 15-21)

- 일차적으로는 유학과 관련된 교육에서 시작하여 점차 한국역사, 인문학, 동양고전, 전통문화 등으로 확대

☐ 유학과 관련한 현대적 도서관 기능

❍ 향교에는 강학의 도구로써 각종 교과용 도서나 사전, 주요 유학저술이나 각 시기별 대표적 서적, 국가의 주요 정책 관련 공문서 등이 보급·소장된 장소

❍ 향교·서원은 제향인물이나 그의 학맥을 잇는 인사들의 문집, 자료, 서적 등이 잘 보관되어 있으며 서원의 운영에 관한 실용적 자료들도 다수 보관

- 특히 서원에서는 제향하고 있는 인물의 문집이나 그림, 필체 등이 판각(板刻)되어 있거나 향약이나 시회(詩會)의 자료를 발간하는 등 조선시대의 출판문화를 선도

❍ 향교·서원은 다양한 조선시대의 유학 관련 자료와 유학교육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유학 관련 현대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황태희·최희수, 2014)

□ 유교 의례의 현대적 계승과 발전의 매개장소

❍ 유교적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禮)'이며,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인을 실천하여 참된 인간이 되는 길, 즉 극기복례(克己復禮)의 규범이며 조화로운 자연질서 처럼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보편적 원리이자 질서임

❍ 조선시대 유학자 내지 선비들은 가정을 이끌어 가는 원리, 사제간 및 친구간 강학공동체 형성 및 지역사회의 향촌공동체 유대를 예를 통해서 실천(금장태, 2000 : 1-2)

❍ 향교와 서원은 바로 그와 같은 유교의 예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화된 장소로서 유교의 예 정신과 문화를 밝히고 지역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차원에서 계승·발전시킬 필요

〈유교의 향촌의례 사례〉

❍ 士相見禮 : 선비들이 서로 공경하고 친애하는 사귐의 도리를 익히는 의례
❍ 鄕飮酒禮 : 향촌사회의 교화와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의례
❍ 鄕射禮와 投壺儀禮 : 자기 성찰과 수양을 위한 의례
❍ 講學禮 : 학풍을 엄숙하고 경건하게 하기 위한 의례

자료 : 금장태(2000) 참조.

□ 한국과 동양의 역사·사상·철학의 교육·학습공간

❍ 향교와 서원의 활용가치는 명현과 스승을 존숭하는 옛 정신에서 찾을 수 있음
  – 성균관과 향교는 스승이나 연고가 깊은 명현들의 학덕과 행적을 높임으로써 모범을 삼고 학풍을 진작시키는 장소

❍ 공자를 비롯한 배향 인물들은 대부분 한국, 더 나아가 동양의 위대한 학자였으며 이들 인물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역사, 철학, 문화를 이해하는데 유용

- 유교사회에서 선비는 참된 인간을 추구하는 인격체이며, '어질고 의로운'(仁義) 덕을 실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상과 철학의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한국인상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됨

❍ 경전의 독해를 통해 자연합일 정신, 문화 감성, 환경윤리 가치관, 느린 삶(slow life), 선비정신, 생활의례 등과 같은 유교문화의 사상, 정신, 학문, 가치관 등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전수

❍ 따라서 이들 공간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한국, 더 나아가 동양의 역사와 사상 및 철학을 배우는 교육 및 학습공간으로 활용

□ 지역공동체 육성의 거점시설로 활용

❍ 향교와 서원은 위대한 명현들이 배향되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이해는 곧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가꾸는데 유용

❍ 향교·서원은 조선시대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모이고 서로 접촉·교류했던 상징적 장소로서 지성인의 집합소이자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이었음
- 향교를 통해 배출한 인물이나 향약, 양사제와 같은 향교서원의 조직들은 당시 지역사회 지식인의 결속을 보여주는 사례

❍ 조선시대에 향교와 서원에서 이루어지던 여러 향촌의례는 지역주민의 결집을 강화하는 의례

❍ 따라서 향교·서원의 역사적·공간적 특성을 살리고 부대시설과 유교문화 컨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할 경우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데 기여

제2절 향교·서원의 활용 시책 및 사업 실태

1. 중앙정부의 시책 및 사업

□ 향교·서원·고택문화재 활용사업(문화재청)

❍ 사업 배경

–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113-1 : 문화유산 관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향교·서원문화재 관광자원화 및 전국 확대 실시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재 활용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극대화하여 문화재 향유서비스 강화

– 향교·서원 문화재의 진정성 회복 및 문화재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서원문화제 세계유산 등재 기반 조성

❍ 사업대상 : 향교문화재(230건), 서원문화재(169건), 고택문화재(169건)

❍ 사업목표

– 향교·서원·고택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융·복합적으로 창출하는 교육·문화·체험·관광프로그램 발굴·운영

– 과거 선현의 덕을 기리고 인재를 양성하던 서원·향교문화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문정신을 계승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

❍ 사업종류

– ①생생문화재, ②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등 2개 사업

❍ 추진경과

– 생생문화재 : 2014년 70건에 36.9억원(국비 18억, 지방비 18억, 자부담 0.9억)을 투자하였으며 2015년에는 104건에 20.6억원을 투자

–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만들기 : 2014년에는 총 24.6억원(국비 12억, 지방비 12억, 자부담 0.6억)을 투자하여 총 38개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문화재별로는 서원 24건, 향교 14건이고, 지역별로는 전남 7건, 경남 5건, 경기 4건, 충남·전북·경북·제주 각 3건, 인천·강원·충북 각 2건, 서울·

광주·세종 각 1건이고, 2015년에는 총 42억원(국비 21억 원, 지방비 21억 원)을 투자하며 지원대상 71곳을 선정하였는데 향교가 51건, 서원은 20건이 선정

<표 3-3> 향교·서원·고택문화재 활용사업 개요

사 업 명	생생문화재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추진방식	지방자치단체 공모 보조사업 (공모 6~8월 / 심사 9월 / 통보 10월)		
사업유형 지원규모	시범육성형(1년차)	집중육성형(2~4년차)	지속발전형(5년차 ~)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이상
사업기간	2008년~계속		2014년~계속
보 조 율	국비40% (지방비 60%) (광역30%+기초30%)		국비 50% (지방비 50%) (광역25%+기초25%)
2015년 사업규모	17개 시·도 104개소(20.6억원) - 고택 : 6개소 · 18개 프로그램 100여회		17개 시·도 71개소(21.2억원) - 향교 51개소 , 서원 20개소 · 289개 프로그램 4,800여회

자료 : 문화재청(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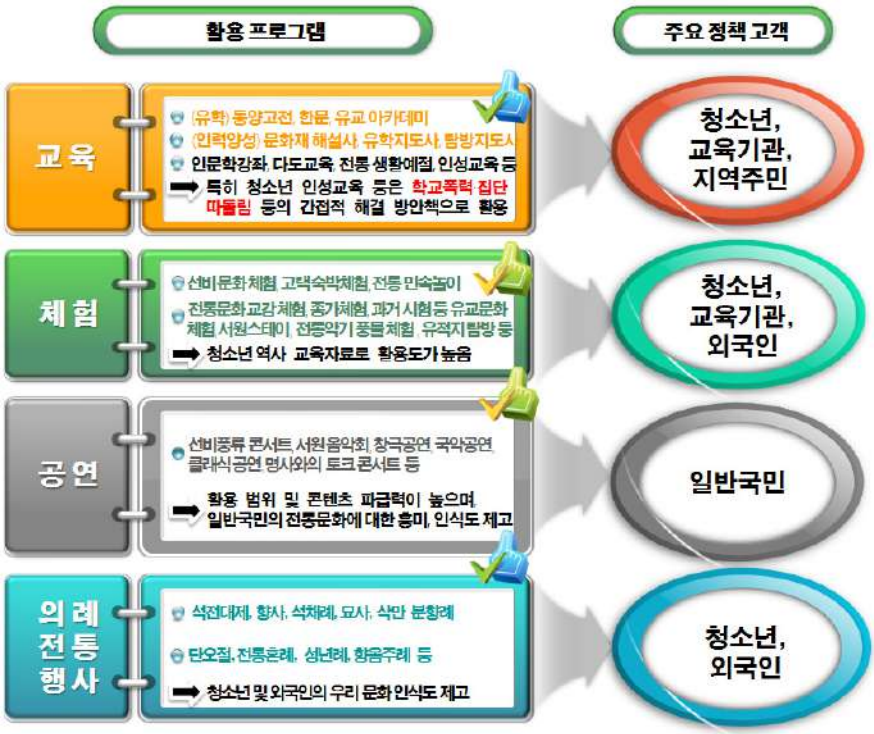
❍ 추진방식

– 자치단체 공모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숙박시설 구비 여부에 따라 8개 운영유형(숙박형 4유형, 당일형 4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표 3-4> 향교·서원·고택문화재 활용사업 운영유형

숙 박 형	당 일 형
(1) 숙박형-자족형-단독형	(1) 당일형-자족형-단독형
(2) 숙박형-자족형-연계형	(2) 당일형-자족형-연계형
(3) 숙박형-유입형-단독형	(3) 당일형-유입형-단독형
(4) 숙박형-유입형-연계형	(4) 당일형-유입형-연계형

<그림 3-3> 향교·서원·고택문화재 활용사업 프로그램



□ 선비문화 활성화 사업(문화체육관광부)

❍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선비문화 활성화를 위해 삼척향교, 홍천향교(강원도), 기장향교, 동래향교(부산), 대구향교, 현풍향교(대구), 월봉서원(광주), 고양향교, 설봉서원, 양성향교, 포천향교(경기도), 아산향교, 영동향교, 음성향교, 청주향교, 연기향교(충청도), 남고서원, 전주향교, 군자서원(전라도), 사빈서원, 상주향교, 선산향교, 영덕향교, 남해향교(경상도), 대정향교, 제주향교(제주도) 등 전국 26개 향교·서원을 선정

❍ 자체 프로그램 및 ①신사임당 태교(출산부모), ②선비야 놀자(청소년), ③청년 만인소(청년), ④사랑채 이야기(장년), ⑤21세기 풍류를 만나다(노년) 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 서원 르네상스 프로젝트(문화재청·한국문화기술연구원)

❍ 문화재청과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21세기에 선비문화의 요람인 서원을 부흥시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지역거점화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서원맵과 앱 개발,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

❍ 초기에는 광주 월봉서원, 파주 자운서원 등 10여개 서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영정과 자료를 담은 영상제작, 서원간을 연결하는 '서원길' 구축, 선비정신을 체험하는 '서원 스테이', 차와 문방사우 등의 브랜드화를 통한 특산품 개발사업 등을 추진(한국문화기술연구원 홈페이지)

□ 향교·서원 등 역사문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행정자치부)

❍ 추진배경

– 향교와 서원은 향촌을 교화하고 향촌에 바탕을 둔 공동체적 삶의 모델을 제시한 문화 계승 발전의 인문 환경이었으며, 그 속에서 성장하고 인간존중과 사람다움의 도리를 터득한 전통적 교육기관임

– 또한, 향교·서원의 인본주의적 전통은 지나친 물질문명 추구로 인해 정신적 빈곤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사람존중의 마음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해 현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희망의 공간 조성을 가능케 함

❍ 추진계획

– 향교·서원을 누구나 쉽게 찾는 친근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장으로 전환

– 공동체 문화로 대변되는 유학정신을 계승, 보급하기 위한 유학자 관련 문화재 탐방

– 청소년들이 상부상조 역사와 전통문화 본질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여건 조성

–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른 공동체의식이 결여됨에 따라 전통 혼례를 통한 가치 계승 및 혼례 전 전통예절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선비들의 일상을 체험하고, 놀이, 강좌 등이 결합된 체험 프로그램 지원
- 주민참여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육성

❍ 시범사업 추진

- 2015년부터 3개 마을을 공모 선정하여 향교·서원 및 전통마을 등에 인문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교육장 및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역사문화 공동체 조성사업을 시행

□ 자유학기제 연계 향교·서원·고택 활성화사업(교육부)

❍ 교육부는 '15년 전체 중학교의 72%(2,301여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16년 전면 시행에 앞서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소질·적성 개발의 기제로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향교·서원 등 지역고유문화시설 활용하는 자유학기제 확산을 추진할 계획임

※ 자유학기제 :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 자유학기 운영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성함양 및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인성·예절 교육 및 선비문화교육 실시

- 지역 향교·서원·고택 등을 학생 체험처로 발굴·제공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예술교육, 인문·철학 특강 등 실시 지원
- 기존 인성·인문교육 등 교육 관련 사업을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중심으로 지원

〈자유학기제 연계 향교·서원 활용 현황〉

- ■ 필암서원(전남 장성군): 하서유적지 탐방, 한글백일장 개최, 강사 지원
- ■ 충주향교(충북 충주시):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교육 지원
- ■ 산청향교(경남 산청군): 인성·예술교육, 선비문화교실 지원
- ■ 오리서원(경기도 광명시): 인성·인문·예술교육 및 전통음악강사 지원

2. 자치단체의 시책 및 사업

□ 광역자치단체(경상북도)

❍ 유교문화유산의 활용사업이 가장 활발한 자치단체는 유교문화의 중심지인 경북을 꼽을 수 있으며 향교 40개소, 서원 305개소(세계유산 등재 추진중인 9개 서원 중 4개 소재), 문화재지정 고택 296개소(전국 고택의 40%)를 보유

❍ 경북에서는 정부의 향교서원고택문화재 활용사업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국정신문화 세계화 프로젝트 사업,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 등을 활발하게 추진

- – 세계유산 활용 : 경주 양동마을을 대상으로 전시행사(종가유물전, 중가문화 사진전, 종가휘장전 등), 체험행사(선비의 길, 옛향의 길, 종가맛길 등), 문화공연 등 추진
- – 생생문화재 사업 : 경주, 안동, 구미, 경산, 칠곡 등 5개 지자체에서 7개 사업 추진
- –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 경주,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영양 등 8개 자치단체에서 9개 사업 추진
- – 인문가치포럼 개최 : 2014년 7월 3일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문광부, 경북, 안동이 후원하여 제1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개최

<그림 3-4> 제1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 행사



자료 : 유경상(2014), 경북인뉴스; 권기웅(2014), 경북매일

– 홍보용 책자 발행 : 2014년 대구와 경북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유교문화 홍보책자인 '유교문화 따라 떠나는 향교·서원 여행'을 발간

<그림 3-5> 유교문화 따라 떠나는 향교·서원 여행



자료 : 우원태(2014), 영남일보

☐ 기초자치단체

❍ 안동시

– 유교랜드 개관 : 안동시는 유교의 본향으로서 안동문화단지의 핵심시설이자 한국정신문화의 뿌리인 유교문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형 체험시설인 유교랜드를 개관

<그림 3-6> 유교랜드(위: 내·외부 모습, 아래 : 체험활동)



자료 : http://blog.naver.com/ykk209/220121751748

– 퇴계연가 뮤지컬 창작 : 안동국악단이 2009년 이황의 인간평등 사상과 사랑을 담아내어 '450년 사랑'이란 제목으로 시작한 고택실경뮤지컬을 재개발하여 2015년 '퇴계연가'라는 제목의 가무극을 공연

<그림 3-7> 퇴계연가 공연모습



자료 : 김정섭(2014), 아시아투데이; 엄재진(2014), 매일신문

❍ 영주시

– 영주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힐링을 테마로 하는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한

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힐링투어사업, 푸드테라피 활성화 사업, 힐링 마케팅 사업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힐링투어사업의 선비문화투어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충·효·예를 전수하는 루트로 개발
- 선비촌 일대에 매년 '영주선비문화 축제'를 개최

❍ 청주시
- 청주시는 13억 5천만원을 들여 향교부지에 연면적 835㎡(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14개 숙박시설(150명 수용)을 갖춘 향교연수원을 건립·운영
- 청주향교에서는 한문교실, 서예교실, 백일장, 선비학당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향교가 어린이집을 운영

❍ 전주시
-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선비정신과 도시 정체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8년 '한옥마을 스토리 개발', 2011년 '전주한옥마을 선비의 길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 등을 추진
- 2012년 2월에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과 '인문학 도시 전주' 협약식을 체결하고 자치단체 전국 최초로 인문학 도시를 선포했으며,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전주향교, 완판본 문화관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선비정신을 인문학과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

제3절 향교·서원의 현대적 활용 사례

1. 우수사례의 선정

❍ 2014년 각 자치단체에서 문화재청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한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 38선 중 활용실적이 탁월하고 향후 명품 문화상품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우수사례로 선정된 5선의 향교서원 문화재(문화재청 보도자료, 2015.1.15.)

- 월봉서원(광주 광산), 심곡서원(경기 용인), 옥산·서악서원(경북 경주), 원주향교(강원 원주), 돈암서원(충남 논산)

❍ 우수사업은 콘텐츠(진정성, 참신성, 차별성, 매력성), 운영(완성도, 친절도, 안전도, 효율성), 성과(파급성, 지속성, 호응도, 노력도, 참여도) 등 3대 지표 13개 세부항목 기준에 따라 평가 전문기관이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현장 모니터링과 참관객 설문, 전문가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2. 향교·서원 활용사례

□ 강원 원주시 원주향교 :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몸으로 느끼다

❍ 개요

- 원주향교가 언제 지어졌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대략 고려시대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하며, 1402년(태종 2) 원주목사 신호(申浩)가 재건하였으며 대성전과 명륜당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6.25 전쟁 이후 건립
- 건물은 대성전, 명륜당, 동무, 서무, 동재, 서재, 외삼문, 수복실 등으로 구성
- 원주향교는 공자를 비롯하여 4성과 송조 2현, 한국의 18현을 봉안
- 원주향교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으며,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98호로 지정('85.1.17)

<그림 3-8> 원주향교




자료 : 박봉원·유영심(2014), 49쪽 발췌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 정	내 용
한문서당교실	3월~12월 매주 월·목요일 10시~12시	유교경전의 이해와 제향활동 체험
서예생활교실	3월~12월 매주 화·수요일 10시~12시	한글, 한자 서예 익히기
전통예절교실	<기초반> 5월 12일~6월 30일/매주 월요일 10시~12시 <전문반(강사육성)> 6월~10월/둘째·넷째 주 금요일 14시~16시 <젊은 어르신 반갑습니다> 6월 10일~7월 29일/매주 화요일 10시~12시 <어머니 교실> 9월 16일~10월 28일/매주 화요일 10시~12시 <어린이 생활예절 수련회> 8월 4일~8일/10시~12시 <청소년 생활예절 수련회> 8월 11일~14일/10시 ~12시	연령별/수준별 전통생활예절 프로그램, 단오절/혼인례/성년례/향음주례 등 시연·체험
전통문화 체험교실	4월 29일~6월 3일 매주 화요일 10시 30분~12시	어린이집 대상 향교 이야기 듣기(향교 해설사), 향교 건물 색칠하기, 떡살 찍기, 다식 만들기, 고서 엮기, 단오부채에 그림 그리기 등

❍ 평가

- 예절교육은 현대사회에서 향교의 역할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예절교육을 통해 지역의 어른들이 지역의 아이들을 가르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 전통문화체험교실은 향교 건물 색칠하기, 떡살 찍기, 단오부채에 그림 그리기 등 참여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적절하게 배치
- 유복 차림의 교육 진행으로 참여자들에게 색다른 체험과 진정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체계가 안정적으로 수립되어 전통문화에 대한 깊이와 완성도 있는 강의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 경북 경주시 옥산·서악서원 : '서원, 그곳에 가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 / 음풍농월(吟風弄月), 유유자적(悠悠自適) 선비체험

❍ 개요

- 경주의 경우 2014년부터 2곳의 사액서원(옥산서원, 서악서원)에서 선비트래킹, 예절교육, 명사와의 대화, 선비교육·풍류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 옥산서원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의 덕행과 학문을 기리고 배향하는 사액서원으로 임진왜란과 서원 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서원
- 서악서원은 김유신 장군과 신라 학자인 최치원, 설총을 추모하기 위해 조선 명종 때 이정(1512～1571)이 지방 유림과 뜻을 같이하여 1563년에 세운 서원이며 인조 원년(1623)에 사액서원으로 '서악'이라는 이름을 하사
- 옥산서원은 사적 제154호, 서악서원은 경상북도 기념물 제19호로 각각 지정

<그림 3-9> 옥산·서악서원



〈옥산서원〉



〈서악서원〉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 정	내 용
서원활용 체험 프로그램	<당일> 5월~11월/매주 토(상시 진행) 15시~21시 <숙박형(1박 2일)> 6월~9월/셋째 주 토·일 15시~익일 12시 <주중> 1회/19시~21시 (단, 주중 20명 이상 서원체험 신청 시 일정 협의)	사자성어 골든벨, 서원 배향인물 관련 OX퀴즈 한마당, 서원 음악회(풍류 국악체험), 서원 올림픽 한마당(죽궁 체험, 새총 쏘기, 윷놀이, 투호, 떡 메치기), 절기별 특성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 진행
음풍농월 (吟風弄月)		서원 배향인물 소개, 명사특강, 붓글씨 쓰기(먹 갈아보기), 가훈 만들기, 배향인물 관련 유적지 사진 전시, 배향인물 어록 탁본
유유자적 (悠悠自適)		선비길 힐링 트레킹: 조선 유생, 신라를 만나다, 서악서원 인근 선도산 일원 걷기(태종 무열왕릉→진흥왕릉→서악리 삼층석탑→도봉서당)
청빈낙도 (淸貧樂道)		과거길 주먹밥과 茶 한잔(다도예절), 선비들의 검소한 생활체험, 서원 스테이
선비길 힐링 트레킹 종가체험		선비길 힐링 트레킹(옥산서원~독락당) 독락당 종가체험 및 명사특강

❍ 평가

– 서원활용 체험 프로그램은 서원 배향인물 퀴즈, 서원 음악회, 선비길 트레킹 등 다양한 콘텐츠로 프로그램이 집중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참여자들의 흥미를 제고

- 수행단체가 보유한 지난 20여 년간 활용기법과 프로그램의 집적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며, 다년간의 노하우가 반영되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우천 시 대체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임
- 특히 1박 2일간의 서원 스테이 프로그램은 외국 관광객에게 매력 있는 콘텐츠이며 외국인들을 위한 통역가가 함께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들의 참여가 높았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봉서원 : 월봉서원이 건네는 "선비의 하루"

❍ 개요

- 1578년(선조 11)에 호남유림의 공의로 기대승(奇大升)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망천사(望川祠)를 창건하면서 시작하여 1646년(인조 24)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고, 1654년(효종 5)에 '월봉(月峯)'이라고 사액
- 월봉서원은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로 문을 닫았으나 1941년 현재의 위치에 주강당인 빙월당을 짓고 1978년 사당과 장판각[5], 내삼문, 외삼문을 건립하여 1991년 현재의 모습을 갖춤
- 기대승의 학덕을 기리는 춘·추향사제를 매년 3월과 9월의 초정일에 사당인 숭덕사에서 행하고 있으며, 향교·서원체험프로그램, 유교문화활성화사업, 생생문화재활용사업 등 다양한 월봉서원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 월봉서원은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장판각에는 『고봉집(高峯集)』 목판 474판이 보관

5) 장판각(藏板閣)은 책을 만들 수 있는 목판 등을 보관해둔 곳으로 오늘날 출판소와 도서관의 기능을 가진 장소이며 고봉 기대승의 474개 목판(고봉집, 논사록 등)이 보관되어 있다.

<그림 3-10> 월봉서원



〈월봉서원 전경〉



〈빙월당〉



〈숭덕사〉



〈장판각〉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 정	내 용
살롱 드 월봉	3월~12월 마지막 주 금요일 18시~22시	18세기 프랑스 살롱문화와 조선 시대 계산풍류 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다담, 공연, 강연이 어우러진 고품격 인문 문화살롱
꼬마 철학자 상상학교	개인 : 5.10. 22/9.13./11.1. 단체 : 4.10./6.12./10.8, 22.	놀이와 예술을 통해 고봉 선생의 사단칠정(四端七情) 체험
철학자의 부엌	4.5./5.13./9.26./11.1. 14시~17시	사상과 문학에서 발견되는 철학자들의 레시피로 만나는 고봉 선생(동양철학)과 베이컨(서양철학)의 철학
2030 청년 선비문화원정대	3.29./4.19./5.24./6.7. 9시~18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봉 선생 관련 유적지를 답사하여 고봉 선생의 사상과 학문이 태동한 환경 이해
선비의 하루	3월~11월 매월 2회 숙박형(1박 2일) / 당일형	등교(登校)-예(藝)-사(思)-강(康)-휴(休)-예(禮)-하원(下院)의 일정에 따라 철학자의 길, 선비체조, 자경족자 만들기 등 선비의 하루를 체험
청소년 이기(理氣) 진로교실	3월~12월 넷째 주 토요일 14시~17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나와 내 삶을 중심에 두고 가치관을 정립해 보며 진로를 이해함
월봉서원 마을 인문학당	4월~6월 매주 화요일 14시~16시	마을의 역사와 고봉 선생의 주변 인물에 대한 인문학 강좌, 체험, 관련 유적 답사

❍ 평가결과

- 기존의 유교적 콘텐츠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였으며 인문학, 체험, 공연, 답사 등의 세련된 기획이 돋보임
- 조선 시대 계산풍류 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다담, 공연, 강연이 어우러진 인문 프로그램 '살롱 드 월봉'을 통해 서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였으며, 매 회차 마다 참가신청이 많았고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 7개 각각의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향교·서원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오래되고 지루한 느낌이 드는 공간이 아닌, 멋스럽고 예스러운 동시에 고급스럽고 긍정적인 공간으로의 활용이 돋보임
- 지자체의 관심이 높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으며, 대표적인 향교·서원 문화재의 활용 사례

□ 경기 용인시 심곡서원 : 심곡서원에서 문화유산의 향기를 느끼다

❍ 개요

- 1650년(효종 1) 학자이자 정치가인 정암 조광조(趙光祖)의 학덕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지방유림의 공론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설립과 동시에 '심곡'이라고 사액되었으며, 양팽손(梁彭孫)을 추가 배향
-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당시 훼철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의 하나로서 선현 제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했으며, 해마다 2월과 8월 중정일(中丁日)에 향사를 지냄
- 1972년 5월 4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

<그림 3-11> 심곡서원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 정	내 용
심곡서원 창의학교 ‘심곡서원 놀토 체험장-주초위왕’	3월~12월(총 10회) 셋째 주 토요일 13시~17시 30분	동영상 시청, 사모 만들기, 주초위왕 부채 만들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내가 중종이라면? 내가 조광조라면?)
심곡 주말캠프 ‘심곡서원에서의 하룻밤’	4월~5월, 9월~10월(총 4회) 첫째 주 토요일 14시~익일 12시	동영상 시청, 사모 만들기, 주초위왕 부채 만들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문화유산강좌, 서원 만들기 체험
용인 문화유산 도슨트과정 ‘심곡서원 아카데미’	2월 셋째 주 토요일 ~ 12월 첫째 주 토요일 (총 20회) / 10시~12시	심곡서원 교육관을 활용한 문화유산 도슨트 양성 과정(수료생에게는 심곡서원과 A&A문화유산연구소 등에서 진행하는 문화유산 행사에 참여 기회 제공)
심곡서원의 가치와 활용방안 ‘브레인스토밍 학술대회’	11월 29일 13시~18시	문헌 속 심곡서원과 심곡서원의 건축, 중종·조광조,·양팽손에 대한 재평가, 심곡서원의 활용 등에 대한 발표 및 브레인스토밍 토론

❍ 평가

- 체험과 놀이를 통해 심곡서원의 역사와 조광조, 양팽손 이야기를 교육 컨텐츠화하였으며 ‘심곡서원 문화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심곡서원과 조광조 선생을 교육 자료로 활용함
- 사모 만들기, 주초위왕 부채 만들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교육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고려한 눈높이 교육을 진행함

- 심곡서원 아카데미는 무료 강의임에도 짜임새 있는 구성과 한국사를 건축문화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도가 좋았으며, 건축 부재 모형을 이용하여 전통 건축을 축조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등 보다 생생하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음
- 수행단체 측 직원 간의 역할 분배가 조화롭게 이루었으며 교육 진행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문화재 접근이 이루어졌음

☐ 충청남도 논산시 돈암서원 : 禮 힐링캠프!

❍ 개요

- 1634년(인조 12)에 김장생(金長生)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으며, 1658년(효종 9)에 김집(金集)과 1688년(숙종 14)에 송준길(宋浚吉), 1695년에 송시열(宋時烈)을 각각 추가 배향
- 1660년(현종 1)에 '돈암(遯巖)'이라는 이름으로 사액을 받았으며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 중의 하나
- 경내의 건물로는 사우(祠宇)·양성당·응도당(凝道堂)·장판각(藏板閣)·정회당(靜會堂)·산앙루(山仰樓)·내삼문(內三門)·외삼문(外三門) 등과 하마비(下馬碑)·송덕비(頌德碑)가 있으며, 사적 제383호로 지정

<그림 3-12> 돈암서원



〈돈암서원〉



〈양성당〉



〈산앙루〉



〈숭례사〉

자료 : 돈암서원 홈페이지(http://www.donamseowon.com)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 정	내 용
돈암서원, 풍류가 있는 아카데미	5월 28일 18시 30분	<정도전과 조선의 건국> 정도전이 꿈꾸었던 조선(강사: 김갑동)
	6월 14일 18시 30분	<창조적 상상력과 문화의 힘> 서편제 제작과 문화부 장관으로서의 경험을 말함(강사: 김명곤)
	7월 16일 18시 30분	<과거를 잊은 나라는 미래도 없다> 고종황제 손자를 통해 조선의 멸망과 항일정신을 배움(강사: 이석)
	9월 20일 18시 30분	<명심보감> 알기 쉬운 명심보감 풀이(강사: 김병조)
	10월 8일 18시 30분	<기호유학> 기호유학의 거장에게 들어보는 기호유학 강좌(강사: 김문주)

프로그램명	일 정	내 용
찾아가는 禮, yes~!	3월 7일~12월(총 34회) 매주 금요일 8시 40분~12~40분	충남 인터넷 고등학교 2학년 4개반을 대상으로 한국전례연구원에서 방문하여 인성예절교육을 강의하고, 34회가 끝난 후 시험을 통해 인성예절교육사 자격증 수여
돈암서원 '禮' 스테이	7월 25일~8월 15일(총 4회) 매주 금요일 9시~17시	예절강습 및 전통놀이 체험, 북아트 만들기
전통아, 예절아, 안녕~!	3월 3일~12월 19일(총 39회)	논산 계룡지역 39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특별 제작한 책을 전달하고 예절교육 실시

❍ 평가

- '돈암서원, 풍류가 있는 아카데미'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하는 역사와 인문학 강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2부에는 음악회를 구성하여 대중적으로 풀어내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제고
- 매회 약 300~350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지역 인프라, 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강화에 노력
- 응도당의 넓은 마루를 무대로 하고, 마당을 객석으로 공연을 펼쳐 서원의 한옥 경관을 잘 활용하였으며 문화재의 멋스러움을 살린 공간구성이 돋보였음
- 찾아가는 인성예절교육은 매주 충남 인터넷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청소년과 가까워질 수 있는 서원 이미지를 구축

제4절 향교·서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육성방안

1. 향교·서원 활용의 기본방향

□ 역사문화유산인 향교·서원의 보존과 활용 조화

❍ 향교·서원은 유휴공간 중에서 역사문화유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미래세대에 유산의 가치를 창조적으로 계승
-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유산을 단지 과거의 유물로만 보존하기 보다는 새로운 문화창조의 밑거름이 되어 미래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 보존과 개발의 가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정립할 필요
- 역사문화유산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국민적 자산이고 역사의 징표이며, 미래의 문화 번영의 기반이기 때문에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
-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의 권리는 현 시대와 다음 세대의 권리이고 한번 파괴되거나 멸실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존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함

❍ 1972년 유네스코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내적 보호에 관한 권고'에서 '보존하면서 개발한다'는 원칙을 천명
- 보존하면서 개발한다는 원칙은 개발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의 한계 원칙으로서 지속가능성을 전제하는 개발을 지향해야 함을 의미
- 근대 혹은 당대의 사람들이 만들어 사용하다 원래의 용도와 기능이 사라져 방치되고 있는 낡은 유휴공간을 고쳐 나가면서 새로운 삶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성에 부합(김성진, 2013 : 113-114)

□ 역사문화유산의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 활용방안 모색

❍ 문화유산 활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 지속가능성의 유지, 문화 다양성의 보호 등 활용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전승 가능한 유산되도록 배려해야 함

❍ 역사문화유산은 모든 시민의 자산이므로 정부 주도의 획일적 활용 보다는 시민·사회공동체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 근대유산의 상품가치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서 '옛스러움과 뉴미디어의 만남'을 통해 현대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

- 근대유산은 과거의 것을 박제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문화유산이 현재와 미래의 적용 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가치의 진정성을 유지하면서 재창조될 수 있도록 활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으로서 새로운 직종·직업을 창출해야 하고, 활용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이 필요

□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참여의 확대

❍ 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은 주민의 요구(needs)에 근거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역사 유산으로서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임.

❍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기준은 경제성 보다는 시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와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문화유산 활용이 지역공동체의 통합에 저해되지 않고 자긍심과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향유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 정부의 예산과 인력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의 참

여와 협조 없이는 역사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이 성공을 거두기 어려움.
- 문화유산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도 민주적 절차가 준수되고 시민, 사회단체와 국가를 비롯한 모든 영역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음

2. 향교·서원 활용 프로그램 개발

1) 교육·학습 공간 활용

(1) 개요

❍ 향교·서원이 갖추고 있는 명륜당, 강당, 서재 등 건축공간과 실내공간을 활용하여 강학(講學)과 장수(藏修)를 혼용하여 연령대별로 특화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 향교와 서원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으로서 활용 역시 교육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기능을 모색할 필요
- 향교·서원의 문화재적 가치로 인해 공간과 시설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활용을 전향적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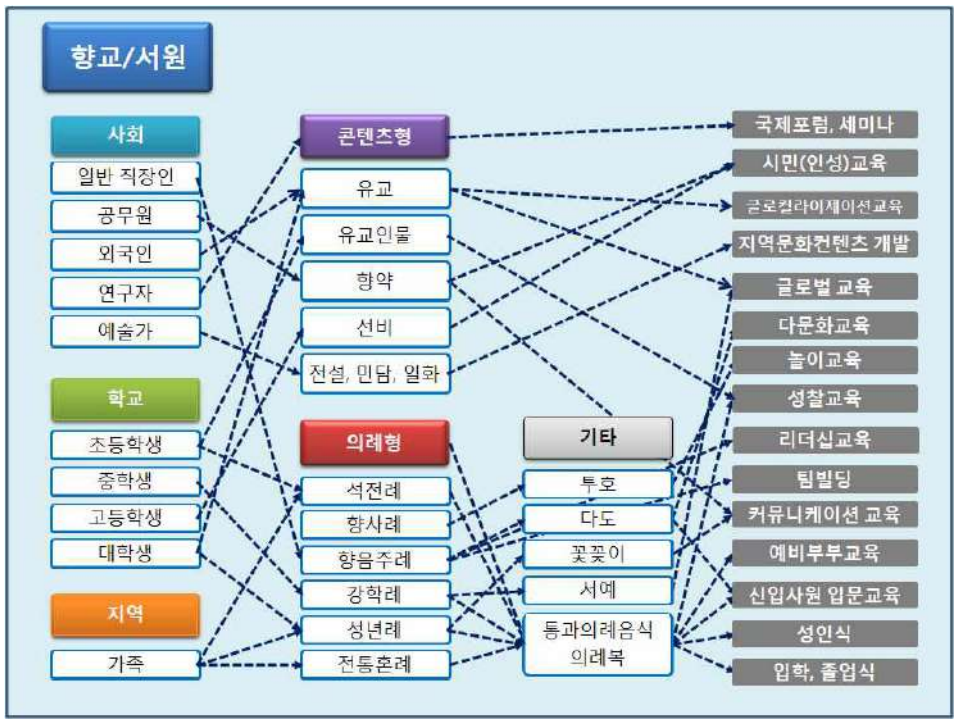
❍ 향교·서원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형성·축적된 가치로서 그 속에는 조선시대의 사상과 문화가 응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조선인의 삶과 그 숨결이 스며있어 그 자체가 현대에 활용가능한 지식·교육 자원임

❍ 사회, 학교, 지역 등 대중의 수요와 욕구 및 교육자원의 특성에 맞춘 교육모듈을 개발하여 전문적 강사를 통한 현대적 교육을 실시
- 수업 성취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입소자 전원에게 모두 한복 또는 유복을 착용하고 수업과 생활에 임하도록 함
- 영유아, 청소년, 청장년층,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황태희·최희수, 2014)
- 향교·서원이 위치한 지역의 연령대가 높고 운영 주체인 유림도 고연령

층이 많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층 대상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예 : 건강 프로그램, 한글교실, 노인마을회관 등)

- 교육내용도 천자문, 사자소학, 전통예절 등 고답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사상 및 의례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김양식 외 2009)

<그림 3-13> 유교 핵심 가치 키워드 기반 교육모듈화 전략



자료 : 김정이(2013), 21쪽

(2) 활용예시

□ 인성·리더십 교육

❍ 인성교육은 위로부터 강제된 윤리도덕 교육에서 벗어나, 유교의 본성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이 필요
  –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유교의 본원적이고 철학적인 문제, 즉, 태극과 음양오행, 仁義禮智, 性理, 克己復禮, 居敬窮理등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접근방법도 주입식에서 정의적·감성적·정서적 방법을 동원

❍ 유교에 대한 부정적 담론을 해체하고 현재적인 가치와 문화요소를 담아내어, 실용성과 재미 및 교육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활용
  – 유교문화자산의 내적 가치를 재발견해야만 하며, 향교나 서원, 사당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만으로는 현대인과 소통될 수 없기 때문에 유교 건축물 속에 담겨진 보편적 철학, 현대인도 공감할 수 있는 유교사상의 재해석, 현대적으로 응용한 유교의례, 일화, 전설 등을 찾아내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
  – 예를 들어 최근 대중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마음공부나 명상법은 인성 교육에 매우 바람직한 방법
  – 특히 유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선비정신, 즉 일상적 자기 수행을 통해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을 일치시키고자 했던 태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선비교실, 충효교육 등을 개설

❍ 인성교육은 리더십 향상을 위한 신입사원교육, 커뮤니케이션 교육, 팀빌딩과 같은 기업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가능
  – 규범적·일상적 의례를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전승하고 집단적 일체감을 형성하고자 했던 의례의 속성과 의미를 인력양성, 조직구성의 관점과 접목(김정이, 2013)

□ 예절교육

❍ 지금까지 조선시대 규범화된 전통예절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대사회

에서 수용할 수 있고 대중적인 지지도 받을 수 있도록 컨텐츠를 개편
- 유교의 삼강오륜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예절문화를 새롭게 수립할 필요
- 예컨대, '夫婦有別'은 오늘날의 양성평등 개념으로 재해석되어야 하고, '父子有親'은 수평적 가족관계 관점에서 탈권위적인 가정규범으로 적용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식,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혼례예절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설

□ 경전(한자·한문) 교육

❍ 경전교육은 동양고전과 한자·한문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
- 동양고전과 역사 등 인문학은 한자·한문이 중심이 되어 있는 내용이며 최근 들어 동양 고전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한 책들이 출간되면서 한자·한문에 대한 관심도 매년 증가
- 이러한 대중적 관심과 지적 욕구를 수용하여 지역유림이 직접 학생들에게 한자·한문을 교육
- 사자소학 등에 대한 강독 수준의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동양 고전, 역사서 등의 독해 강좌를 개설
- 최근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한자능력검정시험에 대비한 전문한자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 한자·한문 교육과 연계하여 동양고전, 동양 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관한 강좌를 개설

❍ 무엇보다도 현대적인 유교교육을 위한 텍스트와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담당 전문가 양성이 시급
- 기존의 서당식 고전 및 한자·한문 교육은 대중적인 교육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 고전과 한자·한문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재 발굴과 교수-학습방법 개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한자의 흥미유발을 위해 재미있는 고사를 준비하며, 한자의 연원(淵源)을 흥미롭게 구성하여 교재를 제작

2) 체험공간 활용

(1) 개요

❍ 유교문화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유교문화자산을 선비의례와 문화 체험자원으로 활용
– 유교문화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담론과 기호는 '선비'이며 조선시대 선비들이 행한 유교 의례와 문화를 체험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향교나 서원·서당·사당 등과 같은 유교건축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 그러나 유교문화자원이 체험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현대성과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유교에 대한 부정적 담론을 해체하고 현재적인 가치와 문화요소를 담아내어, 실용성과 재미 및 교육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활용
– 유교문화자산 속에 담겨진 보편적 철학, 유교사상, 유교의례, 일화, 전설 등에 현대적 스토리텔링을 가미

(2) 활용예시

□ 전통의례(제향) 체험

❍ 과거 향교·서원에서 행해진 의례 중 제향의례는 삶의 근본(신·문묘·조상)과 인간의 만남을 규정한 것으로 인간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임

❍ 오늘날에는 의례의 목적과 내용이 생략되고 형식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 향교와 서원에서 행해졌던 의례가 추구한 정신적 가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예컨대 석전제의 경우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형식을 따르는 것 외에 의례의 본질적 목적과 역할에 대한 공감의 과정이 없으며, 향음례 역시 지역 전통주 축제와 연결시켜 시연의 일종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

❍ 향교·서원은 공자 등 유학의 공식적인 성인 뿐 아니라 해당 지역 출신의 대학자와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을 배향했는데, 이러한 성현 숭배 정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존경할만한 롤(role) 모델에 대한 지속적 상기'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구성(김정이, 2013)

□ 전통예절(일상 의례) 체험

❍ 일상적 의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것을 형식을 통해 전승하는 공동체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의 질서, 규범의 행위로서 사상견례(士相見禮), 향음주례(鄕飮酒禮), 향사례(鄕射禮) 투호의례(投壺儀禮), 강학례(講學禮) 등이 사례임(김양식, 2009 : 55)

- 사상견례 : 향교와 서원은 물론 자자체나 학교 단위로 시행
- 향음주례 : 지역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향교에서 거행하며, 이를 통해 지역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공론의 장으로 활용
- 향사례 : 지역 국궁단체 주관으로 체험행사 개최

❍ 과거 선비는 향교·서원에서 서로에 대한 친목을 다지고 학문을 교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성과 품격을 제고했던 경함을 현대에 재현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 과거 유학자들의 일상을 체험케 함으로써 선비들의 자기성찰과 학문적 수양을 배우는 기회 제공
- 체험 프로그램은 지자체 또는 문중이 직접 운영하고, 각 지역별, 문중별로 차별성을 갖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향교·서원의 학풍, 사상을 지역의 역사와 함께 교육할 수 있음
- 예시 : 선비일상체험, 꼬마선비교실, 서원음악회 등

□ 유교문화 숙박 체험

❍ 불교의 '템플스테이'와 같이 선비들의 수양 과정을 체험하는 장수형 또는 숙박형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 현재 일부 서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원스테이 사업을 향교를 대상으로 확대

〈서원스테이〉
사업목적 : 전통문화 체험, 서원기능 화복, 서원의 대중화, 인성 함양 등
사업개요
– 기간 : 연중 실시
– 주최 : 사단법인 한국서원연합회
– 주관 : 덕천, 필암, 돈암, 소수, 병암, 설봉 등 6개 서원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 대상 : 초·중·고교생, 대학(원)생, 일반인 외국인
프로그램 : 전통예절, 다도체험, 심신수양, 경전읽기, 문화 체험

❍ 수련원을 갖추고 있는 향교·서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거나 종가 고택이나 양반마을 등과 연계하여 마을 단위로 추진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부족한 숙박 체험시설을 보완

□ 전통 문화·놀이 체험

❍ 쉽고 편안하게 전통문화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 전통문화체험 예시 : 다도체험, 전통무예, 전통음악, 전통도예 등
– 전통놀이체험 예시 : 굴렁쇠, 윷놀이, 그네타기, 널뛰기, 투호, 비석치기, 제기차기, 씨름, 고무줄놀이, 팥 주머니 던지기, 실뜨기 등

❍ 전통놀이 체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체험과 교육을 병행

□ 기타 체험활동

❍ 아호·택호 짓기(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 아동, 청소년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아호·택호(아이 이름과 집 이름) 짓기를 이벤트로 추진
- 성인에게는 옛 가옥과 정자 등의 건축이름을 지었던 전통문화의 정신을 살려서 의미있는 택호를 작성(예 : **齋, **堂, **軒 등)

❍ 가훈 쓰기
- 가족 참여 프로그램에서 가족이 함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논의하여 가훈을 제작함으로써 가족공동체 의식 함양
- 한글식 표현을 한문식으로 변경해주거나 옛 고전에서 유사한 내용을 전달

❍ 현판 탁본뜨기
- 서원 또는 향교에 소재한 건물의 현판을 탁본하거나 또는 붓글씨로 쓰는 체험
- 향교·서원의 현판은 대개 유교적 가치 기준을 적용하여 삶의 의미, 인생의 목표 등을 담은 내용이므로 탁본, 붓글씨 등을 통해 유교의 의미를 전달
- 모형틀을 갖추어 제작이 가능하며 참여자의 기념품으로 활용

❍ 향교·서원 다큐멘터리(일기)
- 아동이나 학생들에게 향교·서원에 얽힌 유명한 일화 등을 그림일기 형식으로 작성케 함으로써 당시 인물들의 삶을 이해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병행
- 성인을 대상으로 적용할 때에는 그림일기 대신 문장식 일기를 작성

❍ 현대 과거시험 재현
- 현재 재현되는 과거시험은 시(詩), 문장(文章) 등 글짓기 수준에서 머물고 있지만 시사성 있는 사회적 문제를 제시하여 해결책 제시, 토론

등의 형식으로 운영하여 과거시험의 의미와 현대적 사회참여 공간으로 활용

3) 수양·휴식 공간 활용

(1) 개요

❍ 현대인의 질병인 정신질환이나 스트레스 등의 해소를 위한 수양·휴식 프로그램을 운영
- 일본의 경우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제공해 주는 릴렉세이션(Relaxation) 시장이 10조엔 규모로 성장하고 힐링(Healing)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는 트랜드를 수용
- 편안하게 휴식하며 정좌와 활인심방 등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유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 삶을 반추해보는 계기를 제공

❍ 성리학은 마음의 학문이라 할 정도로 마음 공부와 수양방법으로써 경(敬)과 성(誠)을 매우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수양론은 오늘날의 마음 수련, 명상 등과 직결
- 향교나 서원, 서당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축제에 현대적인 마음공부와 수양방법을 선비들의 수양론과 접맥하는 것은 성리학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중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
- 사례 : 안동 도산서원 거경대학(居敬大學)은 2006년부터 정신문화 교육의 차원에서 인간 본성 개발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몸공부, 마음 공부, 글 공부를 통하여 '나'를 발견하고 삶의 진미를 맛보는 수양프로그램 실시

(2) 활용 예시

❍ 수양과 휴식을 개념상 구분할 수 있으나 혼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전통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수양 프로그램 운영 가능

❍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초점을 두기보다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스스로를 발견하는 환경과 계기를 만들어주도록 해야 함
- 다만 방종하지 않도록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며, 선현의 지혜가 담긴 명상록과 교훈적인 이야기를 교재로 제작

❍ 예시 : 정좌법, 활인심방, 선비독서법, 노인 여가건강 프로그램 등

3. 향교·서원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1) 마을 만들기의 접근

(1) 추진단계별 접근

❍ 향교·서원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와 역사공동체 육성의 과정은 크게 장소 만들기 →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연계 →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의 단계로 추진

❍ 장소 만들기 단계는 향교·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이 역사공동체로서 장소성과 정체성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 향교·서원의 역사문화유산에 내재된 가능성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장소의 정체성을 찾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장소 만들기(place making)의 과정으로 이해
- 장소성(sence of place)이란 인간, 환경, 문화 등의 맥락에 의해 규정지어지는 공간으로서 체험을 통하여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는 특정 장소가 지니는 성질(최강림, 2006: 17)
- 한 장소의 고유하면서도 다른 장소와는 차별되는 특성으로 장소 만들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
- 커뮤니티 관점에서 현재의 '유휴' 상태인 향교·서원의 역사적 가치를 재해석하고 현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 시설보완, 경관조성 등의 과정에 장소성을 배려(김연진, 2009 : 202-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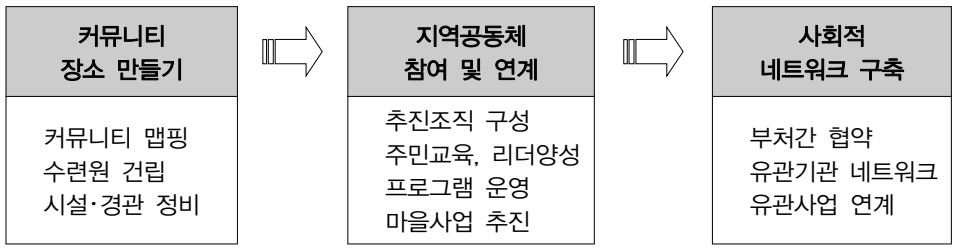
❍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연계 단계에서는 향교·서원이란 역사문화유산을 구심점으로 지역공동체의 주도와 참여에 의하여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과정

- 향교·서원의 활용에서 지역공동체는 주체인 동시에 대상으로서 공간 활용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활동하는 수요자이자 공급자의 역할(김연진, 2009 : 203)
- 따라서 지역공동체는 향교·서원 활용의 필요조건이며, 지역공동체와 유리되는 순간 유휴공간으로 전락
-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이 확보되어야하며 특히 심리적 접근성은 지역공동체 내의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
- 지역공동체가 주체로서 향교·서원의 활용을 기획하고 참여하며 나아가 마을의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역사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음

❍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 단계에서 향교·서원의 활용이 마을 만들기는 물론 도시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관이 있는 다양한 주체, 시설, 사업들과 네크워크로 연결이 되어야 시너지를 발휘

-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프로그램과 제도적 환경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 즉 개별적 활동의 주체이며 사람 사이의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역사문화유산은 사적 소유물이 아닌 공동체 공유재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크며 문화재청을 비롯한 정부와 자치단체, 시민사회 및 지역공동체, 전문교육기관, 공공지원기관·단체 등이 연계되는 거버넌스 차원의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

<그림 3-14> 마을 만들기의 추진단계



(2) 추진요소별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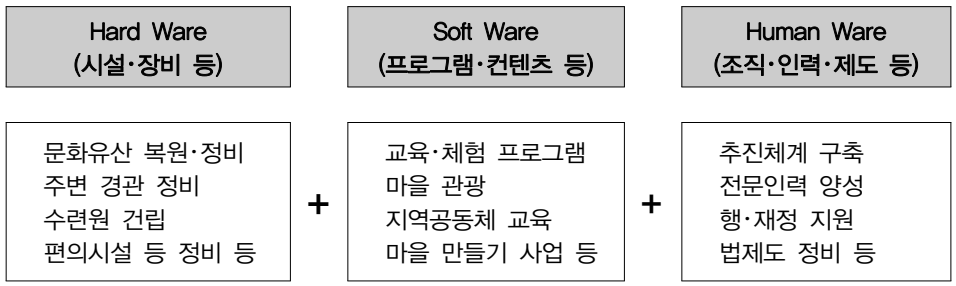
❍ 향교·서원 활용의 기본요소는 크게 기존의 ① 시설투자 및 지원(Hard ware), ② 프로그램 지원(Soft ware), ③ 인적·제도적 지원(Human ware)으로 구분(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 하드웨어 측면에서 향교·서원은 오래된 역사적 유산이기 때문에 현대적 활용을 위해서는 주변 건물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야 하고, 현 시설에서 부족한 화장실, 교육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가 인프라 구축을 지원

❍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향교·서원 활용의 성공여부는 역사문화 컨텐츠와 프로그램 및 마을 만들기 교육 및 사업 프로그램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유관 전문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를 지원

❍ 휴먼웨어 측면에서는 향교·서원의 활용 주체이자 현대적 문화계승과 전달자로서 관련 주체들 간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며, 전문인력이나 운영기관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

<그림 3-15> 향교·서원 활용의 요소



자료 :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2009), 28쪽 수정

(3) 추진주체별 접근

❍ 향교·서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공유하며 지역공동체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지자체, 지역공동체, 유관 기관·단체, 운영조직 등이 협력하여 시설, 프로그램, 인력 등의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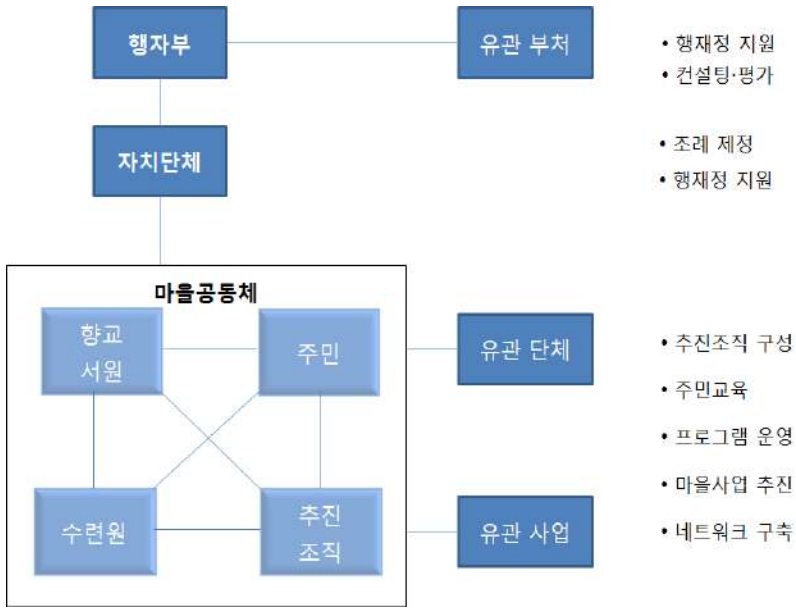
❍ 향교·서원의 현대적 활용을 매개로 역사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행자부는 시범사업의 추진 및 행·재정 지원, 제도개선, 컨설팅·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정책의 확산·전파를 주도

- 각 유관 부처별 유사 시책 및 사업간 차별화와 연계·조정은 물론 각 부처가 관장하는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

❍ 지자체도 향교·서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면 인프라 조성, 경관정비, 주민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를 자치법규 등으로 제도화

❍ 마을 단위에서는 향교·서원 및 수련원의 운영조직과 주민이 마을의 역사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자체 내의 유관 단체 및 유관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그림 3-16> 마을 만들기의 추진주체간 역할



2) 역사공동체 장소만들기

(1) 마을지도(커뮤니티 맵, Community Map) 만들기

❍ 주민이나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행정기관·전문가들과 함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활동이 많아지면서 마을지도 만들기를 통해 마을의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일반화

❍ 마을지도 만들기(community mapping)란 일반적으로 시민의 공공참여형 지리정보시스템(PPGIS)을 활용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정보를 수집하고, 기존 자료를 활용해 지도를 제작·공유함으로써 지역문제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활동을 의미

– ‘참여형 지도만들기(Participatory Mapping)’ 또는 ‘지역사회 기반 지도만들기(Community Based Mapping)’ 라고도 함(한승욱, 2013)

- 종래 행정 중심적인 커뮤니티 계획과정에 마을지도를 도입하면서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좀 더 쉽게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문제점과 잠재력을 파악
- 마을지도 만들기는 단순히 마을의 위치와 구조를 표시하는 지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와 소통을 통해 참여자와 지역사회를 함께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 수행

❍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사업내용)” 보다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마을공동체 형성단계에 맞는 적절한 사업)”를 중요한 키워드로 보는 관점이 필요(광주발전연구원, 2015)

- 주민 스스로 마을 만들기의 목표수준을 결정하는 셀프 인큐베이팅의 개념

<그림 3-17> 마을지도 만들기



〈마을지도 만들기〉



〈마을지도 사례〉

❍ 향교·서원의 활용을 통하여 역사문화가 있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마을의 자산, 수요, 문제, 사업 등에 관하여 마을지도 만들기 워크샵을 추진

❍ 마을지도 만들기는 사전 기획 → 강연 및 사례 → 커뮤니티 맵핑 오리엔테이션 → 주제별 팀 구성 및 팀원 역할 분담 → 현장 조사 → 팀별 토론 및 결과 공유 등의 과정으로 진행

❍ 구글의 마이맵·우샤히디(Ushahidi)·네이버 지도와 같은 참여형 지리정보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어 대중이 접근하기 쉬운 지리정보 시스템 이용이 가능

〈마을지도 만들기를 통한 긍정적 변화 〉

■ 참여(Engagement): 참여과정에서 커뮤니티 구성원 간 소통이 발생
■ 교육(Education): 참여자가 마을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화함으로서 지역에 관해 효과적으로 학습
■ 역량강화(Empowerment): 참여자의 의견이 담긴 정보체계 구축과 구성원간 소통을 통해 다양한 마을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자료 : 부산발전연구원(2008) 4쪽 수정

(2) 마을공동체의 거점시설 건립

❍ 공식적인 사회교류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가능하며,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연결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을 구축하는 필수적인 요소

❍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마을을 만드는 연결고리임

❍ 향교·서원의 활용을 통하여 역사문화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향교·서원의 장수형 교육·체험활동을 지원하고 마을주민의 교류·교육·여가 등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상징적 마을 거점시설이 필요

– 향교·서원의 기존의 강당, 동서재 등의 시설이용 시 문화재보호법상 활용이 제약되기 때문에 숙박이 가능한 교육·체험활동의 대체 시설이나 공간을 별도로 마련

※ 냉·난방 및 전기는 현행법상 교육시설에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숙박시설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거나 향교·서원 밖에 별도의 숙박시설을 설치(예 :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제42조(행정명령), 제83조(토지의 수용 도는 사용),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 거점시설은 향교서원의 교육·체험활동에 대한 지원은 물론, 역사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 만들기의 주민 교류·소통의 장소로 활용

❍ 향교·서원 밖에 향교·서원과 마을 주거지로부터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마을 거점시설로서 「역사문화 수련원」을 건립
- 수련원은 지자체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건립하며 운영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주민조직이 위탁 관리
- 수련원은 향교·서원과 마을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관련 법령상 토지이용 및 건축 규제의 제약이 없는 위치에 부지를 확보
- 수련원은 향교·서원과 연계한 역사문화공동체의 거점시설로서의 성격에 부합한 디자인으로 건축
- 수련원에는 교육관, 인문관, 숙박시설, 체험시설, 휴게시설, 회의시설, 여가시설 등을 구비

❍ 수련원은 기본적으로 향교·서원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제공하되 프로그램이 없는 기간에는 일반 주민의 활용에 자유롭게 개방
- 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의 회합, 교류, 소통의 장소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공부방, 마을카페, 작은 도서관, 세미나·워크샵 장소, 마을잔치 장소 등으로 개방·활용하여 주민이 일상에서 상시 이용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강원도 양구향교의 전통예절교육관〉

양구향교는 1405년(태종 5)에 창건되어 6.25 때 소실되었다가 1963년 재건
향교 인근에 양구향교 전통예절교육관을 국비 등 20억5천만원을 들여 2014년 9월 건립
예절관에서는 전통예절, 인성교육,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문학관, 박물관, 미술관, 관광지와도 연계

자료 : 박봉원·유영심(2014), 58쪽



(3) 장소 만들기를 위한 시설·경관 정비

❍ 대부분의 향교·서원이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과 도난방지시설(CCTV 등) 등이 미비되어 있고 주변의 마을에도 공중화장실, 안내판, 표지판 등 부대시설은 물론 편의시설이 극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설을 확충
- 역사문화유산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생 및 방문객 관리는 교육·체험·관광의 목적에서 유적의 중요성과 가치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교육생과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적에 대한 훼손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음

❍ 화장실이나 간이 휴게시설, 주차장 등의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탐방로 주변에는 벤치나 간이의자들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교육생이나 방문객의 피로를 덜어주는 시설이 필요
- 이러한 편의시설의 설치는 유적의 보존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적의 고유한 역사환경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위치

❍ 향교·서원을 활용하는 마을 만들기에서는 외관상 역사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마을 가꾸기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조경, 탐방로, 표지판, 소공원, 안내시설 등이 역사문화공동체의 특성과 경관상 어울리도록 디자인을 배려하여 조성

❍ 어떤 시설을 어디에 설치 또는 배치하고 주변의 경관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마을지도 만들기의 과정에서 주민이 현장조사와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

3)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1) 마을교육을 통한 주민자치역량 강화

❍ 마을교육 자체가 마을 만들기의 전제이자 중요한 영역이며, 마을 만들기의 수단이자 목표임

- 마을 만들기를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이 필요
- 자신의 생각을 양보하지 않는 가치관으로는 마을 만들기와 공동체 형성은 어렵다는 점을 공유하고, 자신의 생각을 수정·합의해 가는 유연한 사고형성 필요

❍ 마을교육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의 역할과 마을형성의 의의 등 사회적 흐름과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에의 참가자 그룹과 리더를 중심으로 한 기반형성이 가능

- 마을만들기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민대표(단체)는 역사문화공동체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어떤 의의를 전달할 것인지를 마을만들기 교육과 지침서 등을 통해 숙지하고 있어야 함
- 특히, NGO는 해당 단체의 활동방향과 마을 만들기와의 접점을 찾고 자신들도 주민과 마을 만들기 사업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인식을 갖고 마을 만들기 학습에 참여

❍ 마을만들기 교육은 단계와 수준에 맞춰 진행하며, 초기단계는 주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단순하고 쉬운 방법으로 시작한 후 점차 심화 단계로 발전

<표 3-5> 단계별 교육과정 및 내용(예시)

과정	대상	내용
1단계	마을활동을 시작하거나 관심있는 주민 씨앗기 사업을 수행하는 주민	동네한바퀴, 현장탐방(마을사람책), 디자인 워크숍, 활동계획 짜기
2단계	공모사업이나 마을활동의 경험이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마을리더, 마을활동가	가치, 마을자치(회의법, 주민조직, 재정 운영), 현장탐방, 평가 및 비전(계획) 수립
3단계	- 다년간 활동경험이 있는 마을활동가 - 시민단체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운영자 * 수료 후 마을 퍼실리테이터, 선배 멘토로서 활동	- 마을 퍼실리테이터(촉진자, 멘토) 양성과정(가치, 의사소통, 주민조직, 디자인 등) - 학습모임을 통한 탐구학습(내용선택, 실습)

자료 : 광주발전연구원(2015), 106쪽 참조

❍ 마을 만들기는 '스스로 하고 싶은 것,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 자신들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잘 조합해서 활동을 전개해야 해야만 즐거움과 보람으로 보상되어 주민참여가 촉진되며, 그 출발과 매개는 마을만들기 학습과 공유, 실천형 워크샵을 통해 구축

- 마을의 자원과 잠재력, 인적 자원에 맞게 마을 만들기의 내용과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부지원(인적, 물적)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지원이 사라지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마을만들기 교육 목표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주민간의 교류와 마을활동 및 마을내 경제활동의 증가 등)에 무게를 두어 주민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연계형 사회적 자본)의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함

❍ 마을 만들기 교육의 참가자 간 공유는 물론 참가자 외에도 워크샵의 내용을 외부와 공유하기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

- 교육과 워크샵의 결과를 모아서 바로 알리고, 장기적인 교육은 매회의 내용과 결과를 주민에 알림으로써 이를 통해 새로운 주민을 불러 모으고 마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네트워크가 확대
- 마을차원의 교육을 통해 양성되는 인력은 마을의 사회적 자본인 셈이며 그 중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은 코디네이터로 활동기회를 부여하여 리더를 양성

〈마을 만들기 교육의 유의사항〉
철저히 수요자 중심, 주민 중심의 교육내용과 방법론 선택
자발적 동기부여와 협력적 참여촉진, 자생력 향상에 초점
대상별, 수준별 교육과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 커리큘럼
교육제공 주체간 역할분담과 특화(전문화) 지향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주민공동체 교육 거버넌스 구축
활동가 재교육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주민교육과 대학, 공무원교육원 등 협력 네트워크 강화
마을공동체 촉진자, 진행자의 역할과 역량강화, 강사 풀 공유 및 확대

자료 : 광주발전연구원(2015) 61쪽 수정

(2) 마을 만들기 추진조직 구성 및 마을간사 지정

❍ 향교·서원의 활용을 통한 마을 만들기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지자체, 민간단체, 학교 등의 민-관-학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참여가 필수적임
- 현실적으로 향교·서원 등과 같은 유교문화자원을 소유 또는 관리·운영하고 있는 주체인 유림이나 문중은 자체적으로 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여건이 미비

❍ 우선적으로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의 운영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주도하는 주민조직체로서 마을 단위에 「역사문화공동체위원회」와 같은 주민 추진조직을 구성
- 마을 대표, 향교·서원의 관리운영주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
- 마을 만들기 관련 상설적인 의결기구로서, 민-관-학 협의체적 독립기구이며 마을 만들기사업을 주관

❍ 향교·서원의 활용(시범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자체(시도)에 협의체 또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향교-서원-문중-학교-지자체-연구소-기업체-문화예술단체-지역공동체(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를 네트워크화
- 협의체에서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 마을의 추진조직에서는 유교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개발·보급, 유교문화콘텐츠 발굴, 유교문화유산의 지식정보화·교육화·산업화를 담당

❍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정과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추진조직간 '줄탁동시(啐啄同時)'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적시 지원

❍ 마을 만들기를 주관하는 추진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활동을 선도하고 주민참여를 이끌어 가는 리더로서 마을간사(코디네이터, Coordinator)의 지정·운영이 필수적임
- 마을역사와 문화자원 등 각종 마을자원을 조사하고, 마을공동체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한 지원, 공동체 네트워킹 촉진, 마을활동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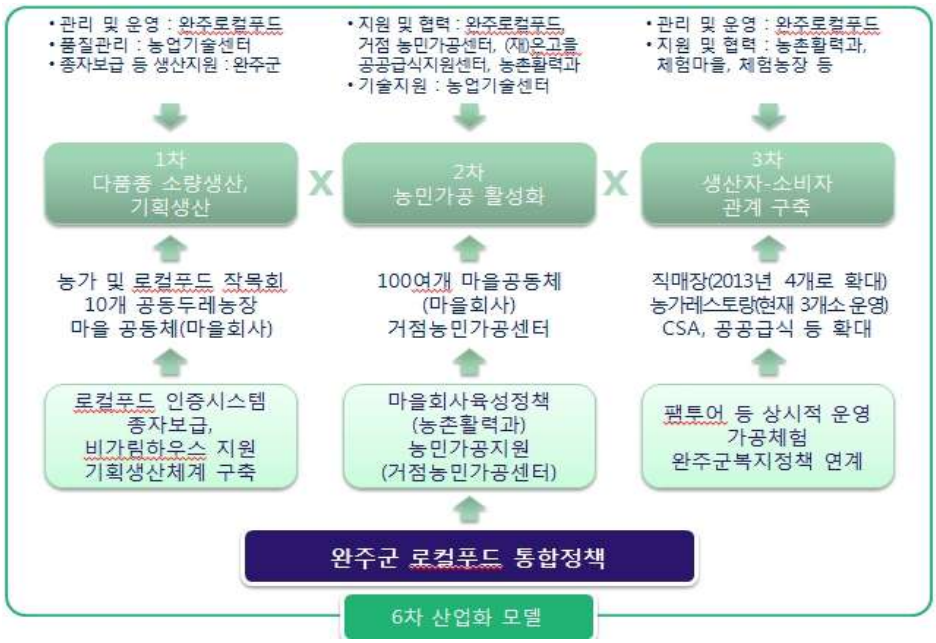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도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마을간사를 육성하고 배치

(3) 마을사업의 주민 참여 및 공동 추진

❍ 소득 및 일자리 창출사업

-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의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동기는 마을사업이 주민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크게 좌우됨
- 수련원 건립과 함께 향교·서원의 교육·체험 활동이 숙박형 또는 장수형 프로그램으로 추진될 경우 교육생이나 체험 참여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이 필요
- 향교·서원의 교육·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인력 지원과 물자 공급을 마을공동체에서 체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
- 교육·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 및 보조인력을 마을 주민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필요한 소양교육을 실시
- 교육·체험 및 관광을 위해 체류하는 교육생 및 방문객의 교육·체험 교자재 및 식사 또는 식자재 공급 등을 마을공동체가 담당
- 향교·서원 활용에 소요되는 물자 공급은 필요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것 보다 프로그램에 맞추어 마을공동체가 계획적, 체계적, 조직적으로 대응
- 마을밥상, 로컬푸드, 마을공방, 공동체 텃밭 등의 관련 사업을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제도상 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형태로 발전시키도록 유도
- 사례 : 전북 완주군의 경우 로컬푸드 생산, 가공, 유통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6차 산업(농어촌융복합화 사업)으로 통합

<그림 3-18> 완주군 로컬푸드 시스템



❍ 마을 역사문화 탐방사업

- 향교·서원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및 마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향교·서원을 비롯한 마을 인근이나 지차체 내의 역사유적지들을 루트로 연결하는 탐방로로 개발하여 관광사업을 추진
- 최근 제주도의 올레길이 상당한 붐을 일으키면서 일반인들의 걷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여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걷는 길 조성 정책을 추진
- 도보형 탐방은 점형(spot) 관광자원 개발에서 이들을 연결하는 선형(linear) 관광개발로의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것임(김도형, 2012)
- 탐방로를 통한 역사유적의 체험을 위해서는 방문객들을 위해 현장 해설(해석)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요구

- 마을 주민 중에서 문화해설에 대한 적임자를 발굴하여 소정의 전문교육을 이수케하여 문화해설사를 양성
- 탐방로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에 소재한 자원, 역사, 문화에 대한 심층 조사가 선행되어 이들이 탐방로에 반영되어야 하며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길에 장소성을 부여해야 함
- 지역의 유적들의 분포를 고려하여 다양한 탐방로 루트를 개발하고(예 : 순환형, 중복순환형, 선형, 위성순환형, 8자순환형, 거미줄순환형 등), 중간에 유적과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편의시설, 안내판 등을 설치

❍ 유교문화 테마형 기행(紀行)사업

- 향교·서원 등 유교문화유산에 대한 스토리텔링화와 명소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마을공동체가 주관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생이나 방문객을 대상으로 유교문화유산을 연결하는 기행프로그램을 기획·운영
- 유교문화유산을 하나의 스토리로 재구성하여 이야기가 있는 유교문화로 컨텐츠화 하고 볼거리, 놀거리, 체험거리로 만들어 체험자나 관광객에게 보다 많은 흥미와 감동을 제공할 경우 성공적인 집객요인으로 작용(김성진, 2013 ; 김양식 외, 2009))
- 향교·서원과 관련 유교문화유산(문중 고택, 누각, 정자, 묘소, 사당, 전통주 양조시설, 전통음식점 등)을 연계하여 순회 투어를 기획
- 테마형 기행 예시 : '효' 문화기행(유교의 기본 덕목인 효를 테마로 활용), 누정기행(누각과 정자를 소재로 옛 선비들의 삶과 풍류를 체험), 유교문화공정여행(향교나 서원을 대상으로 유교문화를 체험하는 순회 기행[6]) 등

❍ 유교문화 축제·이벤트

- 마을이 지자체와 공동으로 향교·서원의 전통의례를 중심으로 선비문화

6) 공정여행(公正旅行, fair travel)이란 현지의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지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여행으로, 단순히 즐기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행을 통하여 환경, 생태, 순화 등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여행을 의미하며 '착한 여행', '책임 여행'이라고도 불린다.

와 풍류문화를 테마로 한 지역축제를 기획

- 유교의례와 문화는 그 내부에 얼마든지 축제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주제와 컨셉 및 콘텐츠를 특성화하여 축제화
- 축제를 통하여 유교문화유산의 장소성과 영성을 홍보하고 지역공동체의 유대와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
- 사례 : 율곡문화제(파주 자운서원), 남명선비문화축제(산청 덕천서원) 등

〈서원을 테마로 하는 지역축제 사례〉
파주 자운서원의 율곡문화제(1987년~) : 제례, 유품전시회, 전통 유가행렬 및 시민 길놀이, 효(孝)가요제, 서예 시연, 유적지 답사, 전국 한시 백일장, 국악 공연, 전통 다례 시연 행사, 전통 혼례식, 등
산청 덕천서원의 남명선비문화축제(2001년~) : 추모제, 사사극 공연, 선비문화 체험(문인화 그리기, 다례, 문집책판 및 목판 인쇄 체험, 가훈과 명구 써주기 등), 시조경창대회, 전시전, 의병 출정식, 내고장 문화탐방, 학술대회 등

4)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구축

(1) 행자부와 문체부·문화재청간 협약

❍ 역사문화공동체 육성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는 향교·서원의 보존·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

- 현재 향교·서원의 활용이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에 관련된 중앙부처 지원사업은 매우 다양하게 분산(부록 참조)
- 따라서 사업간 유사중복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며 사업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사업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의조정을 통한 협력이 중요

❍ 향교·서원을 활용한 역사문화공동체 육성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는 단연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을 꼽을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로서 전통문화 보전·계승, 문화관광산업 육성, 체육진흥 등의 활동

을 수행

-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으로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조정·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며,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보호·지원 및 육성, 천연기념물, 명승 등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사적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관리, 중요민속자료의 보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행자부가 향교·서원을 활용하여 역사문화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과 업무조정 및 상호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전에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확보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

(2) 마을의 유관기관 및 유사 마을사업간 네트워크 구축

❍ 마을 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은 물론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주민, 기관 등 구성원이 일정한 룰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마을과 주민, 마을과 마을, 마을과 지역사회, 마을과 행정이 함께 연대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과 네트워킹 강화를 추진
- 마을리더, 주민워크숍과 총회, 마을경제, 마을문화, 마을지원, 마을거점, 마을미디어 등이 관계성과 정보공유를 통해 역량을 결집하고 배가시키는 정책적 접근과 시도가 필요
- 마을 만들기 추진조직에 유관기관을 참여시키거나 또는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별도의 마을 협의체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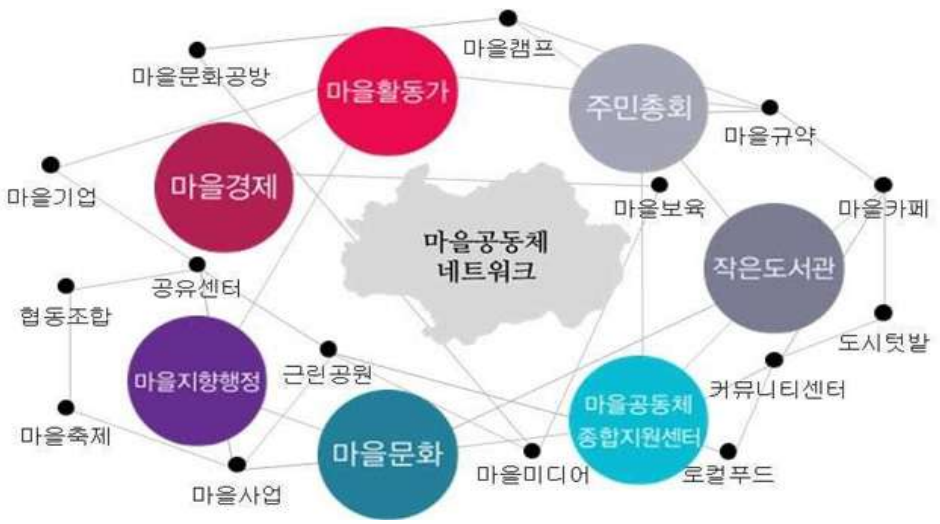
❍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련된 유관기관 뿐 아니라 마을 안팎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 마을 만들기 사업과도 기능적으로 연계

-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사업은 성격이 유사하거나 또는 기능

적으로 연관을 갖고 있음(부록 참조)

– 유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와 협약(협정) 체결하여 기능적 네트워크를 구축

<그림 3-19> 마을의 자원과 역량 결집을 위한 네트워킹



자료 : 광주발전연구원(2015), 96쪽

4. 정부의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1)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방안 마련

❍ 향교·서원 등 유교문화유산의 활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세·재정 등을 지원

– 시범사업의 수련원 건립에 대하여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지원

❍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유교문화유산의 활용에 소요되는 각종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개보수, 프로그램 운영 등의 비용을 보조

– 향후 지속적으로 향교·서원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고 이를 조례로 규정

-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제39조,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사문화시설에 대한 국비 보조의 제도적 근거〉

문화재보호법

- 51조와 제52조 : 국가와 자치단체가 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 제72조제2항(경비부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 제84조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
- 제12조제2항 : 시·도지사가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2) 활용촉진을 위한 제도 근거 마련

❍ 향교·서원 등 문화유산의 활용과 관련된 제도는 「문화재보호법」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관광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등이 있음

- 최근 오래된 주택 및 건축물의 보존·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2014.6.3)을 제정

❍ 우리나라는 문화국가를 지향하며, 국가의 의무로 전통문화의 계승 및 창달을 헌법에 명시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였으나 보존 위주의 성격을 갖고 있어 활용에는 매우 제한적인 제도임

- 공급자 측면에서 전통문화의 보존과 문화유산의 애호에 근거한 나머지

문화유산의 활용 및 문화향유, 수요자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은 소홀(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 249)

-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국민의 권리 강화는 공동체 내에서 전통적 가치를 확산·전승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임

❍ 향교·서원 등 유교문화유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호·보존 위주의 현행 문화재보호법 등을 개정하여 문화 향유 및 시설 활용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거나 또는 문화유산 활용을 다룬 별도의 법률로서 「문화유산활용진흥법」(가칭)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법 제정의 타당성은 법체계 정당성이나 입법경제성, 수범자 또는 국민의 법률 이해와 준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7)]
- 문화유산활용진흥법(가칭)의 주요 내용 : 문화유산 활용 기반의 구축, 문화유산 향유 기회의 확대, 문화유산 활용의 국제화와 기술지원, 문화유산 교육·체험, 문화유산 축제·관광 등

❍ 일본의 경우 역사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역사마을만들기법」(歷史まちづくり法)을 제정
(http://www.mlit.go.jp/toshi/rekimachi/toshi_history_mn_000002.html)

❍ 행자부가 주도하여 지역공동체 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 국토교통부에서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 2014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종래 전면철거 방식 재개발·재건축 방식에서 탈피한 도시재생 정책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물리적 시설의 개선과 주거환경의 정비에 초점이 두어져 있음
-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가칭)」을 제정하여 마을 만들기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7) 「문화유산활용진흥법」의 제정과 관련한 입법 타당성 검토, 기존 법률과의 관계, 법안의 주요 내용 등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2013)가 연구가 참고가 된다.

❍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유교문화유산의 활용 및 역사문화공동체 복원사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

〈일본의 역사 마찌즈구리법(歷史まちづくり法〉

법명칭 : 지역에 있어서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형성에 관한 법률
주관부처 : 문부과학성(문화청),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공동 관리
법의 목적 : 자치단체(시정촌)은 문화재행정과 마을만들기(마찌즈구리)행정의 협동에 의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적 가치를 살린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국가가 지역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에 의하여 귀중한 자산인 역사적 풍치를 차세대에 계승토록 함
법의 배경 : 지금까지의 시스템(고도보존법, 문화재보호법, 경관법, 도시계획법 등)으로는 역사적 풍치의 유지·향상(역사마을 만들기)에 한계
제도의 특징
– 의욕적인 시정촌의 사업을 지원
– 시정촌의 마을만들기 지원
–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시가지를 대상
법의 주요 내용
– 역사 마을만들기 시정촌의 지정
– 역사적 풍치를 형성하는 건축물의 복원·재생 지원
– 역사적 풍치를 살린 경관의 재생
– 역사적 풍치 유지향상계획 수립
– 역사적 풍치형성 건조물 지정
– 관련법의 특별조치 및 사업 특례 부여
– 보조금 및 세제 지원
자료 : 문화재청(2008), 국제심포지엄 자료

3) 전문인력 양성

❍ 현재 향교는 주로 70대 이상의 전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서원이나 사당 등도 마찬가지임
  – 현재의 운영주체는 전통을 기억하고 있고 유교의례와 문화가 체화되어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중적인 지형 변화와 수요에 맞는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현실적으로 곤란(김양식 외, 2009 : 65)
  – 향교·서원의 활용에 필수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리·운영 주체가 부족

❍ 유교문화유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전문문화인력(문화관광해설사, 학예연구사, 숲해설가 등)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임
  - 교육과정은 기존 문화교육프로그램에 유교 관련 강좌를 확대하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또한 특정 연구소나 문화기관、단체에 교육프로그램을 위탁하여 개설
  - 교육내용도 전통적인 유교문화 뿐 아니라, 유교의 본질과 원리, 유교의 현대적 의미와 현대문화로서의 가치 등도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유교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과 선입관을 타파
  - 사례 : 김포향교는 미래의 유림사회를 선도할 유림지도자 및 계승 세대를 양성할 목적으로 명륜대학을 운영, 1년 교과과정으로 동양고전, 향토사, 건강관리 등의 강좌를 대학교수와 사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

❍ 유교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운영주체인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이 필수
  - 지역내 문화·예술활동에 관련된 시민단체, NGO,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조직화된 공동체를 지원·육성

4) 활용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현실적으로 향교나 서원에서 자체적으로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관련 연구소、문화기관、문화단체 등이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해서 제공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하거나 공모를 통해 우수프로그램을 찾아내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

❍ 유교는 한자 사용, 혼례, 상례, 제례, 전통윤리 등 아직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유교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의 수요와 공급에 필요한 여건은 충분

❍ 현재 성균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교 우수프로그램을 시·도 차원에서 적절하게 변형, 개선하여 추진

5) 컨설팅·모니터링 실시

❍ 행자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추진단계별로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실시

- 준비 단계 : 시범사업 선정 후 사업추진 이전에 사업계획 수립 등 향후 사업시행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점검하는 컨설팅을 실시
- 집행 단계 : 시범사업의 추지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자체와 마을 추진조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대안을 제시

❍ 컨설팅·모니터링은 행자부가 주관하여 전문가와 T/F를 구성하여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의 협약에 근거하여 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

❍ 시도 단위에서도 중간지원기관을 활용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을 실시

〈 시범사업 추진 컨설팅·모니터링 주요항목 〉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내용은 어떠한가?

사업추진 실태점검
- 사업의 전반적인 진척정도는 어떠한가?
- 계획 대비 사업의 추진정도는 어떠한가?

추진주체간 협력
-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자체와 마을 추진조직간 협력의 내용 및 정도는?
-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을의 조직형태와 운영은?

사업의 성과창출
- 어떤 부문에서 어떤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가?
- 사업추진의 장점과 약점은?

사업추진의 애로사항
- 사업추진의 주요한 애로점과 문제는?
-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사업추진의 권고사항
- 추진주체간 협력강화 방안
- 성과창출 및 애로해소 방안
- 기타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

6) 현대적 유교문화 홍보

❍ 향교·서원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교문화에 대한 유교문화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유교문화의 현대적 해석과 가치를 홍보전파하여 활용의 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함

- 지역적 유교문화의 우수성과 문화적 특성 및 향교·서원의 기본개요 등을 대국민적으로 홍보
- 유교문화 기념품, 교재, 만화, 캐릭터, UCC, 다큐멘터리 등의 개발·홍보

❍ 사이버공간은 유교문화 관련 모든 것을 한 눈에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서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

- 시·도 단위에서 유교문화 포털사이트 개설·운영, 유교문화 앱(App) 개발, 가상현실 체험관 개설, 온라인 유교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유교문화를 널리 홍보
- 사례 : 경북의 경우 2002년부터 사이버유교박물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최초의 전통 유교 포털사이트로써 학계와 국내외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전통유교에 접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신문화 정화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

5. 향교·서원 활용 지역공동체 육성 시범사업

1) 시범사업의 개요

□ 시범사업의 목적

❍ 단기적으로 일정 유휴공간(향교·서원 및 폐공장·상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거점시설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 지자체와 지역의 운영단체가 제안하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특교세 지원 공모사업 실시

□ 시범사업 개요

❍ 사업 명칭 : 역사문화 공동체 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15 ~ 2016년

❍ 사업량 : 시도별 사업공모를 거쳐 3개 마을 조성

❍ 사업내용 : 향교·서원 및 전통마을 등에 인문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수련원(교육장 및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고 교육·체험활동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역사문화 공동체를 육성

❍ 지원사항 : 특별교부세로 국비와 매칭펀드로 지방비를 각각 지원

2) 시범사업 추진절차

□ 사업성 검토 및 공모신청

❍ 향교·서원의 소유·관리단체와 협의하여 사업의 내용 및 계약조건, 시행가능성 등에 대하여 검토

❍ 향교서원 활용 역사문화 공동체 육성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시도)의 추천을 받아 행자부에 공모사업을 신청

  – 제안서는 향교·서원의 역사문화적 특성에 부합하는 활용 프로그램과 마을공동체의 복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실천가능하고 특성화된 계획을 수립

❍ 공모사업의 제안자는 지역공동체로서 사업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전문기관·단체, 주민조직체 등으로서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로 하되 공모사업에 적합지 않은 단체의 성격을 규정하여 신청에서 제외

〈공모자격 제외 대상단체(예시)〉
국·공립 및 언론사 소속의 기관 혹은 단체
학생(청소년 등)들로 구성된 동아리나 비전문 단체
학원이나 교습소, 일회적 성격의 단체, 상업적 활동을 주로 하는 영리목적기관 및 단체
특정 종교 소속 단체 또는 종교적 성격이 강한 단체
기타 지원시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단체

□ 제안평가 및 대상지역 선정

❍ 제안신청은 시·군·구의 추천을 받아 평가를 거쳐 행자부에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평가·선정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행자부에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에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최종 시범사업을 선정

〈대상지역의 조건(예시)〉
지역주민의 참여의지 및 역량 : 마을 만들기 추진경험이 있는 지역
자치단체의 참여의지 및 역량 : 마을 만들기 전담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 마을 만들기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
향교·서원의 참여의지 및 활용역량 : 향교·서원에서 역사문화적 활용경험이 축적된 지역
시설 확보 가능성 : 수련원 건립부지, 토지이용규제, 교통접근성, 주변경관 등 역사문화 거점시설 설치가 양호한 지역

❍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기준
– 총 평가점수는 100점 또는 200점으로 적의 조정
– 평점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별로 5등급 척도에 따라 평정(예 : ① 매우 우수, ② 우수, ③ 보통, ④ 미흡, ⑤ 매우 미흡)
– 서면평가로 지원 총액(선정 사업수)의 2배수를 선정한 후, 현지실사 결과를 참고하여 조정한 후 최종 대상지역을 확정

<표 3-6> 역사문화 공동체 육성 시범사업 선정기준(예시)

평가기준	세부기준		배점
사업의 타당성 (20)	사업의 목표부합성	사업의 목표와 핵심가치가 시범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사업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가?	5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세부사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5
	목표의 실현가능성	목표와 사업계획의 내용이 계획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가? 추진일정과 재원조달 등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5
	사업의 지속가능성	시범사업 종료 후 지속적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가?	5
지역여건 부합성 (25)	지역자산 활용	해당 지역에 활용가능한 지역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내용에 지역자산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5
	시설부지 확보가능성	수련원을 건립할 적정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한가? 부지가 위치, 지형, 토지이용규제 등에 적합한가	10
	인프라 확충	시설활용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확충되어 있는가? 수련원 및 부대시설의 교통 등 접근성은 양호한가?	5
	사업간 연계성	기존의 지역내 사업(정부지원사업, 민간사업 등)과 어느 정도 연계가 가능한가?	5
사업의 효과성 (25)	지역사회 기여도	문화적 기여도(문화적 자부심 고양,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여도(주민참여, 공동체 활성화 등) 경제적 기여도(일자리 및 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15
	타 사업으로 확산가능성	주변지역의 타 사업 또는 타 지역의 유사사업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있는가?	10
추진체계의 적절성 (30)	추진조직의 구성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조직이 결성되어 있고 역량이 있는가?	10
	마을만들기 추진경험	이전에 마을만들기 등 유사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가?	5
	지자체의 추진의지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의 추진 또는 지원의지가 얼마나 있는가? 자체재원 조달, 전담인력, 인프라 지원 등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이 있는가?	10
	주민참여	주민과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가?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참여가 활성화 되어 있는가?	5
계			100

□ 사업계획(설계) 수립

❍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범사업 운영단체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설계 포함)을 수립

❍ 지역공동체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민, 공무원, 지역공동체, 유관기관·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

□ 사업시행

❍ 운영단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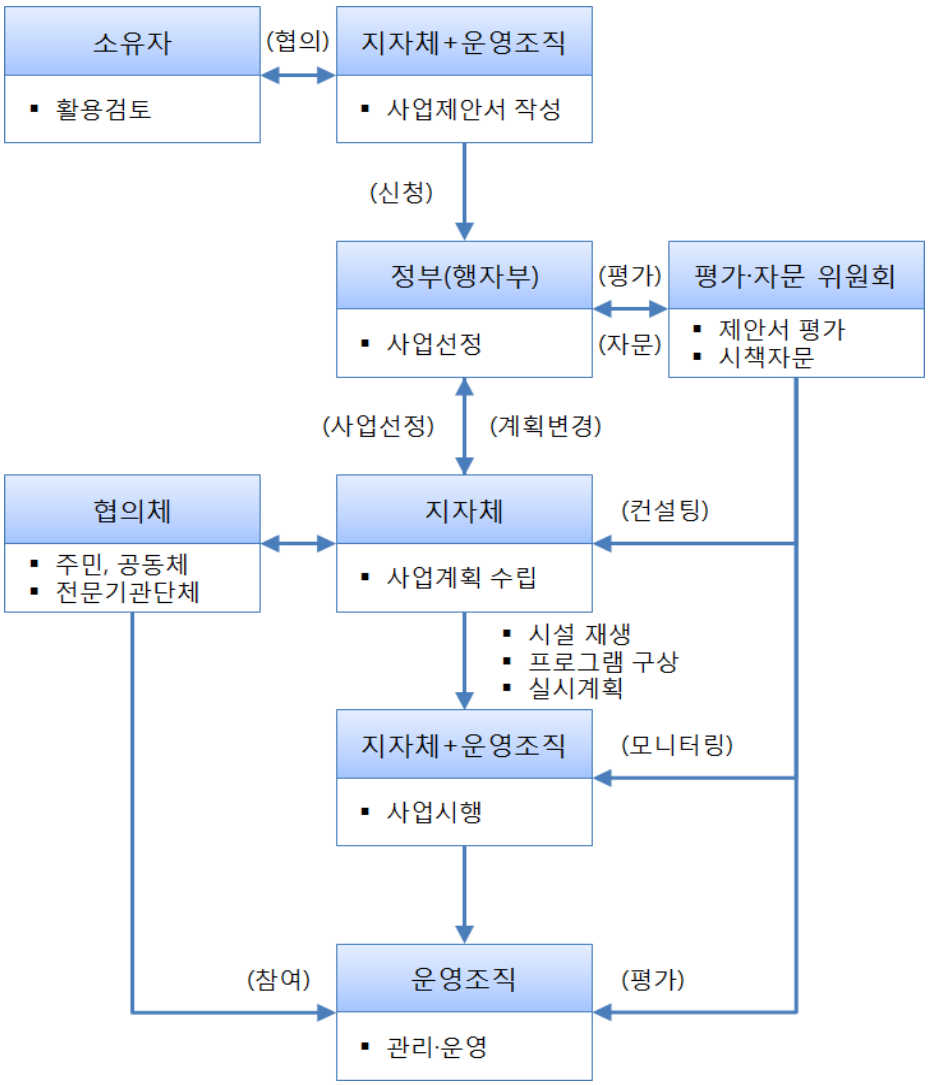
❍ 행자부에서는 시도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보조·지원하고 사업시행자는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정산하여 행자부에 보고

□ 관리·운영

❍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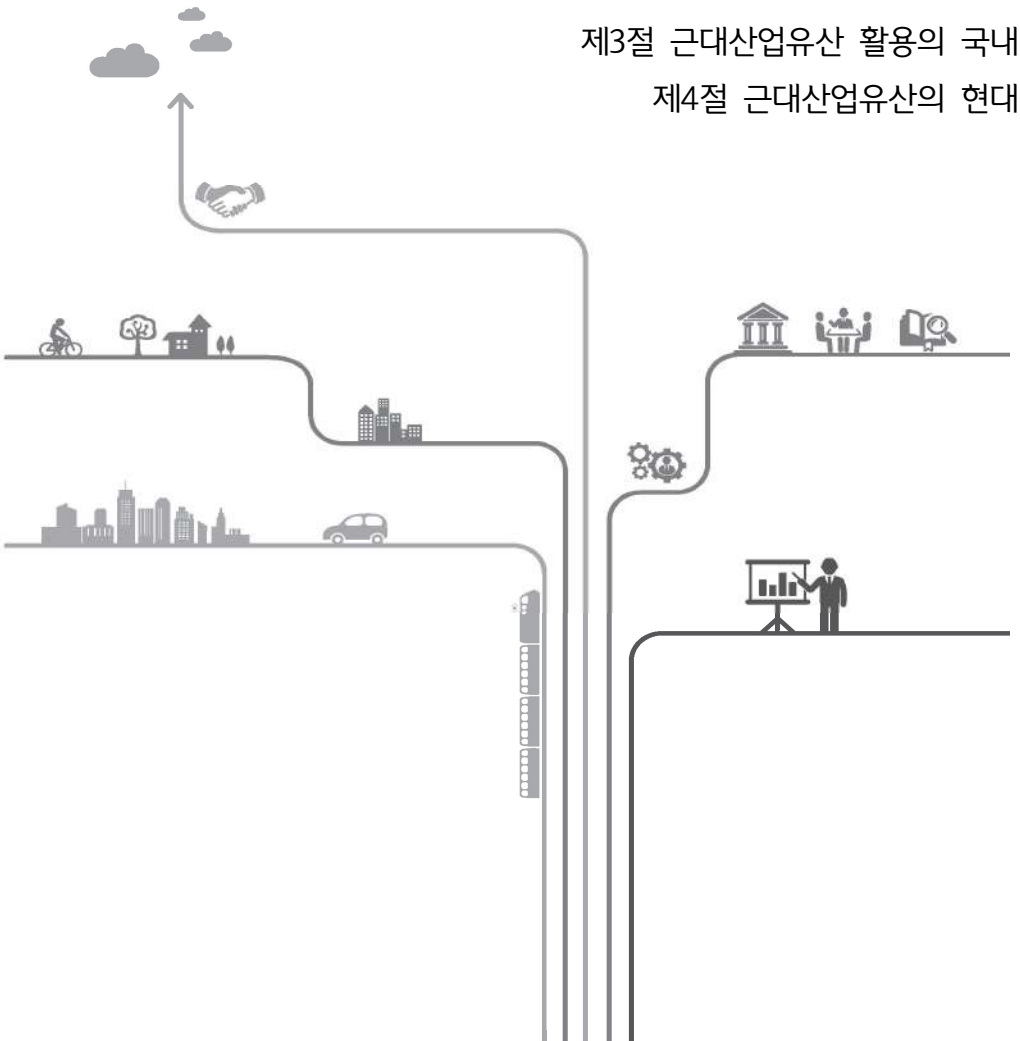
❍ 자치단체, 시설소유자, 사업시행자 등이 협의하여 시설운영, 관리운영예산 조달 등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수립

<그림 3-20> 시범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제4장
근대산업유산의 현대적 활용방안

제1절 근대산업유산의 개념과 의의
제2절 근대산업유산의 활용사업 실태
제3절 근대산업유산 활용의 국내외 사례분석
제4절 근대산업유산의 현대적 활용방안



제4장 근대산업유산의 현대적 활용방안

제1절 근대산업유산의 개념과 의의

1. 근대산업유산의 개념

□ 산업유산의 개념

❍ 산업유산은 산업과 유산이 결합된 단어로 '인간의 생계활동 과정에서 탄생한 유·무형의 자산을 의미'함(김정후, 2013)

– 특히 중요한 것은 산업유산을 단순한 물리적 대상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져야 하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대상이라는 점임

❍ 산업유산이 유·무형적 자산이라는 개념은 초기에 물리적인 형태의 산업유산을 강조하던 것에서 다양한 기술, 행정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 이러한 산업유산 개념의 확장은 유네스코와 대표적인 국제단체인 산업유산보존국제회의(TICCIH: 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Conservation of the Industrial Heritage)에 의해 주도되었음

– 유네스코는 1972년부터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통하여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하고 문화유산의 일부로서 산업유산의 가치를 강조해왔으며, 1978년 최초로 지정한 산업유산인 폴란드의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이라는 산업부지를 지정한 이후 최근에는 도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기반시설과 기술과 연관된 유산을 지정하고 있음

– 또한, 대표적인 단체인 TICCIH는 산업유산을 산업부지, 건축물, 공장, 기계 및 설비 등과 같은 물리적 유산뿐만 아니라 산업 경관, 상품 및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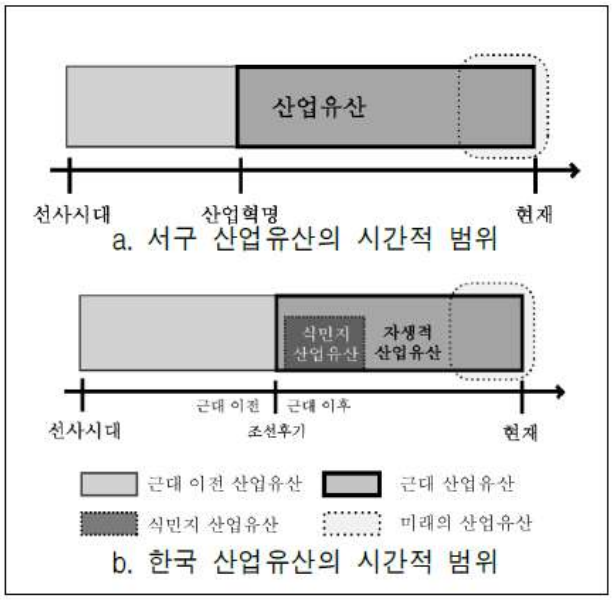
정, 산업계에 대한 기록물 등도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내리고 있음 (http://ticcih.org/about/)

-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산업유산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이 아니라 산업활동과 관련한 물리적, 사회적 시스템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임
- ❍ 그 결과 산업유산은 '인류의 산업활동과 관련하여 생성된 역사적, 기술적, 사회문화적, 미학적, 교육적, 과학기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박재민·성종상, 2012)으로 이해될 수 있음
- ❍ 따라서 산업유산을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유산이 갖고 있는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변용되고 접근될 필요가 있음

□ 근대산업유산의 개념

- ❍ 산업유산은 시기에 따라 전통산업유산과 근대산업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그 중에서 근대산업유산은 '근대'라는 시기에 진행되었던 산업활동의 발자취임
- ❍ 서구의 경우 고대-중세-근대 등의 3단계 구분이 일반적이며, 전통산업유산은 고대와 중세의 산업유산을 의미하며, 근대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대산업유산은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유산을 의미함

<그림 4-1> 산업유산의 시간적 범위



❍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의 시기가 어디인지에 대한 역사학적인 논쟁이 존재하나, 대체로 한국 근대산업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대산업유산의 시작점을 조선 후기로 두고 있음(박재민·성종상, 2012)

- 우리나라 근대산업유산을 세분하면, 조선후기 자주적 산업화 시기의 산업유산, 식민지시기 산업유산, 해방이후 1960년대까지의 혼란기 산업유산, 19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기 산업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박재민·성종상, 2012)
- 예를 들어, 조선후기 자주적인 근대산업유산으로 동대문발전소, 우정총국 등이 있으며,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서울역, 장항제련소, 경성정공 등이 있고 해방이후 혼란기 시대에는 성광성냥공장, 경제성장기 산업유산으로 구로공단, 포항제철공단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2. 산업유산의 범위와 유형

☐ 근대산업유산의 범위

❍ 전술하였듯이, 산업유산은 산업활동과 관련한 모든 물리적, 사회적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를 쉽게 한정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이순자·장은교(2008)는 산업유산을 '직접 산업과 관련되는 산업시설 자체와 그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형성된 각종 인프라 및 행·재정 지원체계'로 산업유산의 사회적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산업유산을 '역사적, 기술적, 사회적, 건축학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산업문화의 유물'으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건물, 공장, 창고, 제조소, 발전소 등 산업화 및 공업화에 공헌하여 온 산업관련 시설물과 이를 지원하였던 운하,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를 포함시키고 있음(추용욱, 2008)
- 유럽 산업유산위원회(ERIH: European Route of Industrial Heritage)는 광업, 철강 등의 기본 산업과 함께, 주택 및 건축물, 조경 등도 포함시키고 있어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시스템까지 포함시켜 가장 폭넓게 산업유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표 4-1> 산업유산의 범위

구분	산업유산의 범위
유럽(ERIH)	- 산업유산에 광업, 철강, 방직, 제조업, 에너지, 교통 및 통신, 물 관련, 주택 및 건축물, 조경, 서비스 및 레저산업 등을 포함
일본 경제통산성 (2007)	- 주로 산업발전과정에서의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한 유산이 대상으로 건조물, 획기적인 제조물 및 해당 제조품 제조에 이용된 설비·기기, 이러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문서, 이상의 것들의 복원물 또는 모형도
원용호 (2003)	- 산업은 경제적 생활에 관한 모든 일을 포괄하는 것으로 인간생활의 기초. 그러한 산업활동 과정에서 형성된 역사적, 문화적, 기술적 가치가 담겨 있는 건물, 교량 등과 같은 토목구조물, 철구조물 등을 망라하는 시설물
염동진 (2003, 2004)	- 지역의 산업사와 그 유산의 보존에 대한 것으로 농업, 어업, 철강, 탄광, 조선산업과 관계된 것들
강동진 외 (2003)	- 공업화(근대화)에 공헌하여 온 산업관련 결과물, 기술 등과 이를 지원하였던 운하, 철도, 항만 등 인프라를 총칭
강동진 (2007)	- 산업 혁명을 전후하여 공업 중심의 근대화과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과학기술과 연관된 유산 - 구체적 대상으로는 광복후 건설된 공장시설, 광업, 요업, 양잠업, 염전업, 임업 등과 관련된 생산시설, 터널 등 철도시설, 방파제, 조선소(도크)시설 등 항구시설 등 - 산업유산을 단일체에 국한하지 않고 경관, 유적, 구조물, 기계, 제품 등 모든 산업 결과물

출처 : 이순자 외(2008), 29쪽

<표 4-2> 근대산업유산의 유형: 유형 vs 무형

유형	대상		해당 사례
유형적(tangible)	도시 구조	마을	탄광마을, 황금정마을
		가로 등	가로구조, 길, 골목, 담장
	건축물		공장, 창고
	구조물, 설비, 기계		교각, 방직기
	기타(재료, 수목, 색채 등)		벽돌, 산업 연관 특정 색채
무형적(intangible)	경관		시대별 도시경관
	기술		제련, 봉제기술
	사건		기념 및 상징적 사건
	인물 관련 사항 등		주요 인물의 활동,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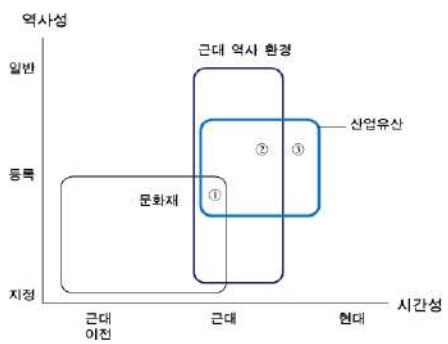
자료: 박재민·성종상(2012)

❑ 근대산업유산의 유형화

❍ 먼저, 산업유산은 유형적 유산과 무형적 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유형적 자산으로는 산업활동이 진행된 건축물인 공장, 창고 등이 있으며, 탄광마을과 같은 도시구조, 기계 등의 구조물, 그리고 관련 재료 등이 포함됨
- 무형적 자산으로는 특정 시대의 산업과 결부된 경관, 기술, 사건, 인물 등이 포함됨

❍ 둘째, 산업유산의 구분방법은 산업유산의 문화재적 가치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 근대산업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판단하는 잣대로 문화재 지정 여부를 고려
-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①문화재로 지정(등록)되어 있는 산업유산, ②비문화재이나 보전가치를 가진 산업유산, ③1960년대 이후 조성(형성)되었으나 강한 지역성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유산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표 4-3> 산업유산의 개념적 범위

산업유산의 개념적 범위	산업유산의 구분
	①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어 있는 산업유산) ② 비문화재이나 보전가치를 가진 산업유산 ③ 1960년대 이후 조성되었으나, 강한 지역성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유산

자료 : 강동진 외(2003), 10쪽

❍ 마지막으로, 근대산업유산은 기능, 분포 상태, 활용 형태, 소유 형태, 입지 패턴, 가치 정도 등의 특정 기준에 의해 유형 구분될 수 있음

<표 4-4> 근대산업유산의 조건별 유형

조건별 유형	예시
성격 기능	산업설비형, 산업구조물형, 산업인프라형, 생활인프라형, 경관·이미지형
분포 상태	개체단위형, 개체집적형, 개체산재형, 선(線)집중형, 면(面)집중형
활용 형태	관광시설형, 상업시설형, 교육·학습시설형, 산업기술계시설형, 이벤트시설형, 문화시설형, 일반시설형
소유 형태	기업(개인), 공공협의체, 제3섹터, 지방자치단체, 국가, 기타
입지 패턴	도시중심부, 도시주변외곽, 산업개발지역, 기타 지역
가치 정도	세계유산, 국가문화재, 지방문화재, 등록문화재, 비보호시설, 기타

자료: 추용욱(2009), 15쪽

3. 근대산업유산의 활용가치

❍ 경제적 효과
- 산업유산에 대한 체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관광 촉진
-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문화적 효과
- 공간의 활용으로 문화공간을 형성하여 산업기술의 변천과정과 지역의 역사 및 사건을 체험을 통한 학습시설로써 활용 가능

❍ 지역적 효과
- 경제적인 낙후로 인한 수많은 인구이동으로 초라해진 지역에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
- 주변에 새로운 인프라를 형성하여 지역성장에 기여
- 지역주민과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영향

❍ 상징적 효과

– 해당 지역의 장소에 산 증인으로써 역사의 연속적인 역할과 그 공간에 대한 랜드마크적인 기능

❍ 건축적 효과

– 건물의 일부를 활용하여 본래 공장의 분위기인 굵고, 거친 선에 현대의 주변 인프라와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아름다움 창출(정민주, 2013 : 88)

제2절 근대산업유산의 활용사업 실태

1.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 배경

❍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1980년대 폐교를 활용하는 형태에서 시작하여 참여정부에 와서 당인리 발전소[8]를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었음(박신의, 2012)

❍ 당인리 발전소 논의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구 서울 역사의 활용 방

8)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당인리 발전소의 지하화가 결정됨에 따라 폐지예정인 발전소 4호기와 5호기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인리 발전소는 홍대 지역, 상암DMC, 문래동 예술창작촌과 인접하고, 양화진 공원 등 한강의 역사·문화 환경적 자원과 면하는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어, 발전소를 보존하여 문화적으로 활용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는 ①장르 구분 없는 새로운 예술형태의 실험과 제작, ②예술과 타 영역의 만남을 진흥하는 각종 활동을 지원, ③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연구 및 모델 개발, ④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생산하는 예술 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⑤지역·환경과 예술의 상호 관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활동, ⑥창작·연구·향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및 토론의 장 제공, ⑦산업유산 활용의 새로운 모델 제시를 지향하고 있다(김연진, 2015).

안을 계기로 2005년에 전담부서(디자인공간문화과)를 만들고, 전국에 방치된 근대산업유산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함(박신의, 2012)

- ❍ 이후 2008년에 국정과제로 추진된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을 통해 도심 재생 및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에 힘씀
- ❍ 해당 사업은 창고, 공장, 기차역 등 지역의 폐 산업시설을 특화된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임(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08)

□ 사업의 목표

- ❍ 개발 논리에 밀려 훼손·멸실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근대산업유산의 가치와 지역정체성을 보존하고 문화예술관광의 관점에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도심 재생 및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문화체육관광부, 2009)
- ❍ 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산업유산의 활용 모델을 제시(문화체육관광부, 2009)
- ❍ 지자체의 능동적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예술창작 및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함(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08)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 2008년 국토연구원의 근대산업유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추천 16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5개소의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문화체육관광부, 2009)

<표 4-5> 문화예술창작벨트조성 시범사업(2009)

지역	사업대상	특화영역	주요 사업내용	산업유산전경
전북 군산	내항 근대유산	근대사, 공연	내항부두 및 일제시대 건물의 문화공간화	
전남 신안	염전, 소금창고	소금, 체험	미술관, 공연장 및 소금문화체험공간 조성	
경기 포천	폐채석장	돌, 조각	창작스튜디오 조성, 조각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	
대구	구 KT&G 연초창	예술창작	대구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예술창작 프로그램	
충남 아산	구 장항선	공연, 전시	도고온천역 등 구 역사의 문화공간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08; 이순자, 장은교(2010) 재구성, 네이버 이미지 검색

❍ 2009년부터 3개년 간 단위사업별 마스터플랜을 수립(문화체육관광부, 2009)

❍ 사업 예산: 총 예산 400억원(국비, 지방비 각 200억원)[9)]

❍ 사업 기간: 2009년 ~ 2011년

□ 지원 현황

❍ 근대산업유산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문화공간 조성과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

9) 한국일보(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사업, 2010년 7월 28일)

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관련 사업 및 예술창작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함

❍ 전북 군산의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사업'

-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사업은 일제강점기 때의 근대산업유산을 그대로 활용하여 예술창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임
- 군산시는 해당사업에 총 100억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을 지원받고 문화공간을 조성함(전북발전연구원, 2010)
- 미즈상사는 까페테리아로, 적산가옥은 장미갤러리, 대한통운 창고는 장미공연장으로 조성함(군산시청 보도자료, 2014)
- 군산시는 장미공연장에서 토요상설 공연 등을 개최하여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함

<표 4-6> 군산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사업 성과

미즈까페	장미갤러리	장미공연장
		

자료: 군산시청 보도자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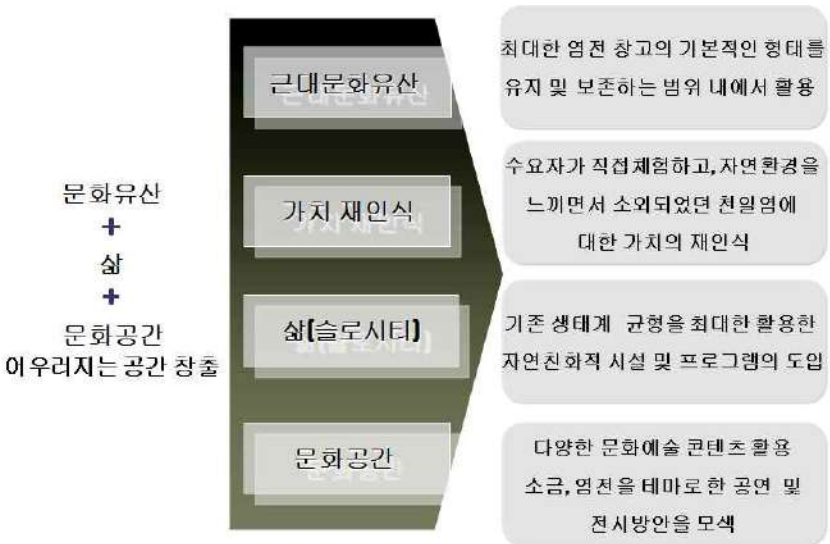
❍ 전남 신안군의 '증도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 2009~2011년에 걸쳐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신안군 증도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함[10)]
- 증도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은 신안군 증도의 근대산업유산인 태평염전과 석조 소금창고를 활용하여 문화예술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산

10) 교차로신문(신안군 재활용 예술조형물 사업 '잡음', 2009년 12월 16일)

공간과 더불어 자연환경, 문화공간, 전통소금재현 등 큰 범주의 에코 뮤지엄 조성을 목표로 함(신안군청, 2012)

<그림 4-2> 증도예술창작벨트의 성격



자료: 신안군청, 2012

- 2009년 소금박물관은 이미 조성되어 있었고, 해당 사업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과 세부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도모하여 체험형 문화예술벨트를 조성하는데 힘씀(황소영, 이정형, 2011)
- 석조 소금창고를 개조한 소금박물관은 소금에 대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을 주관하고(황소영, 이정형, 2011), 태평염전은 사람들의 일상과 천일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고, 직접 염전을 체험할 수 있어 좋은 교육장소로서 역할을 함(전라남도, 2011)
- 천일염을 사용한 음식을 판매하는 카페테리아, 소금방의 체험이 가능한 미네랄 체험관, 소금 아이스크림 등 특산품을 판매하는 까페테리아가 조성됨(황소영, 이정형, 2011)

<그림 4-3> 증도예술창작벨트 기본구상



자료: 신안군청, 2012

<그림 4-4> 증도예술창작벨트사업 성과

소금박물관 내부	염전 체험장
	

자료: 전라남도, 2011

❍ 경기 포천의 '아트밸리 조성사업'(2차)

- 포천 아트밸리 조성사업은 폐 채석장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을 조성
- 대상 지역인 천추산은 1972년부터 30여년간 포천석을 생산하는 채석장이었으나 채석이 끝난 이후 10여년간 방치되다가 2004년에 포천시가 부

지를 매입하여 아트밸리 조성사업(1차 사업: 도비 100억원 지원)을 시작함(김현호, 2010)

- 이후 2009년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대산업유산 예술벨트 조성사업(2차 사업) 차원에서 국비 53억원[11]을 지원함
-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아트밸리 기반 구축기로 창작스튜디오, 예술까페 등의 하드웨어를 구축하였고, 특히 돌을 캐내고 남은 암벽의 이색적 풍경을 자연 그대로 활용해 '예술계곡'을 조성함(김현호, 2010)
-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아트밸리 지속발전기로 교육전시 센터를 건립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운영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함[12]

<그림 4-5> 포천 아트밸리 사업 추진경과 및 성과



자료: 포천아트밸리 홈페이지(http://pocheonartvalley.or.kr)

11) 동아일보(채석절벽 병풍 삼은 수정호수…절로경탄, 2009년 10월 26일)
12) 네이버 지식백과 '포천 아트 밸리' 검색(http://terms.naver.com)

❍ 대구의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조성 사업'

-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조성사업은 옛 KT&G 별관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창작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임
- 해당사업은 낙후된 구도심지역에 예술창조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재생의 효과와 더불어 예술창작 인프라 확충, 창의적 작가 양성기반을 구축함[13)]
- 총사업비 160억원(국비 80억원, 시비 80억원)을 지원하여 문화창조발전소(현, 대구예술발전소)를 조성[14)]
- 대구예술발전소는 지하 1층~지상5층의 규모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스튜디오(예술가 입주시설), 전시장, 공연장, 자료관 등으로 구성됨
- 대구예술발전소의 주된 프로젝트인 텐토픽 프로젝트(Ten-Topic Project)는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장르의 합동프로그램, 시민참여 프로그램, 멘토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그림 4-6>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조성사업 성과

대구예술발전소 전경	전시공간 내부
	

자료: 대구예술발전소 홈페이지(http://www.daeguartfactory.kr)

13) 대구예술발전소 홈페이지(http://www.daeguartfactory.kr)
14) 매일일보('예술 메카' 대구창조문화발전소 내달 착공 2011년 01월 17일)

❍ 충남 아산의 '아산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09)

- 2009년~ 2011년에 걸쳐 총사업비 107억원을 투입하여 해당사업을 추진
- 해당 사업은 쇠락한 도고온천역을 공연장, 박물관 등으로 구성된 예술창작의 요지로 정비하려는 사업임
- 도고 온천은 과거 연인들의 신혼여행이자 가족들의 휴양지로 널리 알려졌던 동양 4대 유황 온천임
- 도고온천간이역과 도고역 사이 2.5km 구철도, 선도농협창고, 신정분교, 옹기체험장, 세계꽃 식물원 등을 하나의 테마문화공간인 아트거리를 조성
- 해당 사업을 통해 개그 공연장(코미디홀), 전시장, 까페 등을 조성하고, 도고역 인근의 한 폐교는 대중음악 아카데미로 조성되어 음악, 춤 등의 커리큘럼을 운영함

<그림 4-7> 아산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성과

코미디홀	아트거리(옛 도고온천 역)
	

자료: 경기관광포털(http://ggtour.or.kr)

2.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 배경

❍ 문화체육관광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정책방안으로써 문화적 공간 및 환경 조성을 추진(문화체육관광부, 2014)
- 산업단지 내 발생한 유휴공간의 활용성을 제고
- 노후 산업단지 내 문화적 환경 및 시설확충을 통해 청년인재들이 찾는 공간으로 변화를 추진
- 문화공간 조성 리모델링, 융복합 활성화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15)]

☐ 사업의 목표

❍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쉽게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하도록 함으로써 문화 갈증을 해소함(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4)

❍ 획일적이고 삭막한 산업단지를 문화예술을 통해 매력 있는 공간으로 재창출하여 문화예술인, 근로자, 주민을 위한 창작기반을 확대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함(문화체육관광부, 2014)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16)]

❍ 대상시설: 산업단지 내 공간, 폐 산업시설 등(신규 건립 불가)

❍ 사업예산: 125억원(2014년도)

❍ 사업기간: 2014년 ~ 계속

❍ 지원대상: 전국 공모를 통해 1차 사업 선정(4개소), 이후 2차 사업(5개소)과 추가사업(2개소)이 선정됨

15)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16)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2013년 12월, 1차 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2차 사업'(2014년 3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추가사업'(2014년 8월)을 선정함

<표 4-7>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선정

사업경과	지역	사업대상	주요 사업 내용
1차 사업 선정 (4개소)	충북 청주	청주 문화산업단지	도시 첨단 문화산업재생
	경기 안산	안산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스마트허브 문화재생
	광주	광주 소촌농공단지	예술의 새로운 영토 소촌 아트팩토리
	강원 영월	영월 농공단지	영월 갤러리 온 팩토리 조성
2차 사업 선정 (5개소)	경기 시흥	시흥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예술창작소 창·공
	경기 광명	광명 폐 자원회수시설	광명문화공간 조성
	경기 부천	부천 폐소각장	부천문화콘텐츠플랫폼
	인천 옹진	옹진 구 백령병원	백령병원아트프로젝트
	전남 담양	담양 폐 양곡창고	예술로 남송창고 재창조
추가 사업 선정 (2개소)	경남 창원	경남 창원국가산단	문화대장간 풀무
	전남 나주	전남 나주 폐잠사	나주 나비센터

❍ 1개소 10억원 내외 지원, 지방비 50% 부담 조건(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4)

□ 1차 사업(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지원현황

❍ 청주문화산업단지

– 근로자에게는 즐거운 일터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문화예술명소를, 지역문화예술인에게는 창작과 협업을 통한 대중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총 사업비 20억원(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옛 연초제조창 동부창고 34동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근로자 및 청주 전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함[17)]

17) 주간시흥(시흥·안산스마트허브 고용환경개선사업비 46억 지원, 2014년 2월 5일)

❍ 안산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 각 부처별로 진행하던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을 고용부 주관 합동 공모방식으로 변경해 효율적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일부 사업인 스마트 허브 문화재생사업은 국비 13억 1,200만원을 지원받아 아트홀, 갤러리관, 까페 등의 설치를 추진함[18)]

❍ 광주소촌농공단지

– 113개 업체가 입주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소촌공단의 노동자를 위한 프로젝트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

– 총 사업비 20억원(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공단이 가진 장소적 가치와 컨테이너의 독특한 공간적 특성을 살려 미디어, 예술치유, 레지던시(예술가 입주시설) 사업 등을 추진[19)]

❍ 영월농공단지

–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농공단지 유휴시설에 근로자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작업을 추진하고, 박물관 고을 전문인 과정과 박물관 문화학교 등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콘텐츠와 문화예술공간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함[20)]

□ 2차 사업(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2차 사업)

❍ 시흥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 예술창작소 창·공은 시흥시민과 근로자들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예술창작쉼터이자 문화놀이터인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교육실, 연습실, 전시실, 공연실 등으로 구성됨[21)]

❍ 광명 폐자원 회수시설

– 국비 10억원을 지원해 버려진 유휴공간을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으로 조

18) 컬처인시흥(산업단지에 예술이 꿈틀꿈틀 '예술창작소 창·공', 2015년 2월 16일)
19) 한겨레(폐공장·공단에 '문화 숨결' 불어넣다, 2015년 4월 2일)
20) 강원일보([영월]농공단지의 깜짝 변신, 2014년 9월 26일)
21) 컬처인시흥(산업단지에 예술이 꿈틀꿈틀 '예술창작소 창·공', 2015년 2월 16일)

성하여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원함

- 광명시 자원회수 시설 일대를 업싸이클링 센터(upcycling center)로 개발하여 생산공간과 공연 및 전시 교육의 역할을 맡는 레지던시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임[22)]

❍ 부천 폐소각장

- 2015년 3월 31일부터 5월 9일까지 부천미래문화플랫폼 공간 아이디어 프로그램 '만지作 만지作, 조물樂조물樂'을 실시함
- 이 프로그램은 부천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도시재생과 공간디자인의 이론수업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토의와 해결방안을 모색함[23)]

❍ 옹진 (구)백령병원

- 총 사업비 20억원(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구)백령병원을 리모델링하고, 어린이 도서관, 주민 예술참여시설, 전시 공연장, 레지던시 등을 마련할 계획임
- 앞으로 5년 간 섬 전체를 평화, 예술 관련 시설로 확대해 백령도를 평화, 예술의 섬으로 만들 계획임[24)]

❍ 담양 폐양곡창고

- 폐창고(남송창고)를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로, 군과 담양문화재단은 12억원을 투입해 남송창고와 죽제품 가공공장을 함께 리모델링하여 문화카페, 아트숍, 예술창작 공간, 만남의 광장 등을 조성할 예정임[25)]

□ 추가 사업(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추가사업) 지원현황

❍ 경남 창원국가산단

22) 경기일보(광명시, '산업단지·폐 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최종선정, 2014년 4월 9일)
23) 부천타임즈(삼정동 소각장에서 '만지作 만지作, 조물樂조물樂', 2015년 3월 31일)
24) 인천인닷컴(백령도 (구)백령병원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 2014년 4월 3일)
25) 한겨레(폐공장·공단에 '문화 숨결' 불어넣다, 2015년 4월 2일)

- 총 사업비 20억원(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제3아파트형 공장에 위치한 노후된 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임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개방형 미니 도서관, 산업현장 등을 콘텐츠화한 스토리 창작터, 근로자와 콘텐츠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문화콘텐츠 공동 작업장, 입주 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음악 창작소 등을 설치할 계획임[26)]

❍ 전남 나주 폐잠사

- 70년대 잠업을 바탕으로 한 방적 산업의 중심이었던 잠사공장의 역사를 반영하여 나비센터를 조성하고, 문화 교육공간, 시민 커뮤니티 공간, 예술 체험 및 시민문화상품 제작 공간 및 시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임[27)]

3. 도시재생사업

□ 배경

❍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으로 근린 생활환경이 심화됨에 따라 전국의 도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5)

❍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2013.12.5.)하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

□ 사업목표

❍ 침체된 도심 등에 창조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상업 등의 활력을 불어넣어 지

26) 더리더(창원국가산단, 감성 넘치는 창조적 공간으로 '재탄생', 2014년 8월 17일)
27) 광주매일신문(수십년 문 닫은 공장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2015년 4월 28일)

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세수 확충 등에 기여함(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5)
- 주민공동체 중심의 지역일자리와 자생적 복지서비스를 확대함

❍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역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패키지화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함(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5)
- 도시재생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지원 중인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 사업과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을 연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국토연구원, 2015)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2013년에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

❍ 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의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지역(국토교통부보도자료, 2014)으로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됨
- 도시경제기반형은 국가핵심시설의 정비·개발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으로 경제 회복 효과를 파급시키기 위함(국토연구원, 2015)
- 근린재생형 선도지역은 생활여건이 열악한 근린주거지역,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생적 회복이 필요한 곳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도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함(국토연구원, 2015)

❍ 사업예산: 계획수립비(0.5~2억원), 사업비(60억원~250억원)를 국비로 지원

<표 4-8>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결과

유형		지자체		대상지역	사업구상(안)
도시 경제 기반형 (2)		부산	동구	초량 1,2,3,6동 (부산역 일대)	부산 북항-부산역-원도심을 연계한 창조경제(1인기업, 벤처기업 등) 지구 조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 1,2동, 우암동, 중앙동	폐공장 부지(연초제조창)을 활용한 공예·문화산업지구
근린 재생형	일반 규모 (6)	서울	종로구	숭인·창신 1,2,3동	뉴타운 사업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사업, 봉제공장(가내수공업) 특성화
		광주	동구	충장동, 동명동, 산수1동, 지산1동	아시아문화전당(舊전남도청) 주변 구도심 상권활성화
		전북	군산시	월명동, 해신동, 중앙동	군산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 문화지구 조성
		전남	목포시	목원동	유달산 주변 구도심 공폐가 활용 예술인마을 조성
		경북	영주시	영주 1,2동	40-50년대 형성된 근대시장(후생시장, 중앙시장)과 舊 철도역사 주변 재생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 성호동, 오동동	부림시장, 창동예술촌 중심의 문화예술 중심 도시재생
	소규모 (5)	대구	남구	대명 2·3·5동	공연소극장(100여개) 밀집거리 재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강원	태백시	통동	폐 철도역사, 구 탄광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소도시 재생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동, 문성동	빈건물을 활용한 청년 기반시설(기숙사, 동아리방, 스튜디오) 조성을 통한 활력창출
		충남	공주시	웅진동, 중학동, 옥룡동	백제왕도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 산성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전남	순천시	향동, 중앙동	노후주거지역 친환경마을 옥상녹화, 빗물활용 등) 만들기, 생태하천, 부읍성터 복원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

<표 4-9> 도시재생 선도지역 재정지원

(단위: 억원/개소)

구분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일반규모	소규모
특성		산단, 항만, 역세권 등 정비·개발 및 배후재생	쇠퇴 중심상가지역 및 근린주거지역 재생	
개수		2곳	6곳	5곳
국비 지원	계획비	2.5	0.9	0.5
	사업비	250	100	60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

❍ 사업기간: 2013년 ~ 2017년

❍ 지역의 급증하는 도시재생의 수요에 부응하여 도시경제기반형 5곳, 근린재생형 30곳을 '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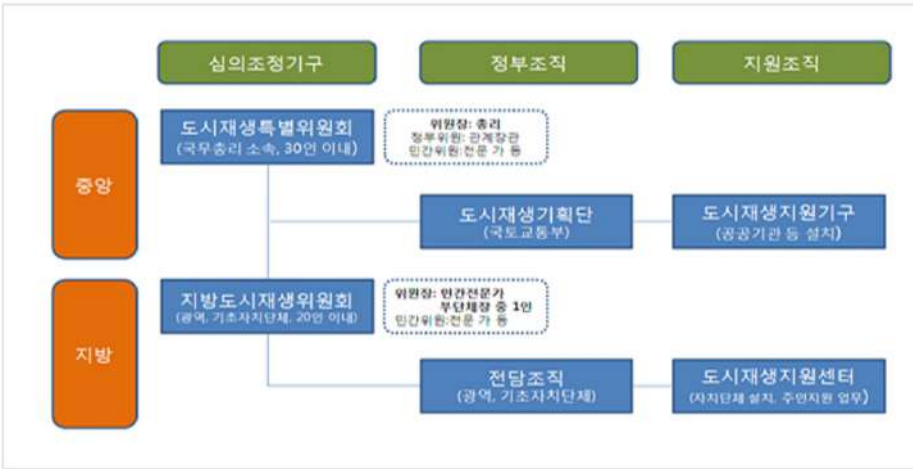
☐ 지원 현황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의 3개 전문기관과 함께 행정,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
- 도시재생 추진조직(중앙 조직은 의무, 지방조직은 필요시 설치)

※ 중앙조직: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 관계 장관 및 민간위원), 도시재생기획단(국토부에 설치), 도시재생지원기구(공공기관에 설치)

※ (지방조직)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공무원 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민·관 협업 조직, 주민주도 사업지원)

<그림 4-8> 도시재생 추진조직



자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28)]
- 주민은 전략계획수립권자(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에게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음
- 계획수립시 공청회를 통한 주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
-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주민 주도 재생계획수립 지원, 교육, 전문가 파견, 마을기업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함

제3절 근대산업유산 활용의 국내외 사례분석

1. 근대산업유산 활용의 해외사례

1) 영국 게이츠 헤드 발틱 현대미술관

❍ 게이츠헤드는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의 뉴캐슬과 타인강 사이에 위치한 인구 20만의 소도시임

❍ 공업도시로 성장한 게이츠헤드는 산업 쇠퇴와 함께 침체되었으나, 1990년에 폐공장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의 활력을 되찾음

28)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표 4-10> 게이츠헤드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위치	영국 잉글랜드 북동지역	
면적	142.35㎢	
인구	19만명(2005 기준)	
사업규모	1,668㎡(단일 건물)[29]	
주요특징	제분공장을 재활용하여 현대미술관으로 변경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구글지도검색(https://www.google.co.kr/maps)

❍ 게이츠헤드를 포함하여 영국 북부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을 회생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였고, 정부는 문화를 시의 비전과 전략으로 도입하였음(도시재생사업단, 2012)

❍ 게이츠헤드는 1986년에 시작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계기로 변화를 추진함(문화체육관광부,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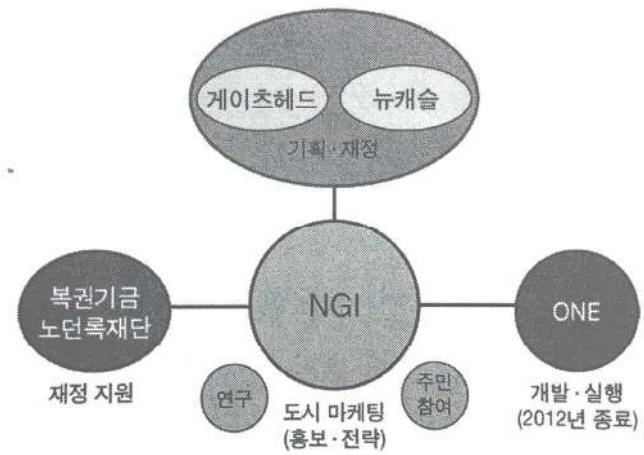
- 공공예술프로그램은 국내외 마케팅, 예술작품 지원, 공공예술과 주변환경의 조화를 유도하는 통합 개발 등을 지원함(원제무, 2012)
- 공공예술프로젝트의 일환인 북쪽의 천사와 1990년에 개최한 국제가든 페스티벌의 성공은 게이츠헤드 재생의 시발점이 됨
- 북쪽의 천사에서 시작된 공공예술프로젝트는 타인강변 문화사업 육성을 모토로, 밀레니엄 브릿지(2001년 개통), 발틱현대미술관(2002년 개관), 세이지뮤직센터(2003년 개관)로 이어지는 게이츠헤드 키(Gateshead quays) 개발로 이어짐

❍ 1990년대 초반에 시의회 주도 아래 뉴캐슬 게이츠헤드 기구(Newcastle Gateshead Initiative :NGI)와 원노스이스트(One North East: ONE) 등의 협업으로 게이츠헤드 사업을 추진함(도시재생사업단, 2012)

29) 정민주, 2013

- 문화를 통해 도시를 재생한다는 명분하에 체계적으로 뉴캐슬과 게이츠헤드의 마케팅을 총괄하기 위해 2000년에 NGI가 설립됨
- NGI의 업무체계는 게이츠헤드 의회, 뉴캐슬 의회, 복권기금, 노던록재단의 파트너십으로 구성됨
- ONE은 영국의 총 9개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vy:RDA) 가운데 영국 북부지역을 담당하기 위한 지역개발기관으로 게이츠헤드의 사업실행 기관임

<그림 4-9> 게이츠헤드 재생 프로젝트의 추진 조직도



자료: 도시재생사업단, 2012

❍ 발틱 현대미술관은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의 주도로 계획되었고, 샌디 네이른 등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프로그램과 공간에 대한 자문에 참여함(도시재생사업단, 2012)

- 발틱 현대미술관은 폐공장의 적·황색벽돌의 외부를 보존하고, 전시공간의 확보를 위해 기존건물에 5개의 층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외부의 형태를 상당부분 보존하여 개발함(정민주, 2013 재인용)

- 발틱 현대미술관은 레지던시 프로그램, 세이지 음악당과 연계한 아트프로그램, 음악학교, 음악 정보센터 등 주민중심 교육프로그램 실시(강동진, 2010)
-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아이디어 회의 등을 통해 문화산업의 네트워킹을 추진하고, 일반인을 위한 문화관련 창조산업 및 학생, 강사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함(강동진, 2010)

❍ 발틱 현대미술관은 관민의 노력으로 8년에 걸쳐 총 900억 예산 중 80%를 외부 국제로터리클럽과 유럽지역 발전기금 등으로 유치함(원제무, 2012)

<그림 4-10> 게이츠헤드: 개발 전과 후

제분소(개발 전)	현대미술관(개발 후)
	

자료: 발틱미술관 홈페이지(https://www.balticmill.com), 네이버 이미지검색

❍ 재생사업 결과, 발틱 현대미술관 개관 첫 해 1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평균 25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창조산업분야 종사자가 5만 8천명 이상으로 증가, 400개 신규 일자리 창출, 26억파운드 연매출을 달성하였음(원제무, 2012)

2) 일본 요코하마 아카렌카 소고(창고) 개조

- 요코하마는 인구 300만 이상의 항구도시로, 일본에서 도쿄 다음으로 두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도쿄 도시권의 위성도시로서의 성격을 가짐[30)]
- 요코하마는 디자인 모범도시이자 공공 디자인의 메카로 부상함(김영호, 2014)
- 요코하마시는 도쿄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지도 모를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1960년 대 말부터 종합적인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였고, 40여년 간의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1,000여개의 사업이 일관된 정책기조로 진행됨(원제무, 2012)
  - 요코하마만의 특징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공적, 민간사업을 해당지구 마다의 이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함
- 요코하마시는 1971년 일본 최초의 도시디자인 전문팀을 설치하여 활동함
  - 도시디자인 전문팀은 미래도시(미래의 항구), 개항 도시 요코하마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살리는 미나토미라이 21[31)] 재개발 등의 도시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함(김영호, 2014)

30) 위키백과 요코하마 검색(http://ko.wikipedia.org)
31) 미나토미라이 21지구는 요코하마시 중구와 서구에 걸쳐있는 해변 지역이다.

<표 4-11> 요코하마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위치	일본 혼슈 가나가와현	
면적	437.57㎢	
인구	약 343만명(2000년 기준)	
사업규모	14,000㎡(단일건물)[32]	
주요특징	항구창고를 다목적 문화예술공간으로 변경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구글 인구, 지도 검색(https://www.google.co.kr)

❍ 1992년에 아카렌카 창고건물이 '100년 역사의 상징'이라는 판단 아래, 이를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시작함(김영호, 2014)

- 아카렌가 소고는 '붉은 벽돌 건물'을 뜻하는 두개의 대형 창고로서 1911년과 1913년에 지어졌으며 70년대 이후로는 폐허처럼 방치되었던 건물을 관광 상품화함(강원발전연구원, 2009)

❍ 그 결과, 요코하마의 역사를 상징하는 아카렌가 창고와 미래를 상징하는 미나토미라이 21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복합공간을 탄생시켜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킴

❍ 아카렌카 소고 건물을 쇼핑몰, 식당가 등의 다목적 문화예술공간으로 개발하여 2002년에 개장함

❍ 아카렌카 소고는 일본각지의 산물과 서구문물이 들어오는 통로역할을 했던 요코하마의 역사를 바탕으로 공간을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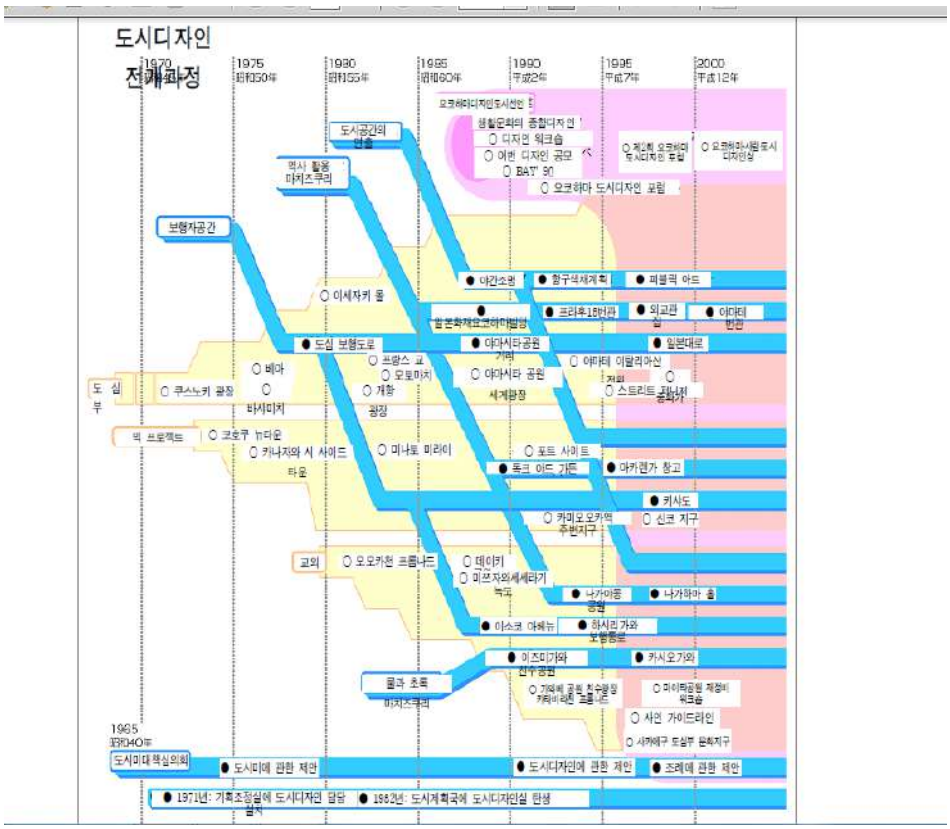
- 과거의 상선으로부터 동경역까지의 기찻길을 그대로 살려 공원길을 조성하고, 창고 내부를 개조해 레스토랑, 까페, 쇼핑몰을 조성함(유희정 외, 2013)

32) 강원발전연구원(2009)

- 1호관은 갤러리, 홀 등의 문화시설로 이용되고, 2호관은 라이브 레스토랑, 쇼핑센터 등으로 요코하마 관광산업의 한 거점으로 작용함(유희정 외, 2013)
- 1층에는 젊은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작품(주로 아이디어 상품군)을 판매하는 상점이 있고, 3층에는 온돌형 이색 까페인 '침대 까페'가 있음

❍ 재생사업 결과, 연간 4,000만 명이 방문하는 필수 관광코스로 성장함(김영호, 2014)

<그림 4-11> 요코하마 도시디자인 프로젝트



자료: 국토연구원, 2008

<그림 4-12> 아카렌카 창고: 개발 전과 후

항구 창고(개발 전)	아카렌카 창고와 미나토미나리 21(개발 후)
	

자료: 요코하마 아카렌카 홈페이지(http://www.yokohama-akarenga.jp)

3) 미국 뉴욕 SOHO 문화지구

- ❍ 뉴욕은 미국 북동부 뉴욕 주의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임
- ❍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 하나로 상업, 금융, 미디어 예술, 패션, 연구, 기술 등 많은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33]

<표 4-12> 뉴욕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위치	미국 뉴욕주	
면적	1213㎢	
인구	약 778만명(1960년 기준)[34]	
사업규모	170,000㎡(단지)[35]	
주요특징	주철공장창고단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변경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구글지도검색(https://www.google.co.kr/maps)

33) 위키백과 뉴욕 검색(http://ko.wikipedia.org)
34) 위키백과 뉴욕 검색(http://ko.wikipedia.org)
35) 정민주(2013)

❍ 1860년대에 소호지구의 주거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였고, 산업화의 수요에 따라 기존의 주택건물이 공장, 창고, 오피스 건물로 대체됨(윤현석, 2011)
  - 당시에 산업화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4~6층의 주철 건물이 빠른 공정, 저렴한 비용, 강도, 내부의 장식성 등으로 인해 대량으로 지어져 뉴욕의 고유한 건축스타일로 자리 잡음

❍ 1960년대 초 노화된 주철건물의 일부가 창고로 사용되거나 방치되면서, 이 공간이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함(윤현석, 2011)
  - 맨해튼 중심가라는 탁월한 근접성, 넓고 개조 가능한 내부 공간, 저렴한 임대비용 등이 적합한 창작 공간에 부합하였음

❍ 1970년대까지 소호 지구에 600여명의 예술가들이 불법으로 정착하였고, 군집형 예술인 창작 스튜디오단지가 만들어짐(유희정 외, 2013)

❍ 예술가들의 입주로 소호지구가 도시재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정부는 재개발지역에 불법 이주한 이들을 강제로 추방하려 함(윤현석, 2011)

❍ 예술가들은 스스로의 권리와 창작 공간 확보를 위해 시위활동과 예술작품 전시활동을 적극 추진함(윤현석, 2011)
  - 일부 민간 문화재보호인사 및 단체들이 예술가들의 활동을 후원함

❍ 1973년에 뉴욕시정부는 소호지구를 '산업유산 보호 및 활용지구'로 지정하여 주철건물들을 산업유산 보호대상으로 공식화하고 예술가들의 합법적 거주권을 인정함(윤현석, 2011)

❍ 1970년대부터 시행된 뉴욕시 정부의 도심지 문화산업 지원정책이 소호지구의 도시재생을 더욱 활성화시킴(윤현석, 2011)
  - 문화산업 지원 정책은 기존의 문화적 콘텐츠와 예술적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과 지역소비사회의 결합을 도모함
  - 예술가들의 불법 침거로 규정하였던 현행법을 수정하여 예술가들의 유입과 유치를 적극 도모하고, 저렴한 임대가격으로 지정된 산업유산보호

대상 건물에 합법적으로 입주하게 함

- 적극적인 외부투자를 유치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음식, 유람, 패션, 출판, 디자인 등의 신생 산업이 입주하게 됨

❍ 예술특구로서 패션, 디자인 등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복합문화 예술공간으로, 하루 150만명의 유동인구가 움직임(유희정 외, 2013)

- 복합문화 예술공간은 창작공간, 갤러리, 까페, 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됨

<그림 4-13> 소호지구: 개발 전과 후

주철공장창고단지(개발 전)	복합문화예술공간(개발 후)
	

자료: 구글 이미지 검색(www.google.co.kr)

4) 일본 도쿄 Yebisu Garden Place

❍ 도쿄는 일본 동쪽의 도쿄 만에 면하고 있는 도시로, 일본의 수도임

❍ 도쿄는 1984년에 예비스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재개발을 추진함

<표 4-13> 도쿄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위치	일본 남동부 도쿄만	
면적	2187.66㎢	
인구	약 816만명(1990년 기준)[36]	
사업규모	83,000㎡(단지)[37]	
주요특징	예비스타운을 복합단지로 변경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구글지도검색(https://www.google.co.kr/maps)

❍ 1889년에 세워진 맥주 양조장(삿포로 맥주회사)이 예비스지구 정비계획에 의해 1988년에 이전하였고, 1991년에 폐쇄된 맥주공장을 활용한 토지재개발 사업이 추진됨(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5)

❍ 예비스 가든 플레이스의 사업주체는 삿포로 맥주주식회사로 관리운영은 예비스가든플레이스 주식회사임(인천발전연구원, 2011)

- 1991년~1994년에 걸쳐 사업비 약 2,950억원을 투입하여 예비스 가든 플레이스를 조성함

❍ 예비스 가든 플레이스는 도시 기능의 갱신, 도시주택의 공급, 서구의 정원도시 건설 등을 목표로 한 대규모 단지식 복합개발임(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5)

- 주거, 상업, 업무, 숙박, 문화오락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어 있고, 전체 부지면적의 60%는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함
- 주차 공간을 완전 지하화하여 보차분리를 실현하였고,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행축에 상업시설, 음식점, 휴게시설 등이 집적한 일련의 광장을 조성하며 중심 광장에는 지붕을 만들어 날씨에 관계없이 이용

36) 위키백과 Largest cities in Japan by population by decade 검색(http://ko.wikipedia.org)
37) 인천발전연구원(2011)

❍ 백화점, 레스토랑, 호텔, 사무실, 주거지역, 사진미술관, 맥주박물관 등이 조성됨(정민주, 2013)

– 맥주박물관은 1890년대부터 양조해온 예비스 맥주 브랜드의 양조장을 기념하고, 일본 및 세계의 맥주 양조 과학과 역사를 전시함[38]

<그림 4-14> 예비스 가든 플레이스: 개발 전과 후

1938년 에비스타운(개발 전)	복합단지(개발 후)
	

자료: http://livingtokyo.net/uncategorized/2010-07-15/history-of-ebisu-beer-gardens-in-tokyo, 구글 이미지 검색(www.google.co.kr)

5) 미국 Chelsea Market

❍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자, 세계적인 대도시임

❍ 과거 뉴욕은 범죄, 도시환경 악화 등으로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1994년에 뉴욕시장은 도시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적극 도입[39]하였고, 현재는 소호와 함께 뉴욕의 대표적인 예술의 거리로 자리 잡음(김영호, 2014)

38) http://www.japan-guide.com/e/e3028.html

39) 헤럴드 경제([Re-imagine, 디자인으로...] 도시재생, 우리 삶을 바꾸는 패러다임, 2014년 10, 21일)

<표 4-14> 뉴욕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위치	미국 뉴욕주	
면적	1213㎢	
인구	약 732만명(1990년 기준)	
사업규모	269,419㎡(단지)[40]	
주요특징	과자공장을 복합용도공간으로 변경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구글 인구, 지도 검색(https://www.google.co.kr)

❍ 뉴욕은 도시재생을 위해 디자인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특히 창의성을 극대화한 민간 주도의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함[41]
  – 첼시마켓은 민간 주도의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의 대표적 사례임

❍ 첼시마켓은 1890년대에 '오레오'쿠키로 유명한 비스킷 회사 나비스코(Nabisco)가 지은 공장 28개의 벽을 터 만든 지구로, 오래된 공장 외관을 그대로 살리고 현대식 사무 건물을 접목하여 성공시킨 재생 프로젝트임(원제무, 2012)

❍ 1958년 나비스코가 공장을 이전한 뒤 약 40년 간 폐허 상태로 방치되었다가 1990년대 초반 어윈 코헨(Cohen)이라는 개발업자가 매입하여, 식품업체가 많은 지역 특성과 건물 역사를 그대로 살린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함(원제무, 2012)
  – 첼시마켓은 낡은 천장, 낡은 벽돌, 배수관 등의 내부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정민주, 2013), 특이한 모양의 탁자와 의자, 매력 있는 휴식공간 등으로 마켓전체를 갤러리화하였음

❍ 1996년에 개장한 첼시마켓은 갤러리, 패션샵, 빵가게, 꽃집 등의 시장이 들어선 복합용도의 거리이자 식자재 도·소매점, 식당, 클럽, 방송국 등이 조성

40) 정민주(2013)
41) 헤럴드 경제([Re-imagine, 디자인으로...] 도시재생, 우리 삶을 바꾸는 패러다임, 2014년 10, 21일)

된 공간임(원제무, 2012)

- 전통 시장 상인들이 입점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함(김영호, 2014)
- 현재 첼시마켓에는 최상의 품질로 입소문난 제과점 에이미 브레드, 랍스터 플레이스 등의 식당과 가게가 입점해 있고, 사무빌딩에는 방송사 푸드네트워크, 뉴욕원, 메이저리그(MLB)본사 등이 자리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오늘날 첼시마켓은 33개의 소매상과 20여개의 입주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요리와 도시재생의 세계적 아이콘으로 부상하였고, 매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방문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2012년에 첼시마켓의 소유가 뉴욕시로 넘어가면서 약 3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할 것으로 예상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그림 4-15> 첼시마켓: 개발 전과 후

나비스코 공장(개발 전)	복합용도 공간(개발 후)
	

자료: http://www.wanderingnotlost.org/2011/09/chelsea-market-nyc-a-whole-lotta-food, 구글 이미지 검색(www.google.co.kr)

6) 이탈리아 밀라노 조나 토르토나

❍ 밀라노는 이탈리아의 북부의 최대 도시로, 2009년 기준으로 130만명이 거주하고, 광역도시권 내에는 337만명이 거주하여 이탈리아 최대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음[42]

❍ 밀라노 인구는 1973년 170만명을 기점으로 이후 30여 년 동안 약 3분의 1에 이르는 인구가 밀라노 광역권으로 이주해 나갔고, 동시에 외국인 유입은 꾸준히 늘어남(도시재생사업단, 2012)

❍ 밀라노 남부에 위치한 조나 토르토나는 버려진 밀라노 외곽에 있던 공장과 창고를 활용한 시 외곽 지역의 성공적 재생사례로 꼽힘(도시재생사업단, 2012)

<표 4-15> 밀라노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위치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면적	182㎢	
인구	약 126만명(2001년 기준)	
사업규모	-	
주요특징	공장과 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함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구글 인구, 지도 검색(https://www.google.co.kr)

❍ 1960년대 말부터 산업구조의 변화와 에너지 위기 발생으로 공장의 외부 이주가 시작되면서, 조나 토르토나는 거대한 산업유휴시설 밀집지역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됨(도시재생사업단, 2012)

❍ 방치된 유휴공간을 몇몇 예술가가 작업실로 활용하기 시작하여 자발적 문화를 형성하면서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변화됨(도시재생사업단, 2012)

- 1983년에 플라비오 루키니와 파브리지오 페리 두 사진작가의 프로젝트 '수퍼스투디오'에 의해 시작되었고, 지역의 유휴공장들이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빠르게 전환됨
- 유휴시설물들의 규모가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고 개인들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히' 작은 규모로, 폭넓은 주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

42) 위키백과 밀라노 검색(http://ko.wikipedia.org)

- 밀라노 안의 여타 유휴산업시설물 집적 지역과 비교하여 시내 중심부와 가까워 상호 교류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저렴한 지가의 이점에 따라 처음에는 비주류 작가들이 입주하였으나 점차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지면서 주류 작가들도 참여하여, 오늘날에는 밀라노 디자인을 대표하는 그룹의 본사와 여러 회사들이 입주한 디자인의 메카로 독자적인 역할을 함(김연진, 2009)

❍ 지역재생을 돕는 문화 프로그램인 푸오리살로네를 통해 지역 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음(도시재생사업단, 2012)
- 푸오리살로네는 매년 개최되는 가구박람회가 열리는 기간에 시내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행사임
- 푸오리살로네는 전 세계의 유명, 무명 디자이너와 디자인업체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생들, 신재료, 공방, 기술개발 연구실, 전시장, 잡지, 출판사 등 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가 참여함

❍ 2000년대에 들어 문화 프로그램인 푸오리살로네와 지역 정체성을 연결시키고자 하였고, 그 결과 2002년에 멀티미디어 마케팅 그룹인 디자인파트너스 그룹의 레카피토 밀라네세가 주축이 되어 하나의 지역 브랜드인 '조나 토르토나 디자인'이 만들어짐(도시재생사업단, 2012)
- 조나 토르토나 디자인은 대내적으로 지역 로고, 행사 안내판 및 방문 여정 조성 등을 통해 조나 토르토나의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박람회장 셔틀버스 운행, 지역 가이드북 제작 등을 통해 지역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홍보함

❍ 조나 토르토나를 대표하는 행사인 조나 토르토나 디자인은 2006년에는 6만 명 관람객, 194개 회사가 참여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7년부터는 전담 회사를 두고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함(김연진, 2009)

❍ 최근에는 이 지역은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지나친 상업화에 따른 지역 정체성의 비판을 받지만, 조나 토르토나의 핵심은 여전히 작가들의 창작 스튜디오에 있음(김연진, 2009)

<그림 4-16> 조나 토르토나: 개발 전과 후

제강공장창고단지(개발 전)	복합문화예술공간(개발 후)
	

자료: 유희정 외, 2013, 구글 이미지 검색(www.google.co.kr)

7) 중국 베이징 따산즈 798 예술특구

❍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로 허베이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쪽으로 텐진시와 접하는 대도시임

❍ 2005년에 중국정부는 베이징의 무질서한 발전을 멈추는 계획을 승인하고[43], 재생사업에 적극 지원함

<표 4-16> 베이징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위치	중국 허베이성 중앙부	
면적	16,411㎢	
인구	약 1,151만명(2,000년 기준)	
사업규모	640,000㎡(단지)[44]	
주요특징	군수공장에서 예술특구로 변경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구글 인구, 지도 검색(https://www.google.co.kr)

43) 위키백과 베이징 검색(http://ko.wikipedia.org)
44) 안태선, 2010

❍ 798 예술특구는 1970년대에 베이징의 근대화를 이끌면서 군수품과 면직물을 주로 생산하는 군수공장이었음(김연진, 2009)

❍ 1978년에 개혁 개방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공장의 경쟁력 약화와 베이징의 정비계획을 계기로 공장의 대부분이 시 외곽으로 옮겨지고, 이후 빈 공장이 늘어나면서 황폐화됨(김연진, 2009)

❍ 1995년에 중국 고등미술학교인 중국미술학원이 인근으로 옮겨오면서 예술가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김연진, 2009),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 창작촌이 조성되었음(안태선, 2010)

❍ 798 예술특구는 2003년에 그림, 영상, 행위예술, 음악 등의 예술가들의 활동을 알리는 예술제를 개최함(안태선, 2010)

❍ 2007년에 베이징 시는 해당 지역을 6대 문화창의 산업특구로 지정하여, 매년 개최되는 '798아트페스티벌'을 지원함(안태선, 2010)
  – 베이징 시는 798예술특구에 1억 위엔(약 600억원) 이상을 지원하여 예술지구의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데 힘씀

❍ 현재는 예술가들만의 공간이 아닌 중국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부각되었고, 하루 150만명의 유동인구가 움직임(유희정 외, 2013)

<그림 4-17> 따산즈 798지구: 개발 전과 후

군수공장(개발 전)	예술특구(개발 후)
	

자료: 유희정 외, 2013, 구글 이미지 검색(www.google.co.kr)

8) 홍콩 웨스틴마켓

❍ 홍콩은 중국 광둥성 남동부에 위치한 해안도시임

❍ 홍콩은 본래부터 개발 가능 토지가 부족하여 1800년대 중반부터 인구과밀, 열악한 공중보건 등에 대한 우려로, 도시 내 각종 건축물과 토지정비에 관한 법 제정을 시작하였음(도시재생사업단, 2012)

- 특히, 1997년 정부는 쇠퇴한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 및 계획체계를 수립함

<표 4-17> 홍콩의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위치	중국 남동부	
면적	1,104㎢	
인구	약 671만명(2001년 기준)	
사업규모	-	
주요특징	시장의 재활성화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구글 인구, 지도 검색(https://www.google.co.kr)

❍ 급속한 산업화와 현대화를 겪으면서 시장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점차 잃어가던 웨스턴 마켓은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새로운 역사 문화의 아이콘이 됨(도시재생사업단, 2012)

- 웨스턴 마켓은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건축물로, 1989년에 시의회가 현대식 시장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면서 웨스턴마켓에 있던 상점의 대부분이 문을 닫고 철거 위기에 놓이게 됨
- 1990년에 홍콩 정부가 100년이 넘는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웨스턴마켓 건물을 법정기념물로 지정하면서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됨
- 1991년에 토지개발공사(현, 도시재생국)가 웨스턴마켓 건물을 개·보수

하여 전통공예 및 예술품 판매상가로 바꿈

❍ 2001년에 설립된 도시재생국은 웨스턴마켓을 지역 재생사업의 중심으로 하여 주변지역인 성완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성완퐁 사업을 추진함(도시재생사업단, 2012)

- 도시재생국의 설립과 함께 「도시재생국에관한법령」을 제정하고, 재생사업의 지침서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함
- 성완퐁 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약 39억원으로, 도시재생국과 도로교통부, 내무부, 중서구 의회가 공동으로 분담함

❍ 2002년에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심한 성완지역 일대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성완재활성화사업을 추진함(도시재생사업단, 2012)

- 성완재활성화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웨스턴마켓을 중심으로 한 성완퐁 사업임

❍ 해당 사업을 통해 웨스턴마켓 주변에 위치한 전통음식점과 상가가 활력을 되찾고, 관광객들에게 알려지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됨(도시재생사업단, 2012)

<그림 4-18> 홍콩 웨스턴 마켓: 개발 전과 후

시장(개발 전)	시장(개발 후)
	

자료: 도시재생사업단, 2012, 구글 이미지 검색(www.google.co.kr)

2. 근대산업유산 활용의 국내사례

1) 서울 영등포공원

❍ 개요[45)]
-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26
- 규모: 61,544㎡
- 조성일: 1998년

❍ 1933년부터 1997년 동안 맥주를 생산해 온 OB맥주(주)의 최초 공장이 97년에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함[46)]

❍ 서울시는 공원 녹지 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영등포공원을 조성함[47)]

❍ 맥주제조에 이용되던 담금솥을 영등포공원의 랜드마크로 남겨두고, 주요 시설로 원형광장, 벽천, 담금솥, 건강지압보도, 잔디광장, 자연학습정원 등을 조성함(강원발전연구원, 2009)

❍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노후시설을 정비, 장미원 조성 등의 리모델링을 추진함[48)]
- 17년만에 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는 13억원의 사업비 지원

<그림 4-19> 영등포 지역: 개발 전과 후

공장(개발 전)	공원(개발 후)
	

자료: 구글 이미지 검색(www.google.co.kr)

45) 서울의 공원(http://parks.seoul.go.kr)
46) 서울의 공원(http://parks.seoul.go.kr)
47) 서울의 공원(http://parks.seoul.go.kr)
48) 매일일보(영등포구, 영등포공원 17년 묵은 때 벗고 새단장, 2015년 4월 29일)

2) 대구 KT&G 재활용

❍ 개요[49)]
-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2길 31-12
- 규모: 12,150㎡(지하 1층 ~ 지상5층)
- 개관일: 2009년

❍ 1909년부터 1999년까지 연초제조장 창고로 사용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작공간을 조성하였음

❍ 2008년에 대구문화창조발전소(현 대구예술발전소)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짐[50)]

❍ 200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에 의해 추진되었고 총 사업비 160억원(국비 80, 시비 80)을 지원받음[51)]

❍ 대구예술발전소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의 규모로, 창작Cafe, Art-shop, 예술자료관, 공연장, 강당, 예술 창작실 등으로 재활용됨(강원발전연구원, 2009)

❍ 대구예술발전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텐토픽 프로젝트, 만권당프로젝트 등이 있음[52)]
- 텐토픽프로젝트(Ten-Topic Project)는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개별 전시프로그램, 시민참여프로그램, 장르 간 융합을 위한 합동 프로그램, 입주 작가 및 관람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됨
- 텐토픽프로젝트는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입주 예술가를 선정하여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예술가 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함

49) 대구예술발전소(http://www.daeguartfactory.kr)
50) 대구예술발전소(http://www.daeguartfactory.kr)
51) 매일일보('예술 메카' 대구창조문화발전소 내달 착공 2011년 01월 17일)
52) 대구예술발전소(http://www.daeguartfactory.kr)

– 만권당 프로젝트는 지역예술가와 시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 참여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강좌, 북라운지, 특별공연 등을 제공함

❍ 대구예술발전소는 대구문화예술아카이브를 운영함[53]

– 대구문화예술아카이브는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문화예술작품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시민과 사용자들에게 체계화된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그림 4-20> 대구 텐토픽 프로젝트: 개발 전과 후

(개발 전)	(개발 후)
	

자료: 대구예술발전소 홈페이지(http://www.daeguartfactory.kr)

3) 서울 문래예술단지

❍ 개요[54]

–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30번지

– 규모: 2,820㎡(지하 1층 ~ 지상4층)

– 조성일: 2010년

❍ 과거 철재상가로 이용되었던 건물에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창작공간을 형성한 자생적 예술단지임

–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영등포 일대에 대규모 공장의 배

53) 대구예술발전소(http://www.daeguartfactory.kr)

54) 서울문화재단(http://www.sfac.or.kr)

후 기능을 하는 소규모 공장, 특히 철재상가가 밀집하였음(김연진, 2009)

- 1990년대부터 철강산업이 쇠퇴하고 제조업 공동화 현상의 가속화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문래동 철재상가가 쇠락하였음(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 2001년부터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쇠락한 문래동의 유휴공간을 창작 스튜디오로 활용하기 시작함(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 2007년 서울시의 지원 하에 거리 축제인 '경계 없는 예술프로젝트'를 개최하고, 같은 해에 예술가들의 연합축제인 '물레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함(정희선, 김희순, 2011)

- 단순히 작업실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요한 문화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드러냄
- 물레아트 페스티벌은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표현하는 국내외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전시, 영화 상영, 공연, 문학행사, 학술행사, 해외교류 등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축제로 2007년 이후 매년 철공소 거리에서 개최되고 있음

❍ 문래동 입주작가들은 문래예술공단(2007년에 결성), 문래 비주얼 아티스트 커뮤니티(2008년에 결성) 등의 공동체를 만들어,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통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정희선, 김희순, 2011)

❍ 서울시는 '창의문화도시' 과제 가운데 하나인 유휴시설의 창작공간 조성사업에 의해 2010년 문래예술공장을 마련함(정희선, 김희순, 2011)

- 문래예술공장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함[55]

❍ 스튜디오M30(공동작업장) 1실, 박스씨어터 1실, 포켓갤러리 1실, 녹음실 1실, 영상편집실 1실, 예술가호스텔 9실, 세미나실 1실, 회의실 1실, 운영사무실 1실 등으로 구성됨[56]

55) 서울문화재단(http://www.sfac.or.kr)
56) 서울문화재단(http://www.sfac.or.kr)

❍ 문래 예술단지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지역 예술생태계 역량강화 사업 MEET, 문래창작촌 커뮤니티 및 프로모션 사업, 예술가지원 프로젝트 MAP(Mullae Arts Plus),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이 있음[57]

- 지역 예술생태계 역량강화사업 MEET는 문래창작촌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구성원의 창작 역량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임
- 문래창작촌 커뮤니티 및 프로모션 사업은 구성원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문화 커뮤니티 활동과 홍보 프로모션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활동의 자생력과 지속가능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예술가지원 프로젝트 MAP은 잠재력 있는 예술가의 성장을 도모하는 장르특화 예술가 지원 프로젝트임

❍ 그 외 상시 프로그램으로 기타 강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58]

<그림 4-21> 서울 문래예술공장: 개발 전과 후

(개발 전)	(개발 후)
	

자료: 구글 이미지 검색(www.google.co.kr)

57) 서울문화재단(http://www.sfac.or.kr)
58) 서울문화재단(http://www.sfac.or.kr)

4) 서울 금천예술공장

❍ 개요[59]

- 위치: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5길 57
- 규모: 2,358㎡(지하 1층 ~ 지상3층, 부속창고)
- 조성일: 2009년

❍ 1978년에 전화기 코일 생산을 시작으로 1991년에는 인쇄공장으로 활용되었던 공장건물을 2009년에 예술공장으로 조성함(정희선, 김희순, 2011)

- 인쇄공장이 2008년에 파주 출판단지로 이전하면서 빈 공장이 되었고, 인쇄공장의 특성상 천장이 높고 공간이 넓어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적합하였음(오민근, 서진영, 2010)
- 예술공장은 인쇄 공장이었던 건물의 역사성을 반영하고, 예술 창작활동이 지역 생산성에 보탬이 되는 에너지 공급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장'이라는 이름을 붙임(오민근, 서진영, 2010)

❍ 2009년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의 컬처노믹스 사업의 일환으로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시각예술 전문 창작공간을 조성·운영함[60]

- 서울문화재단은 매년 1회 국제 공모를 통해 국내·외 시각예술분야의 예술가들을 선발함
- 선정된 입주 작가는 매월 15일 이상 공간에 거주해야 하고, 공간 사용에 대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부여하는 장치로 약간의 공간사용료를 내야함

❍ 금천예술공장은 레지던스 스튜디오 19개실, 호스텔 5개실, 주민 창작실 2개실, 공동 작업실, 공연 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음(오민근, 서진영, 2010)

❍ 금천예술공장의 주요프로그램으로 오픈 스튜디오,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 국제심포지엄 등이 있음[61]

59) 서울문화재단(http://www.sfac.or.kr)
60) 서울문화재단(http://www.sfac.or.kr)
61) 서울문화재단(http://www.sfac.or.kr)

- 오픈 스튜디오는 입주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을 일 년에 한번 공개하는 행사임
- 다빈치 아이디어는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공모를 통해 '사업화'를 전제로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산업체 후원, 기술자문, 제작비 지원 및 완성품 개발을 지원함
- 국제심포지엄은 문화예술의 국제적 담론과 현안을 소개, 논의하는 지적 교류의 장임

❍ 그 외 예술재능나누기 프로그램, 전문가지원 프로그램, 해외 예술가 교환 프로그램, 커뮤니티&리서치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62)]

❍ 현재까지 세계 25개국 145명의 시각 예술가들이 입주하여 전시, 학생·주민과 함께 하는 워크숍, 스튜디오 오픈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함[63)]

<그림 4-22> 서울 금천예술공장: 개발 전과 후

(개발 전)	(개발 후)
	

자료: 구글 이미지 검색(www.google.co.kr)

5) 안양 석수시장

❍ 쇠퇴해가던 시장에 예술단체가 입주하여 시장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을 형성함

62) 서울문화재단(http://www.sfac.or.kr)
63) 서울문화재단(http://www.sfac.or.kr)

❍ 석수시장은 밀집된 안양 중앙시장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계획된 전통시장으로, 처음부터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반만 존재하는 공간으로 남았고, 대형마트에 밀려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음(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 2007년에 안양 석수동 전통시장 빈 점포에 예술단체 스톤앤워터의 석수시장프로젝트를 통해 열 명의 예술가가 입주함(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 스톤앤워터는 생활 속의 문화예술, 지역미술 운동, 공공미술, 문화예술 운동 등의 활동을 벌이는 예술단체임
- 스톤앤워터는 개관 이래 지역이 가진 공공성, 지역성, 생태성에 초점을 두고 삶과 예술이 조우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 대표 프로젝트로 리빙퍼니처(2002), 구 안양경찰서 유치장을 활용한 리바이벌(2003), 삼덕제지폐공장과 안양천을 연결한 안양천프로젝트 -flow(2004), 석수시장프로젝트(2005~2007) 등이 있음[64]

❍ 스톤앤워터는 AFI(국제작가포럼)와 경기문화재단 공공미술지원사업을 통해 석수시장프로젝트를 추진함[65]
- 석수시장프로젝트는 국제레지던스 프로젝트로 국내외 공공예술 작가들을 공모하여 선정된 10명의 작가들에게 작업실로 상가를 제공하고 소액의 작업비를 지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 석수시장프로젝트는 게릴라처럼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공공미술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에 충분히 머물며 지역 주민과 생활하면서 지역의 공공성을 흡수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미술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됨

❍ 석수시장프로젝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재정의 일부를 지원을 받았으나, 많은 부분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을 통해 추진됨(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64) 4회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https://apap.or.kr/ko/archive/entities/90)
65) 오마이뉴스(2007 석수시장 프로젝트 공모합니다, 2007년 5월 7일)

❍ 석수시장프로젝트를 통해 사무실, 전시공간, 석수광장, 창작스튜디오, 공동스튜디오, 옥상정원, 리자드 까페 등이 조성됨

<그림 4-23> 석수시장 내 스톤앤워터



자료: 경기문화포털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검색(http://www.ggcf.or.kr)

<그림 4-24> 안양 석수시장: 개발 전과 후

(개발 전)	(개발 후)
	

자료: 구글 이미지 검색(www.google.co.kr)

제4절 근대산업유산의 현대적 활용방안

1. 기본방향

□ 근대유산의 성격인 유휴공간의 보존과 활용 조화

❍ 유휴공간 중에서 근대문화유산의 성격을 갖는 자원은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통해 미래세대에 유산의 가치를 창조적으로 계승

–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근대유산을 단지 과거의 유물로만 보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문화창조의 밑거름이 되어 미래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근대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 보존과 개발의 가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정립할 필요

– 문화유산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국민적 자산이고 역사의 징표이며, 미래의 문화 번영의 기반이기 때문에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존의 당위성이 있음

-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의 권리는 현 시대와 다음 세대의 권리이고 한번 파괴되거나 멸실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존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함할 것임. 따라서 개발과 관련

❍ 1972년 유네스코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내적 보호에 관한 권고'에서 '보존하면서 개발한다'는 원칙을 천명

- 보존하면서 개발한다는 원칙은 개발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의 한계 원칙으로서 지속가능성을 전제하는 개발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
- 근대 혹은 당대의 사람들이 만들어 사용하다 원래의 용도와 기능이 사라져 방치되고 있는 낡은 유휴공간을 고쳐 나가면서 새로운 삶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성에 부합(김성진, 2013 : 113-114)

□ 근대유산의 정체성을 활용한 지역개발 동력 창출

❍ 근대유산이 갖고 있는 역사적 상징, 이미지와 근대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현재적 특성을 결합하여 해당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활성화의 동력을 창출

- 근대유산이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보존하거나 역사적 스토리를 활용하여 지역과 무관한 지역개발 방향을 이식시키는 하향적 지역개발 접근을 지양

❍ 해당 지역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근대유산을 통하여 새롭게 재조명하여 지역의 고유성에 기반하여 대안적 지역개발방식을 추진하는 데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뉴욕의 첼시마켓의 경우 과거 나비스코 공장이었던 건물이 40년간 방치된 건물을 건물의 역사를 그대로 살림으로써 문화적 가치를 높였으며 또한 식품업체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갤러리, 패션샵, 빵가게, 꽃집 등의 복합 용도의 시장으로 조성한 사례임

– 첼시마켓처럼 근대산업유산을 보존하면서 식품가거리라는 지역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근대산업유산과 정체성의 조화를 통하여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임

□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규모의 지역활성화 추구

❍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하는 방식은 상업이냐 공업이냐 등의 활용 기능 차원에서 다양할 수도 있으나, 근대산업유산을 이용한 지역활성화 규모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음

❍ 근대산업유산 활용에 있어서 근대산업유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리노베이션하는 등 재활용함으로써 생기는 직접적인 파급효과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

–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하는 해외 사례를 볼 경우, 초기에는 노후한 건축물 개보수에 한정되었다가 점차 공공이나 민간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근대산업유산을 활용 목적은 우선적으로 산업유산을 리노베이션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활성화가 있을 수 있으며, 또 다른 목적으로는 산업유산과 주변 지역을 '연계개발'함으로써 포괄적인 지역활성화를 노릴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중국 베이징 따산즈 798예술특구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군수건물이 이전한 지역에 중국미술학원이 이전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화창작촉진 조성되어, 복수 건물에 한정되는 지역활성화가 아니라 지구의 활성화가 도모되었음

– 한편, 홍콩 웨스턴마켓은 홍콩정부가 웨스턴마켓건물을 법정기념물로 지정하면서 개보수를 하는 동시에 2001년에 웨스턴마켓을 지역재생사업의 거점으로 상정하면서 주변 지역인 성완 지역과의 연계개발을 도모하는 성완풍 사업을 추진하였음

2. 활용 프로그램 개발

□ 전시공간형

- ❍ 전시공간형은 기존 산업근대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지역 외부로부터의 관광객을 유입시킴으로써 해당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유형
- ❍ 영국의 게이츠해드 사례는 폐공장과 같은 노후화된 건물의 건축학적, 역사적 가치를 반영하여 복원하고 박물관으로 개관함으로써 시민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음
- ❍ 전시공간형은 특정 유형을 전시물을 전시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신규 통행인구를 증가시키고 이들 관광객을 지역 소득과 연결시키는 형태라 할 수 있음
- ❍ 따라서 전시공간형으로 복원될 근대산업유산은 미학적, 역사적 가치를 띄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문화복합공간형

- ❍ 문화복합공간형은 근대산업유산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유형으로, 근대산업유산의 노후화된 건축물을 개보수하고 해당 구조물들에 다양한 문화적 기능을 투입시킴으로써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형태임
- ❍ 문화복합공간형에는 다양한 문화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물과 지구의 기능을 분할 배치함으로써 다음의 기능을 포함시켜야 함
  - 문화와 관련된 창작 공간
  - 창작 및 체험 프로그램
  - 생산된 문화적 창조물의 관람 및 전시 공간
  - 문화 생산자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교류의 공간(카페, 갤러리 등)
  - 새로운 아이템과 창작물의 판매공간

❍ 예를 들어, 서울 문래 예술창작촌, 뉴욕의 소호문화지구, 일본의 아카렌카 창고 재활용 사례가 문화복합공간형 개발에 해당됨

❍ 문화복합공간형 건물의 경우에는 문화전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새로운 문화적 생산을 수행하는 창작 기능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는 건축물 및 지구 개발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일본 아카렌카 소고 건물은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 문물이 들어오는 통로역할을 했던 요코하마의 역사를 반영하여 과거 상선과 기찻길을 그대로 살려 공원길을 조성
- 또한 아카렌카 소고 건물 중 1호관은 갤러리, 홀 등의 문화시설로, 2호관은 라이브 레스토랑, 쇼핑센터 등으로 개발되었으며, 1층에 젊은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입정해 있음

❍ 문화복합공간형은 창작 기능을 수행하는 예술가들의 집합적 장소이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하여 관광거점을 구축하고자 할 때 적합한 유형이라 할 수 있음

□ 문화 상권공간형

❍ 문화 상권공간형은 기존의 폐공장이나 폐상가들이 존재하면서 주변에 상권이나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적합한 유형

❍ 문화 상권공간형은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을 재활성화사거나 새로운 상권을 개발하기 위하여 근대산업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국 첼시마켓은 오레오쿠키로 유명한 나비스코 공장을 재활용한 사례로, 지역에 식품업체가 많은 특성을 살려 전통시장, 제과점, 식당, 가게 등이 입접하는 상가로 재활용하였음
- 재활용할 때 근대산업유산의 문화적 매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낡

은 천장, 벽돌, 배수관 등의 내부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특이한 모양의 탁자와 매력 있는 휴식공간 등을 재배치하였음

- 그에 따라 첼시마켓에서는 33개의 소매상과 관련 식품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음식과 요리의 아이콘으로 부상하면서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있음

❍ 문화 상권공간형의 경우에 일반적인 상권공간과 차별적인 경쟁력이 근대산업유산의 문화적 매력에 달려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첼시마켓이 이전공장의 오래된 건축 양식을 활용하였다면 안양 석수시장은 쇠퇴해가는 전통시장 내에 리자드 까페, 옥상정원, 석수광장, 전시공간 등을 조성함으로써 전통시장 내에 현대적인 문화적 매력을 추가하였음

□ 공원형

❍ 공원형은 근대산업유산이 갖고 있는 건축물과 넓은 부지를 전면적으로 개보수하여 지역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공원형은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도모한다기 보다는, 쇠퇴한 공장 지역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안 좋은 이미지에서 시민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개선하는 간접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

❍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맥주회사인 OB맥주가 있던 곳을 재활용한 사례로, 영등포 지역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의 이미지 변신하는 데에 일조하였음

- 근대산업유산의 하나인 맥주공장에서 이용되던 담금솥은 그대로 영등포공원의 랜드마크로 남겨두고, 그 외 다른 공장시설들을 공원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일반적인 공원과 차별화하였음

❍ 공원형은 근대산업유산을 이용하여 지역의 이미지 변신을 도모하는 사례라

할 수 있으며, 근대산업유산이 여러 다양한 비경제적 기능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일례라 할 수 있음

3. 정부의 제도개선 및 지원시책

1) 근대산업유산 현황관리체계(DB) 구축

- ❍ 지금까지 문화부 등 중앙부처의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산발적으로 근대산업유산이 발굴되고 복원노력이 있어왔음
- ❍ 산발적인 조사시스템으로 인하여 지역 내에서 관심을 갖는 전문가나 주민이 없거나 건축물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정책적 관심을 받지 않고 사라지고 있는 실정임
- ❍ 또한, 비록 근대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역 내에서 인정받더라도 단순히 역사적 건축물로 치부되어 그 지역개발적 가치를 찾지 못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사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따라서, 근대산업유산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해당 근대산업유산의 정체성에 기반한 활용가치라는 관점에서 조사되고 자료가 축적되고 공개될 필요가 있음

2) 근대산업유산의 복원사업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

- ❍ 근대산업유산이 건축적인 가치나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가치에 따라 복원을 위한 사업이 차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 일제 강점기 근대화 과정에서 설립된 공장이나 산업시설 등에 대한 지원과 해방 이후 산업과 과정에서 건축되었으나 경제 쇠퇴로 이전적지로 남아서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한 지원 방식이 별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 근대산업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을 경우에는 역사적 가치를 그대로 복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후화된 건축물을 개보

수하고 해당 건축물이 갤러리나 전시관으로 활용되어 모든 지역 주민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공공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근대산업유산에 대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건축물의 매입과 개보수 비용을 지원

❍ 근대산업유산의 문화재적 가치보다는 현재적 활용 가치가 더 높을 경우에는 노후화된 건축물의 복원과 활용이 지역활성화 사업과 적극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을 지원하고 공모절차를 통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에 공공이 초기에 건축물 매입을 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대한 활용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근거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 폐산업시설에 대한 계획, 특히 여러 건물들이 복수로 노후화된 폐산업시설 지역에 대한 계획은 개인 혼자서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힘듬

- 예를 들어, 안양 석수시장과 같은 폐상가의 경우에는 여러 상인들과 상점주인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이므로 단일하고 일관된 사업계획을 갖기가 힘듬

❍ 또한, 단독 폐산업시설이 존재하더라도 그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을 할 경우에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대산업유산이 포함된 지역지구개발계획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함

❍ 따라서 복수의 폐산업시설이 동시에 개발될 필요가 있거나 근대산업유산과 주변 지역이 연계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 수립을 하는 데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 때, 관련 연구소, 문화기관, 문화단체, 개발사 등에 사업계획 수립을 위탁하거나 이해당사자들에게 연구소 등 앞서의 전문기관들을 알선함으로써 실현가능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4) 근대산업유산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근거 마련

❍ 현재는 근대산업유산의 활용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이나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등의 사업 형태로 진행 중에 있음
- 중앙부처(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기적으로 전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근대산업유산의 가치가 문화적 활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비문화적, 즉 산업적 활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나,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면서 근대산업유산의 재활용이 문화재생에 초점이 맞춰지는 한계가 존재

❍ 근대산업유산의 활용이 문화적 활용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사업 집행을 위한 근거로서 「근대산업유산활용진흥법」(가칭)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근대산업유산활용법」(가칭)은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설계되어 제정될 필요가 있음
- 산업유산의 유형과 범위
- 산업유산 활용의 목적과 의의
- 산업유산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 산업유산 활용의 유형과 방법
- 산업유산 활용을 위한 추진시스템(사업계획, 행재정적 지원)
- 산업유산 특구를 위한 지원시스템

5) 산업유산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근거 마련

❍ 지금까지는 산업유산의 활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문화단체나 시민단체의 요구에 반응하는 형태로 진행된 경향이 존재함

❍ 이제는 산업유산이 갖고 있는 가치를 향유하고자 하는 시장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 산업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태

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조례와 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유산 발굴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산업유산에 대한 주기적인 발굴 조사
- 산업유산 활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 산업유산 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

4. 근대문화유산 활용 시범사업

□ 시범사업의 목적

❍ '근대산업유산 재활용 시범사업'(가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대산업유산을 발굴하고 재활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할 목적으로 추진

❍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근대산업유산 재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하기 위하여 추진

□ 시범사업의 유형

❍ 시범사업의 유형은 근대산업유산의 활용목적에 따라 전시공간형, 문화복합공간형, 문화 상권공간형, 공원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전시공간형: 근대산업유산을 박물관, 갤러리 등으로 활용
- 문화복합공간형: 근대산업유산을 문화를 위한 창작·소비·판매공간으로 활용
- 문화 상권공간형: 근대산업유산을 상가와 업무 오피스 등으로 활용
- 공원형: 근대산업유산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

❍ 시범사업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하여 상기 유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
  – 첫째, 근대산업유산의 역사성, 미학성, 문화적 가치 등을 최대한 활용
  – 둘째, 주변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의 발전 비전을 고려하여 연계개발의 관점에서 근대산업유산의 활용 유형을 선택

□ 시범사업의 절차

❍ 1단계: 중앙부처의 시범사업 지원계획 수립
  – 중앙부처는 근대산업유산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추진
  – 지원계획에는 근대산업유산의 재활용 목적, 유형, 자금 지원, 행정 지원 등을 포함하고 공모절차와 일정을 명시

❍ 2단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며, 이때 사업계획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출
  – 사업계획에는 해당 근대산업유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 재활용 유형,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근대산업유산의 복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특히, 근대산업유산의 가치와 관련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근대산업유산의 건축적, 미학적, 역사적 가치를 활용을 전제로 평가
  – 또한, 근대산업유산이 소재한 주변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근대산업유산의 재활용 방향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 3단계: 시범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 검토와 현장 방문을 실시
  – 시범사업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 서면 검토와 현장 방문을 할 평가단을 구성할 때, 근대산업유산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역사문화 전문가와 지역의 특성을 진단하는 지역 전문가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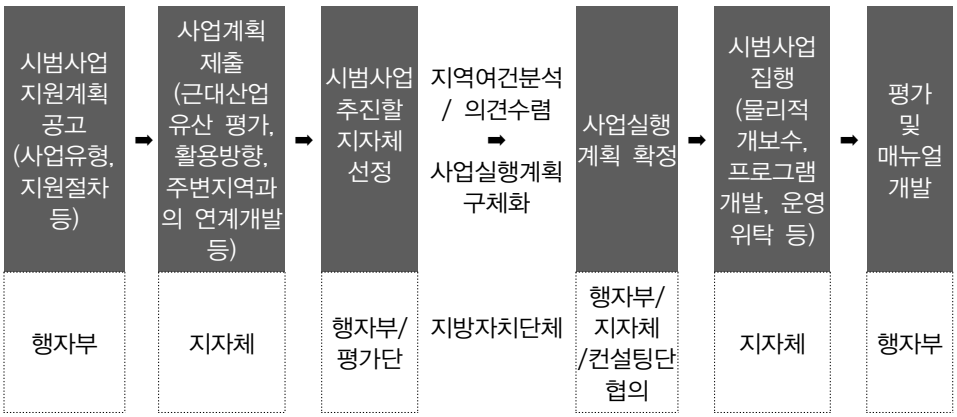
- 해당 평가단을 향후에 사업 실행계획 확정 단계에서 컨설팅단의 일부로 활용함으로써, 사업 선정과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

❍ 4단계: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실행계획 확정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지역 내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구체화된 사업실행계획을 수립
- 사업실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해당 근대산업유산의 소유자, 현재 이용자, 그리고 주변 건축물 이용자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근대산업유산의 개발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
- 컨설팅단의 조언을 받아 사업실행계획을 확정
- 사업실행계획에서 물리적인 건축물 개보수, 주변지역의 발전계획, 그리고 소프트한 프로그램 개발 등도 포함

❍ 제5단계: 시범사업의 집행
- 근대산업유산의 물리적 개보수 추진
- 전시, 축제, 행사 등의 프로그램 내용의 구체화 및 운영 기관의 선정
- 주변지역의 연계개발(보도 정비 등의 소규모 사업에서부터 주변 지역의 통합적 개발까지 포함)

❍ 제6단계: 시범사업의 평가 및 매뉴얼 개발
- 근대산업유산 재활용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근대산업유산 활용과 관련한 개발 특수성을 파악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도출
-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 매뉴얼을 개발

<그림 4-25> 근대산업유산 재활용 시범사업의 추진절차



【참고문헌】

(문헌자료)

강동진·이석환·최동신(2003), "산업유산의 개념과 보전방법 분석", 「국토계획」, 38(2): 7-20.

강동진(2010), "산업유산 재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법론 연구-산업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1(1): 157-178.

강원발전연구원(2009), 「강원도 근대산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광주발전연구원(2015), 「광주시 마을공동체 형성과 강화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2009),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금장태(2000), "사림공동체와 선비의례", 「종교와 문화」.

김광중 외(2010), 「도시쇠퇴 실태 자료구축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도시재생사업단.

김도형(2012), "걷는 길 조성사업의 추진실태와 조성방안", KRILA Focus 제52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선기·이소영(2007), 「주민 주도형 지역만들기 추진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양식 외(2009),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과 활용방안 연구」, 충북개발연구원.

김연진(2009), "유휴공간 문화적 활용의 의의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제21집: 185-207.

김연진(2015),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의 새로운 도전", 「웹진 문화관광」, 2015년 1월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영호(2014), 「세계의 도시에서 장사를 배우다」, 부키.

김정이(2013), "향교·서원을 활용한 유교 현대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경기 정심문화연구 학술대회 발표자료, 경기문화재단.

김현호(2010), "버려진 땅에서 부활의 땅으로, 포천 아트밸리", 「지역발전우수사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김현호(2013),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2014.4.2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5), 「쇠퇴도시를 다시 살리는 도시재생사업 공모 착수」(2015.3.20.)

국토연구원(2008), 「해외조사 결과보고」(2008.5.)

국토연구원(2015), "한·일 양국 중소도시 재생정책의 흐름과 사례", 「국토」, 2015년 3월호, 국토연구원.

군산시청 보도자료(2014), 「군산 근대문화도시, 원도심 재생의 선진 롤모델로 부상」(2014.4.30.).

남지현 외(2012), 「도시 빈 공간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 활동거점 만들기 : 도쿄의 진 건물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단국대 동양학연구소(1975), "儒敎舊新論", 「박은식전집」 하권.

도시재생사업단(2012),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야기」, 한울아카데미.

문화재청(2008), 「도시재생을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방안」.

문화재청(2015a), "향교·서원·고택문화재 활용사업 현황".

문화재청(2015b), "2016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공모 계획(안)"

문화체육관광부(2009),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13), 「문화콘테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추진 방안」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년 산업단지·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공모(2차)」 사업제안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08), 「폐 산업시설에 문화의 새 옷을 입혀라!」(2008.10.23.)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09), 「『아산시 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조성 심포지엄』 개최」(2009.6.2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4), 「산업단지에 문화융성의 씨앗이 뿌려진다」(2014.1.22.)

박봉원·유영심(2010). 「강원도 향교·서원의 현대적 활용방안」, 강원발전연구원.

박신의(2012), "폐 산업시설 활용 문화 예술 공간 정책의 구도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26(1): 53-70.

박재민·성종상(2012). "산업유산 개념의 변천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21권 1호, 65-81.

신안군청(2012), 「신안종합계획」, 신안군청.
안태선(2010), "중국과 한국의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 비교 연구: 베이징 타산즈 지역과 서울 문래동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3(3): 135-163.
오민근·서진영(2010), 「서울, 문화를 품다」, 생각의 나무.
원제무(2012), 「탈근대 도시 재생」, 도서출판 조경.
유희정·김주연·신혜원(2013), 근대산업유산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컨버전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8(1): 85-96.
윤현석(2011), "문화적 도시재생전략 연구-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순자·장은교(2010), "근대산업유산의 창의적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방안", 「국토연구」, 통권 343호: 52-63.
이순자 외(2008), 「근대 산업유산의 보존·활용 기본계호기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 국토연구원
이홍재·장미진(2001), 「우리 민족문화창달을 위한 향교와 서원기능의 현대적 활용방안」 문화정책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2011), 「인천시 지역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도시재생 방안 연구」 보고서.
인하대학교 산학렵력단(2013). 「문화유산 호라용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정비방안 마련 연구」. 문화재청.
임선빈(2003), 「충남지역 향교의 운영실태와 현대적 활용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임유경·임현성(2012),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내 유휴공간 활용 정책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전라남도(2011),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디자인 전남", 「공공디자인 소식지」, 제 10호, 전라남도 공공디자인과.
전북발전연구원(2010), 「전라북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성과제고 방안」 보고서.
정민주(2013), "국내 폐공장의 재활용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5(3): 85-90.
정희선·김희순(2011),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도시 재생과 창조성의 배양: 서울시의

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5(2): 279-293.

천종호(2012), "향교, 서원, 관아 –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은 지역사회의 유적지", 민족문화연구원 웹진 「민련」, 통권 011호.

충남발전연구원 역(2012), 「역사적 유산의 보존·활용과 마을 만들기」, (大河直躬·三船康道(2006), 「歷史的遺産の保存·活用とまちづくり」, 學藝出版社, 京都) 한울출판사, 경기도 파주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8), "석수시장에 가면, 수영장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문화예술」, 통권 328호: 32-39.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05), 「제4장 지역혁신팀」 2005 제3기 국제연수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보고서.

한상우(2014). 「경남지역 유교·선비문화유산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정책포커스」, 경남발전연구원.

한승욱(2013), "도시문제 해결의 강력한 도구, 마을지도(Community Mapping)", 「BDI 포커스」 제200호, 부산발전연구원.

황소영·이정형(2011), "근대산업유산 활용수업으로서 연계 벨트화에 관한 연구-지역 근대산업유산 활용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의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2011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황태희·최희수(2014), "향교·서원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활용 방안", 글로벌문화컨텐츠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91-197.

(웹사이트)

구글(http://www.google.co.kr)

경기관광포털(http://ggtour.or.kr)

경기문화포털(http://www.ggcf.or.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네이버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대구예술발전소(http://www.daeguartfactory.kr)
문화유산국민신탁(http://www.nationaltrustkorea.org)
문화재청(http://www.cha.go.kr)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발틱미술관 홈페이지(https://www.balticmill.com)
서울문화재단(http://www.sfac.or.kr)
서울의 공원(http://parks.seoul.go.kr)
요코하마 아카렌가 홈페이지(http://www.yokohama-akarenga.jp)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유교넷(http://www.ugyo.net)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http://cafe.naver.com)
포천아트밸리(http://pocheonartvalley.or.kr)
4회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https://apap.or.kr/ko/archive/entities/90)
http://www.japan-guide.com/e/e3028.html
http://www.wanderingnotlost.org/2011/09/chelsea-market-nyc-a-whole-lotta-food
한국문화기술원(http://www.kct.re.kr)
한국서원연합회(http://www.seowonstay.com)

(보도자료)

강원일보([영월]농공단지의 깜짝 변신, 2014년 9월 26일)
경기일보(광명시, '산업단지·폐 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최종선정, 2014년 4월 9일)
광주매일신문(수십년 문 닫은 공장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2015년 4월 28일)
교차로신문(신안군 재활용 예술조형물 사업 '잡음', 2009년 12월 16일)
더리더(창원국가산단, 감성 넘치는 창조적 공간으로 '재탄생', 2014년 8월 17일)
동아일보(채석절벽 병품삼은 수정호수…절로경탄, 2009년 10월 26일)
매일일보('예술 메카' 대구창조문화발전소 내달 착공 2011년 01월 17일)
매일일보(영등포구, 영등포공원 17년 묵은 때 벗고 새단장, 2015년 4월 29일)
부천타임즈(삼정동 소각장에서 '만지作 만지作, 조물樂조물樂', 2015년 3월 31일)

오마이뉴스(2007 석수시장 프로젝트 공모합니다, 2007년 5월 7일)
인천인닷컴(백령도 (구)백령병원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 2014년 4월 3일)
주간시흥(시흥·안산스마트허브 고용환경개선사업비 46억 지원, 2014년 2월 5일)
컬쳐인시흥(산업단지에 예술이 꿈틀꿈틀 '예술창작소 창·공', 2015년 2월 16일)
한겨레(폐공장·공단에 '문화 숨결' 불어넣다, 2015년 4월 2일)
한국일보(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사업, 2010년 7월 28일)
헤럴드 경제([Re-imagine, 디자인으로...] 도시재생, 우리 삶을 바꾸는 패러다임, 2014년 10, 21일)

부록 1 : 역사문화자원 활용 관련 정부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담당부처)	사업내용	지원규모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지역의 문화자원의 특성화, 차별화 지원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국가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거점별 문화도시 조성 지역과 주민들의 창조성, 시민들의 삶의 질 주체적 참여, 문화생산과 소비의 활성화 및 문화 인프라 조성 추진기간 : 2003년~계속 추진사업 : 경주 역사문화도시(2003년~), 전주 전통문화도시(2004년~),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2007년~) 3개 도시	개소당 20~70억 원 (국비 40%+ 지방비40%+ 민자20%. 매년 지속지원)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개발 활성화 추진기간 : 2013년~계속 추진사업 : 경관개선사업 : 소공원(저수지, 해안가, 산, 들녘 등), 마을경관, 가로경관, 지역공동체 사업-공동소득, 공동문화 등, 기타 아이디어사업(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특화사업 등)	개소당 20억 원 (국비 70%+ 지방비 30%+ 3년간 지원)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 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형성·복원, 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 관련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 추진기간 : 2002년~계속 추진사업 : 576개	신규조성 마을 3억 원 이내, 추가지원 1억 원 이내 (국비 70% + 지방비30%)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국립공원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농산어촌 대표 관광지를 선정하여 홍보·지원함으로써 농촌 관광의 품질 개선 및 향후 외국인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 전통문화, 향토음식 등 농어촌 문화상품을 기획하여 외국인에게 소개함으로써 진정한 '한국의 멋과 맛'을 알리는 도전의 장 마련 추진기간 : 2010년~계속 추진사업 : 평창 바람마을 이야기(2010), 양평 가루매마을(2011), 경기 화성 백미리마을(2012) 등 60개소(매년 20개소 선정)	마을당 5~10억 원
명품섬 Best-10선정 (안전행정부 지역발전과)	도서지역의 특성과 고유자원을 활용해 관광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	4년간 250억 원

사업명 (담당부처)	사업내용	지원규모
	추진기간 : 2010년~계속 추진사업 : 강화군 교통도(근대문화공간 조성), 옹진군 이작도(바다 생태마을 조성), 당진군 난지도(생태문화 및 해양체험 조성), 군산시 여청도(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고래체험장 조성), 여수시 개도 (전통술 체험의 장과 역사문화공간) 등	
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안전행정부 지역활성화과 살기좋은 지역기획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생활수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도시와 농산어촌을 재창조하는 활동 추진기간 : 2007년~ 추진사업 : 전북 남원시 춘향이 얼이 담긴 건강한 구름다리 마을(2007), 전남 강진군 천년 비색 청자마을(2007) 등	
접경 특성화 마을 (안전행정부)	접경지역 15개시·군을 대상으로 쾌적한 자연 및 생태공간, 잘 보전된 전통문화 등 접경지역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생태·녹색관광 등 농업생산 이외의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을 조성 추진기간 : 2010년~2014년 추진사업 : 동두천시(푸른숲드라마세트장 조성), 춘천시(김유정 문화마을 조성), 화천군(만산동 산천어 생태마을), 양구군(자연생태 치유마을) 등 5개 마을	마을당 25억 원 총 125억 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안전행정부)	지역고유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커뮤니티를 연결한 길 조성사업 및 휴게시설, 주변관광안내, 주차공간, 농특산물판매소 등의 다기능 복합공간인 '친환경 방문객지원시설' 설치사업 지원 추진기간 : 2011년~계속 추진사업 : 우리마을 녹색길 조성(80개소),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 조성(48개소) 등	
역사·문화 생태관광 조성(안전행정부)	추진사업 : 한산도 역사문화 관광조성(통영), 장승공원 조성(춘천), 화전민 농촌역사박물관 조성(화천), 평화공원 조성(옹진), 수변 녹색휴양공간사업(철원), 천문대 테마 탐방로 조성(화천) 등	

사업명 (담당부처)	사업내용	지원규모
생생문화재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융·복합적으로 창출하는 교육·문화·관광산업 프로그램 발굴·운영 추진기간 : 2008년~계속 추진사업 : 충남 부여 정림사지 백제의 혼을 되살리다(사적, 2008), 경남 하동 하동송림 소나무 배우기(천연기념물, 2009), 제주 알뜨르 역사의 올레(등록문화재, 2010), 충남 서천 한산소곡주&모시 생생체험(무형문화재, 2011), 충남 공주시 1500년전 백제 블랙박스를 열자(사적, 2012) 등 91개소	과제당 2~3천만원 (국비100%, 당해연도 지원)
지역근대 산업유산 예술창작 벨트화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공간문화과)	개발논리에 밀려 훼손·멸실되거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산업유산의 재인식,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통한 도심재생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 추진기간 : 2008년~계속 추진사업 : 경기 포천 폐채석장(전시, 공원, 2008), 충남 아산 장항선 폐철도(공연, 전시, 2008), 전북 군산 일제강점기 근대유산(근대사, 공연, 2008), 전남 신안(염전, 공원, 체험, 2008) 5개소	총 400억 원, 개소당 40~70억 원(국비 50%+지방비50%, 3년간 지원)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공미술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미술위원회)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정서 등의 정체성을 문화콘텐츠로 발굴, 예술로 승화시킨 대규모 미술마을 조성 사업 과거 역사성을 지니고 있던 곳이지만 현재, 그 기능을 상실한 장소 또는 시설물(건축물 포함)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미술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추진기간 : 2010년~계속 추진사업 : 경북 영천시 신몽유도원도-다섯갈래행복길(행복프로젝트, 2010년), 강원도 인제군, 제주도 제주시, 경기 김포시, 전북 남원시(기쁨두배프로젝트, 2009년~2010년기 선정지 지원), 경남 거창 생초리 천년의 숨결(테마이야기, 2011년) 등	공모사업 유형별 1억~9억 원 (국비50%+ 지방비50%)
이야기가 있는 문화상태 탐방로 (문화체육관광부 녹색관광과)	지역의 길 중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 자원이 뛰어난 곳, 특히 도보 여행객들이 가 볼만한 곳을 지정, 지원 탐방로 조성 및 안내 체계 구축, 홍보 등의 사업을 지원 추진기간 : 2009년~계속 추진사업 : 소백산 자락길(2009년), 백의종군로(2010년),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2011년), 함양 선비문화탐방로(2012년) 등 37개소	개소당 1억 원+ a(국비:관광개발 진흥기금_지방비)

사업명 (담당부처)	사업내용	지원규모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민 모두가 생활속에서 문화를 향후하고 문화를 통해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 기초생활권 내 임대아파트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문화적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대상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활동이 가능한 문화예술 단체·기관을 선발하여 사업비 지원, 우리동네 예술동네 수기공모 추진기간 : 2009~계속 추진사업 : 서울 마포구 극단 민들레(2009), 전남 영광군 우도농악보존회(2010), 충남 공주 농촌생활문화공동체의 희망찾기(2011), 이천 우각로 문화마을(2012)등 78개소	총 12억 원 (국비:복권기금 100%)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이 가진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기성찰과 휴식, 가장 한국적인 정신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산사체험 지원 추진기간 : 2002년~계속 추진사업 : 운영자 연수 및 인력양성, 국내외 마케팅 홍보, 사업단운영비 지원, 사찰음식관광자원화 등 118개소 사찰 지원	연도별 책정 (국비100%
향교, 서원 및 종교시설 지역주민의 문화공간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담당과)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향교, 서원을 지역거점 문화공간으로 유도 추진기간 : 2003년~계속 추진사업 : 문화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향교 234개소, 서원 510개소	사업유형별 지원
전통문화 체험 숙박시설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형 관광숙박시설을 제공하여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택·종택 등 전통 한옥을 관광자원화 추진, 한국전통 주거문화체험을 위한 전통한옥체험시설 개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추진기간 : 2004년~계속 추진산업 : 전통한옥 개보수 102개소, 체험프로그램 81개소, 고택·종택 명품화 49개소 등	사업유형별 지원
한옥건축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의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유도하고 주민과 일반인이 일상에서 한옥을 접하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 추진기간 : 2008년~계속	총 360억 원

사업명 (담당부처)	사업내용	지원규모
	추진사업 : 공주·영암·이천(2008), 부여·장흥·전남(2009), 서울시·서울구로·전주(2010), 서울은평·광주남구·강릉(2011) 등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일제강점기의 왜곡과 급격한 산업화 과정으로 인해 그 원형이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전통예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원형대로 재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추진기간 : 2007년~계속 추진사업 : 구례진수농악(풍물, 2007), 인천 부평산삼농악(농악, 2008), 전주 용와제 복원(의례, 2009), 마산오광대(민속연악, 2010), 동편제 판소리의 복원 및 재현(음악, 2011), 박석고개 사신성황당 당굿 복원 및 재현(무속, 2012) 등 40개소	과제당 4천만원(국비100% + 당해연도 지원)
문화이모작사업-농어촌마을문화심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을의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형 문화기획 프로그램을 전개 추진기간 : 2010년~계속 추진사업 : 전남 강진 도룡리(2010), 5개 권역별 교육추진 후 우수계획선정 지원(2011~계속)	우수계획 유형별 지원
한 문화재 한 지킴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기업, 학교, 단체, 개인 등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청소 등), 문화재 모니터링, 문화재 홍보와 교육 활동, 문화재 및 시설물의 경상관리 활동 등을 지원 추진기간 : 2005년~계속 추진사업 : 우수활동 단체 공모사업 선정 지원,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	연도별 책정

자료 : 제6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자료집(2013)에서 발췌.

부록 2 :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문화재청) 사업목록

〈2014년〉 : 38건(향교 24, 서원 14)

광역	기초	유형	대상문화재	사 업 명	주관단체
서울	강서	향교	양천향교 터 (시 기념물 8)	서울 문화유산 학교	(주)프블릭그라운드
대구	달성	서원	도동서원 (사적 488)	2014 도동서원제 '道, 東에서 꽃피다'	달성문화재단
인천	남구	향교	인천향교 (시 유형 11)	전통문화 삼색감동(三色感動)체험	인천시 남구
	강화	향교	강화향교 (시 유형 34)	살아 숨 쉬는 전통문화 예절교육 체험학습장 운영	강화향교
광주	광산	서원	월봉서원 (시 기념물 9)	월봉서원이 건네는 '선비의 하루'	교육문화공동체 결
세종	세종	향교	연기향교 (시 기념물 6)	연기 향교와 함께하는 세종 선비아카데미	연기향교
경기	김포	서원	우저서원 (도 유형 10)	우저서원 전통문화 체험사업	우저서원
	수원	향교	수원향교 (도 자료 1)	'향교골'에서 만난 정조 임금님 -수원향교를 중심으로-	경기관광공사
	용인	서원	심곡서원 (도 유형 7)	'심곡서원에서 문화유산의 향기를 느끼다'	A&A문화유산연구소
	포천	서원	용연서원 (도 유형70) 화산서원 (도 기념물 46)	"오성과 한음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강원	원주	향교	원주향교 (도 자료 98)	전통생활예절 및 서당운영	원주향교
	홍천	향교	홍천향교 (도 자료 99)	홍천향교 활용 기반조성 사업	홍천향교
충북	청주	향교	청주향교 (도 유형 39)	'새로운 유교문화의 꽃을 피우다, 청주향교'	청주향교
	괴산	서원	화양서원 (사적 417)	화양서원 2014년형 선비 되기	화양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
충남	논산	서원	돈암서원 (사적 383)	禮힐링캠프 운영사업	돈암서원
	공주	서원	충현서원 (도 자료 60)	삶과 지혜의 공간, 충현서원을 만나다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광역	기초	유형	대상문화재	사 업 명	주관단체
	홍성	향교	결성향교 (도 기념물 134)	친구야, 향교가자?	문화 in 장꾼
전북	남원	향교	남원향교 (도 유형 8)	남원향교 전통문화 진흥사업	남원향교
	정읍	서원	무성서원 (사적 166)	태산아! 무성하게!	(재)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진안	향교	진안향교 (도 자료 14)	고전 연수교실 운영 및 고전요체를 통한 실용학습	진안향교
전남	장성	서원	필암서원 (사적 242) 봉암서원 (도 기념물 54)	문불여(文不如), 무불여(무불如) - 장성에서의 1박2일	장성군
	구례	향교	구례향교 (도 유형 110)	향교야 놀자	구례향교
	나주	향교	나주향교 (사적 483)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학교 - 굽은 소나무 나주를 살리다	동신대 평생교육원
	무안	향교	무안향교 (도 유형 114)	황토골 문화 인터페이스 향교	무안향교, 무안문화원
	화순 1	향교	능주향교 (도 유형 124)	즐겁게 배우고 체험하는 전통예절 제례법	능주향교
	화순 2	향교	화순향교 (도 유형 63)	청소년 인성교육 활성화	화순향교
	담양	향교	창평향교 (도 유형 104)	예학 창평향교 27성현의 초대를 받다	창평향교
경북	구미	서원	동락서원 (도 자료 21)	서원나들이 - 선비들의 웰빙문화 따라잡기	경북과학대 겨레문화사업단 ☆
	경주	서원	옥산서원 (사적 154) 서악서원 (도 기념물 19)	'서원' 그곳에 가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 음풍농월, 유유자적 선비체험	(사)신라문화원 문화재보존활용센터☆
	영주	서원	소수서원 (사적 55)	소수서원 Stay프로그램 운영	동양대학교 한국선비연구원
경남	거창	향교	거창향교 (도 유형 230)	함께하는 태고문화, 향교아카데미	거창향교
	고성	향교	고성향교 (도 유형 219)	향교 전통문화 체험교실 운영	고성향교

광역	기초	유형	대상문화재	사 업 명	주관단체
	진주	향교	진주향교 (도 유형 50)	유교대학 설립 운영	성균관유도회 진주지부
	하동	향교	하동향교 (도 유형 223)	진사(進士)·생원(生員) 양성사업	하동향교
	함양	서원	남계서원 (사적 499)	남계(濫溪)에서 일두(一蠹)를 만나다	남계서원
제주	제주	향교	제주향교 (도 유형 2)	제주향교에서 놀멍, 쉬멍, 배우멍!	제주향교
	서귀포 1	향교	대정향교 (도 유형 4)	서예교실 운영	대정향교
	서귀포 2	향교	정의향교 (도 유형 5)	살아 숨 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	정의향교

〈2015년〉 71건(향교 51, 서원 20)

광역	기초	유형	대상문화재	사 업 명	주관단체
서울	강서	향교	양천향교 (도 기념물 8)	“천(天)가지 표정, 만(滿)가지 재미, 양천향교”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부산	동래	향교	동래향교 (도 유형 6)	동래향교스테이운영	부산시향교재단
대구	북구	향교	칠곡향교 (문화재자료 6)	칠곡향교,선조들숨결‘仁’의감동	칠곡향교
	달성	서원	도동서원 (사적 488)	2015 달성 선비문화아카데미	달성문화재단
광주	남구	향교	광주향교 (시 유형 9)	광주향교, 온고지신과 인성교육 현장교실 운영	광주향교
	광산	서원	월봉서원 (시 기념물 9)	월봉서원, 삶속에 잔물지다	문화기획사 라우
대전	대덕	향교	회덕향교 (문화재 자료 5)	선비문화 체험을 통한 창조문화 계승	회덕향교
	서구	서원	도산서원 (문화재 자료 3)	도산서원으로 떠나는 라온마실	백제문화원
인천	남구	향교	인천향교 (시 유형 11)	인천향교 전통문화 삼색감동(三色感動) 체험	인천광역시 남구청
	강화	향교	인천향교 (시 유형 34)	2015년 살아 숨 쉬는 전통문화예절교육 체험학습장	강화향교
울산	울주	향교	언양향교 (시 유형 8)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선비학당	언양향교
세종	세종	향교	연기향교 (시 기념물 6)	연기향교, 지역의 상생을 꿈꾸다	연기향교
	세종	향교	전의향교 (시 기념물 7)	전의향교 스마트폰(愛)에 빠지다	전의를 디자인하는 사람들
경기	용인	서원	심곡서원 (도 유형 7)	심곡서원에서 문화유산의 향기를 느끼다	A&A문화연구소
	의정부	서원	노강서원 (도 기념물 41)	청렴선비의 삶, 노강서원에서 배우다	문화나눔연구원
	김포	서원	우저서원 (도 유형 10)	종봉조헌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체험 아카데미	우저서원

광역	기초	유형	대상문화재	사 업 명	주관단체
	양평	향교	양근향교 (문화재자료 19)	예의문화의 전당인 양근향교를 찾아서	양근향교
	양평	서원	운계서원 (문화재자료 18)	미션! 사라진 동재서재를 찾아라	(재)한국교육 문화재단
	안성	향교	양성향교 (문화재자료 28)	“오래된 미래” 602년 전통의 양성향교 선비대학에 입학하다!	양성향교
	포천	서원	용연서원 (도 유형 70) 화산서원 (도 기념물 46)	오성과 한음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	한국문화유산 연구센터
	고양	향교	고양향교 (문화재자료 69)	365일 살아숨쉬는 고양향교	(재)경기도향교재단 고양향교
	수원	향교	수원향교 (문화재자료 1)	‘향교골’에서 만난 정조 임금님	경기관광공사
강원	원주	향교	원주향교 (문화재자료 98)	찾아오는 향교, 맞이하는 향교, 보여주는 향교	원주향교
	정선	향교	정선향교 (문화재자료 101)	유(You)! 유(儒)! 유(遊)!	정선향교
	홍천	향교	홍천향교 (문화재자료 99)	나도 선비처럼	홍천향교
	화천	향교	화천향교 (문화재자료 102)	화천향교에서 “전통으로 힐링하자”	화천향교
	삼척	향교	삼척향교 (도 유형 102)	“감성과 역동적인 삼척향교”	삼척향교
	동해	서원	용산서원 (문화재자료 140)	“감성 아뜰리에, 용산서원”	용산서원
충북	청주	향교	청주향교 (도 유형 39)	새로운 유교문화의 꽃을 피우다, 청주향교	청주향교
	괴산	서원	화양서원 (사적 417)	지역과 더불어 사는 삶 화양서원	화양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충남	천안	향교	천안향교 (도 기념물 110)	시민과 소통하는 천안향교 운영	천안향교
	천안	향교	직산향교 (도 기념물 109)	왁자지껄 직산향교	우리역사문화 협동조합
	보령	향교	보령향교 (도 기념물 112)	보령향교에서 옛 문화를 만나다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아산	향교	온양향교 (도 기념물 115)	우리 가족 이야기 족보 만들기 ‘뿌리를 찾아서’	문화기획학교

광역	기초	유형	대상문화재	사 업 명	주관단체
	아산	향교	아산향교 (도 기념물 114)	아산과 토정 그 멋진 만남	아산향교
	홍성	향교	결성향교 (도 기념물 134)	향교 style, 365	문화 in 장꾼
	홍성	향교	홍주향교 (도 기념물 135)	젊은 향교·재미있는 향교	내포문화관광 진흥원
	공주	서원	충현서원 (문화재자료 60)	우리동네 문화 사랑방, 충현서원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논산	서원	돈암서원 (사적 383)	돈암서원 禮힐링캠프	돈암서원
전북	군산	서원	임피향교 (문화재자료 95)	물고기 물 만났네!(교육 및 염색체험, 답사)	문화재아웃리치 연구소
	군산	향교	옥구향교 (문화재자료 96)	음식체험과 충효예절	옥구향교
	남원	향교	남원향교 (도 유형 8)	남원향교 전통문화 진흥사업	남원향교
	진안	향교	진안향교 (문화재자료 14)	고전 연수교실 운영 및 고전요체를 통한 실용학습	진안향교
	정읍	서원	무성서원 (사적 166)	태산아! 무성하게	문화재아웃리치 연구소
전남	화순	향교	화순향교 (도 유형 63)	전통예절교육 및 인성교육 지속화	화순향교
	화순	향교	능주향교 (도 유형 124)	즐겁게 배우고 체험하는 전통예절·제례법	능주향교
	화순	향교	동복향교 (문화재자료 125)	호남 도학의 산실, 동복향교를 만나다	(사)문화진흥 협회
	장성	향교	장성향교 (도 유형 105)	청렴·절의 찾아 떠나는 선비 여행	장성향교
전남	담양	향교	창평향교 (도 유형 104)	예학 창평향교 27성현의 초대를 받다	창평향교
	나주	향교	나주 향교 (사적 483),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구례	향교	구례향교 (도 유형 110)	오래된 미래, 향교	구례향교
	무안	향교	무안향교 (도 유형 114)	황토골문화 인터페이스 향교	황토골문화 인터페이스사업단
경북	영천	향교	영천향교 (보물 616)	“향교에서 선비를 만나다”	영천향교

광역	기초	유형	대상문화재	사 업 명	주관단체
	경산	향교	경산향교 (도 유형 105)	창조적 인성교육 및 전통예절 체험	경산향교
	영양	향교	영양향교 (문화재자료 75)	찾아가는 향교, 전통문화 계승	영양문화원
	경주	향교	경주향교 (도 유형 191)	경주향교 스테이(Stay) 프로그램	경주향교
	경주	서원	옥산서원 (사적 154) 서악서원 (도 기념물 19)	Yes(禮書)! 서악서원	(사)신라문화원
	영주	서원	소수서원 (사적 55)	소수서원 STAY 선비인성 프로젝트	동양대학교 한국선비연구원
	구미	서원	동락서원 (도 유형 464)	2015 동락서원 나들이, 차 마시며 여헌을 노래하자!!	경북과학대학교 겨레문화사업단
	상주	서원	옥동서원 (도 기념물 52)	옥동서원의 선비정신과 호국의숨결을 찾아서	상주문화 콘텐츠 연구소
	문경	서원	근암서원 (도 유형 377)	근암서원 인문 정신 교육	근암서원
경남	창녕	향교	창녕향교 (도 유형 212)	살아 숨 쉬는 향교문화재의 초석이 될 전통문화의 발걸음	창녕향교
	고성	향교	고성향교 (도 유형 219)	향교전통교육 체험교실운영	고성향교
	하동	향교	하동향교 (도 유형 223)	진사·생원 양성사업	하동향교
	거창	향교	거창향교 (도 유형 230)	함께하는 태고 문화, 향교 아카데미	거창향교
	진주	향교	진주향교 (도 유형 50)	경남유교대학 운영	진주향교
	진주	서원	가호서원 (문화재자료 61)	가호서원 논어학교	가호서원
	김해	서원	월봉서원 (문화재자료 464)	김해가야문화와 지역밀착형 선비교실	월봉서원
제주	제주	향교	제주향교 (도 유형 2)	제주향교에서 놀멍, 쉬멍, 배우멍!	제주향교
	서귀포	향교	대정향교 (도 유형 4)	2015년 “살아 숨 쉬는 향교” 활용사업	대정향교
	서귀포	향교	정의향교 (도 유형 5)	우리 같이 향교 가자	정의향교